

建築士



K.I.R.A.

vol. 405

2003

01

UIC



큰건물에 강하다

LG시스템에어컨 휘센

한 대의 실외기에 접속되는 냉매배관을 단배관으로 직렬구성하여
탁월한 에너지 효율, 편리한 설치 및 설치비용의 절감은 물론
다양한 실내기를 자유롭게 연결하는 효율적 배관구조의 시스템입니다

공간절약과 에너지절약의 고효율 냉난방시스템

별도의 실내기 설치공간 및 기계실이 필요 없고, 기존 냉난방시스템
대비 최고 40%까지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ESCO 자금 지원대상제품)

빠르고 강력한 인버터 냉난방시스템

강력하고 유연한 인버터 압축기 채용으로 $\pm 0.5^{\circ}\text{C}$ 의 미세 온도제어와
1.5배 빠른 해속운전은 물론 영하 -15°C 추한기 난방까지 책임집니다.

자유로운 설계/설치가 가능한 Free Joint 빌딩 멀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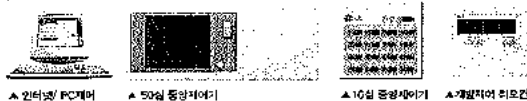
4.5~30Hp의 실외기 용량, 다양한 실내기 기종 및 빌딩에 적합한 냉매배관
시스템 (수평 100m/수직 50m)으로 설계가 자유롭고 설치가 간편합니다.



편리하고 다양한 개별/중앙제어 시스템

실내기 개별제어/그룹제어/인터넷 제어/중앙제어/PC제어/
적산전력 분배시스템 등 다양하고 편리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중앙제어 컨트롤러>



전문가라면 큰 건물에서도
크게 남은 장사를 하셔야죠

시스템에어컨 제품 구입 문의

강남 (02)2005-3578 김북 (02)727-4180 경기/강원 (031)217-5091 인천/부산/안산 (032)321-9181 부산 (051)807-3241
경남 (055)238-6402 경북 (053)257-0808 충청 (042)254-4210 호남 (062)510-5840 시스템에어컨MC (02)2005-3054

시스템에어컨 기술 상담 안내

서울 (02)2005-5055~60 ※ 시스템에어컨 홈페이지 (www.systemaircon.com)를 방문하시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계(8개국) 발명특허 획득!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스웨덴, 한국, 중국, 캐나다)

난방문화의 혁신! 심야전기 보일러 난방비보다 시설비 및 유지비가 저렴!

난방비 걱정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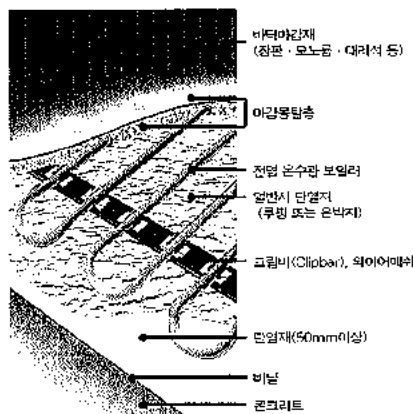
전용
바닥난방 초절전 온수관 보일러로...

■ 제품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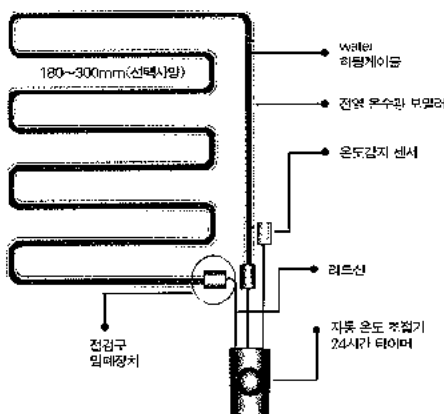
- 경제성** 일반유류의 70% 도시가스의 30% 심야전기보다 12% 저렴
- 안전성** 배관내부의 열매수가 전열선의 과열을 보완하는 기능때문에 화재위험 없음. 동파 방지. 일정온도 유지.
- 절약성** 가구 이동없이 바닥배관을 뜯지않고 초절전온수관보일러로 재활용 가능
- 환경성** 무공해, 무소음, 무전자파, 청정 난방
- 효율성** 각방의 온도를 따로따로 조절(On/Off가능)할 수 있고 중앙집중식 개별난방으로 유지관리비 절감
- 공간성** 별도의 보일러실 없이 온수관 자체가 보일러



✧ 온돌 몰타르 시공방법



✧ 온돌 보일러 제품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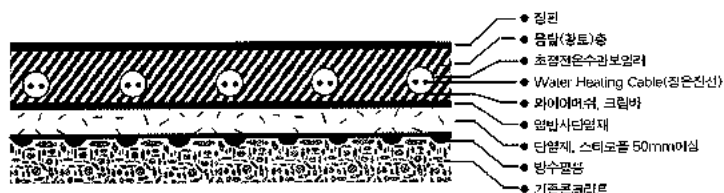


✧ 온돌 보일러 시공사양

시공선택사양 방열관 간격(mm)	평당시공 길이(m)	평당소비 전력(kwh)
300	10	0.19
275	11	0.21
250	12	0.23
230	13	0.25
200	15	0.29

※ 주택용 전력 수용가 제외
※ 건축법 제59조 규칙 단열시공기준을 기준

✧ 온돌 몰타르 시공방법



▶ 제품 주 수요처

호텔, 숙박업소, 콘도, 오피스텔, 연구소, 교도소, 실버타운, 사찰, 종교시설, 기숙사, 연수원,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군·경내무반, 병원,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작물 일정온도 유지, 지중난방 등

- ▶ 경향전기에너지 절약 부문 산업자원부장관 수상제품
- ▶ 정부 각 부, 처, 도, 시, 군, 구 우수 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
- ▶ 중소기업청 「신기술 개발 벤처 기업」 인증
- ▶ ISO9001:2000 인증획득업체

※ 당사 온수관 보일러는 특허기술이므로 무단사용시 특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계약시 필히 본사에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본사 사칭 유사 제품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천열에너지(주)
Chunyeul Energy Co., Ltd.

대표전화 02)928-1090
팩스번호 02)925-5353

본사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12-1
서울본부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37가 234 성신빌딩 3층
홈페이지 www.chunyeul.co.kr
E-mail: 1010cy@korea.com

정부조달 우수제품 인정
신기술 KT 인정제품

불연 인테리어 건축 내장 마감재

안타민

- 불에 안타면서 불의 확산을 막아줍니다.
-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양한 칼라, 패턴으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 시공이 간편하고 경제성이 있습니다.
- 충격에 강합니다.

소방법, 건축법 에서의 해방!

2002. 4. 1 소방법 개정시행(대통령령)

특수장소 및 다중이용업소의 벽체, 천정에
설치하는 실내장식 마감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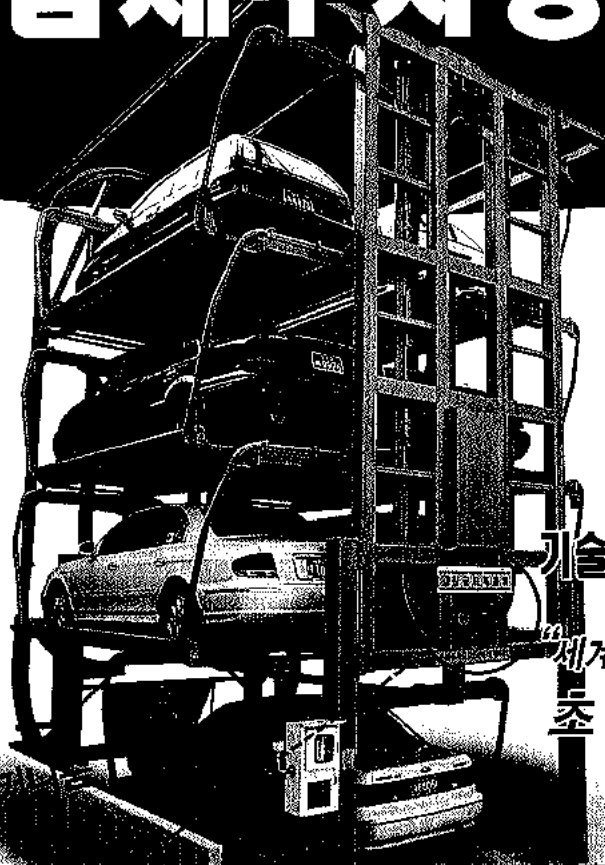
세 · 계 · 최 · 초 · 의 · 독 · 자 · 모 · 델 · 로 · 대 · 한 · 민 · 국 · 을 · 대 · 표 · 하 · 는 · 주 · 차 · 기 · 가 · 되 · 겠 · 습 · 니 · 다 .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SKY PARK

PL 영업배상
3억
대해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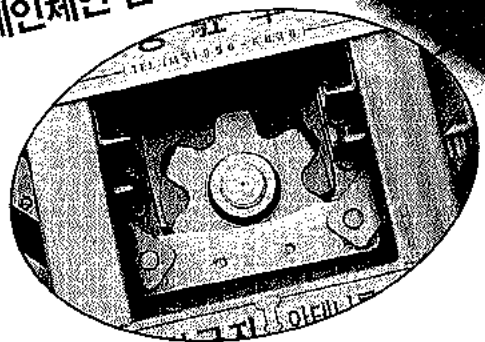
10년이상 쓸 수 있는 주차장치
"자신있습니다"

인정번호 대구 제1-15호
인정번호 대구 제1-16호
실용신안등록 제20-0190325호
실용신안등록 제20-0246310호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세계최초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초슬림형"

세계적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접속구동의 新메카니즘



■ 이렇게 다릅니다

- 압축된 기계간접해진 구동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 지상자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홈페이지(www.Juchagi.com)에 있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자재정보(www.Archidb.com)의 '주차'를 검색하십시오.
- ☞ **자매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접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 사양 (뉴그랜저급 진입가능)

모 델 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 (最小)	주차기 길이 (最小)	소요높이 (最小)
SKY PARK-5	5 대	4570	6090	6830
SKY PARK-6	6 대	4570	6090	7720
SKY PARK-7	7 대	4570	6090	8600
SKY PARK-8	8 대	4570	6090	9380
SKY PARK-9	9 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 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 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 대	4570	6090	13060

신제품 지상설치형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0mm!

명칭 : 지상설치형 턴테이블(신형)
수용차량 : 중 소형 승용차(무거 2000kg 이하)
구동방식 : 미탈 구동식
구동모터 : 0.15 KW x 3개
장력속도 : 약 1 RPM
조작 방법 : PUSH BUTTON
연입 전원 : AC 380V/220V - 3φ+60Hz
재제 중량 : 약 1000 kg

실용신안등록 제0293726호



건축사의 신용, 대출名家의 자존심을 약속합니다!!

보험으로 쌓은 신뢰, 대출로 이어가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을 위해
이젠, 보험뿐만 아니라 대출도 삼성생명과 상담해 주세요.

내일을 위한 희망설계 - 삼성생명 대출



신용대출 안내 (무담보 무보증 원칙)

대출자격 / 건축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교사, 기타 공무원

대출금액 / 1천만원~1억 5천만원

예상금리 / 연 7.0%~13.5%

기간 / 1년~5년 (수시상환, 연장,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능)

대출기관 / 삼성생명, 제1금융(은행), 제2금융(보험사, 금고 등)

■창업자금 특별상담

■담보대출 : 최저금리, 설정비 면제

■APT 소유자, 구입예정자 : 6.0%~7.0%(10년, 15년, 20년, 30년형)

■APT, 단독주택 등 주거용 전세자금이면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상가, 빌딩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설정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라이트 플러스 대출 : 최저 6.0%

■스피드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경락대금 : 90%까지 대출 가능

삼성생명대출특선!!



최고액 대출

삼성생명

Seed Bank

최저의 금리

신속한 처리

상담문의

삼성생명 정책5부

팀장: 양승영

Tel (02) 545-8853~4

Fax (02) 545-4939

H-P 011-9738-0087

내일을 지키는 힘

SAMSUNG

LIFE INSURANCE



열어 보십시오. 만족 하실 것 입니다.

정직한 기업, 대성그룹 알앤알리모델링은
고객의 부동산과 건축물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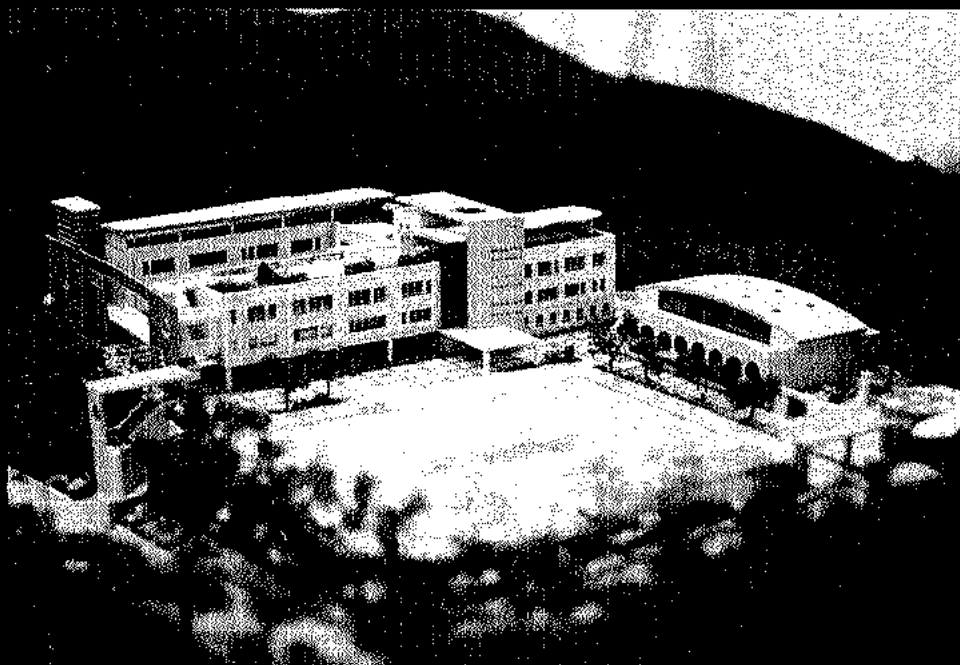
- 정확한 타당성분석을 통한 부동산 개발
-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는 친환경건축
- 전문가집단이 이끌어가는 차별화된 계획과 디자인
- 합리적이고 철저한 시공매니지먼트를 통한 고품질 시공
-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통한 비용절감
- 책임있는 사후관리

모형

그리고

사람

꿈이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건축모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립중앙대학교
대학로 관악캠퍼스

건축모형

단위세대모형

아파트모형

현상모형

지역안내모형

플랜트모형

고건축모형

인테리어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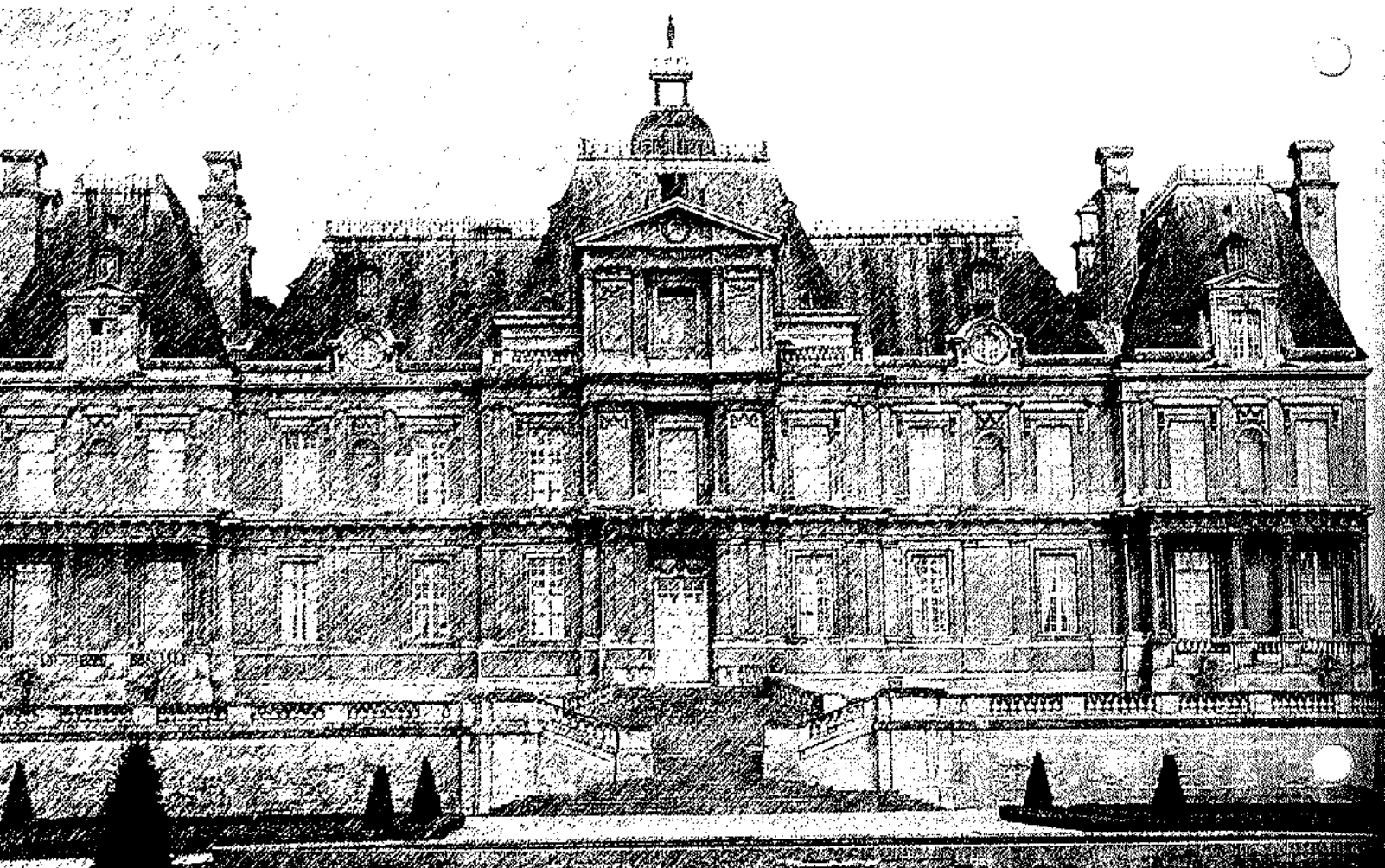
기계작동모형

**Model &
People**
ARCHIMODEL

130-030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6-71 주상복합 3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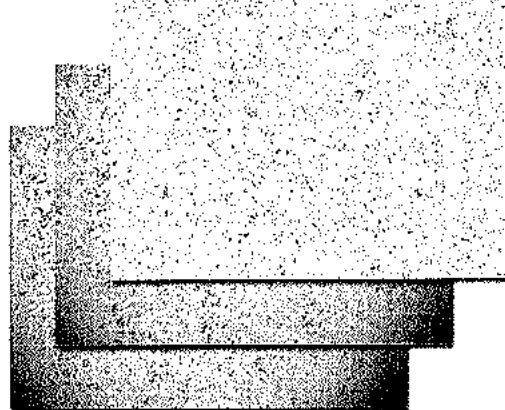
TEL 02)2217-5942~3 FAX 02)2217-5944

W
D
O
N
I
C
B
A



RITZ ST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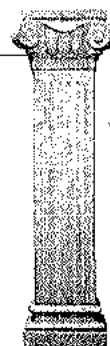
- 다양한 형태 및 크기의 모형 제작, 연출이 가능
- 자유로운 색상의 제품 - 천연 안료(산화철계통)의 사용으로 영구적 COLOR표현
- 석고형 제품으로는 발현할 수 없는 고강도 제품
- 방습, 방수, 방염
- 보온, 흡음 효과
- 뛰어난 내구성으로 반영구적
- 환경친화적인 소재(천연 무기질 세라믹 원료)
- 제품의 경량화로 구조적 부담절감



주요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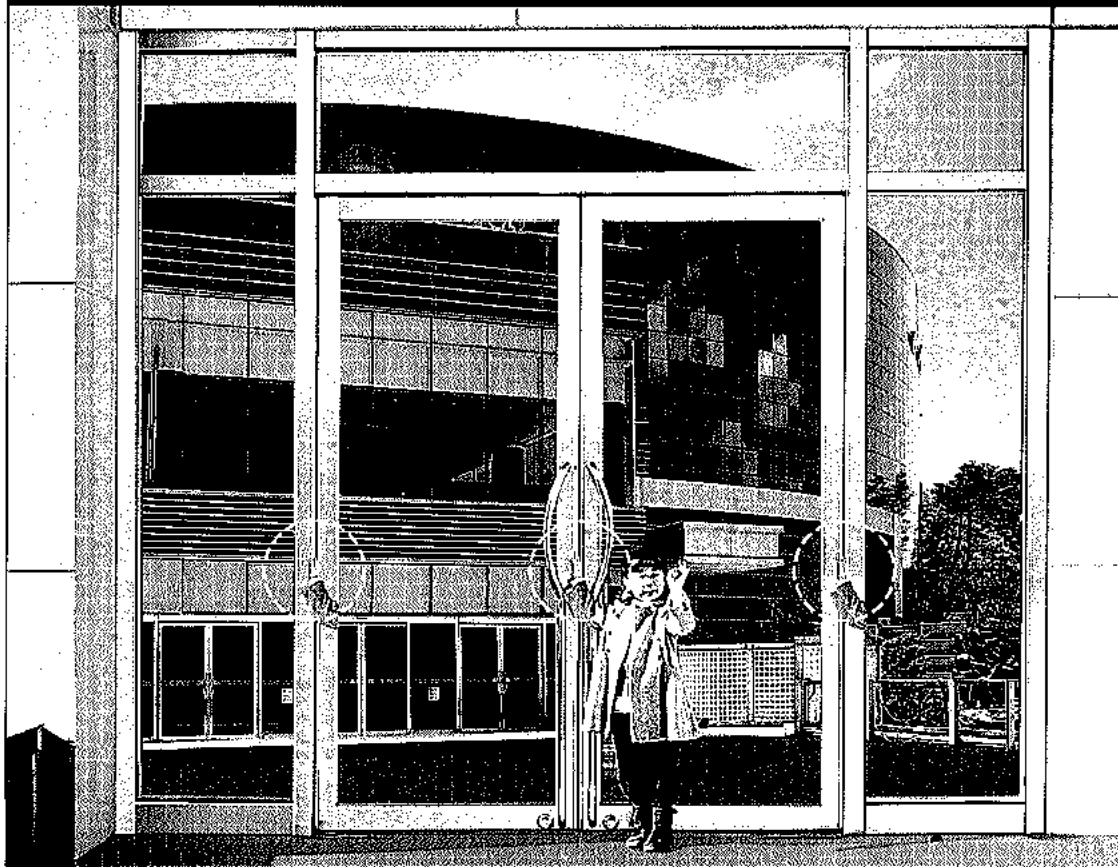
- RITZ STONE 내,외장 마감재료
- RITZ STONE 몰딩
- RITZ STONE 각종 기둥
- 다양한 모형제작
- 인공 바위 제작

(주) 그린 씨 앤 텍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1번지
정남빌딩 4F
전 화: (02)541-5455
팩 스: (02)541-2338
<http://www.greencn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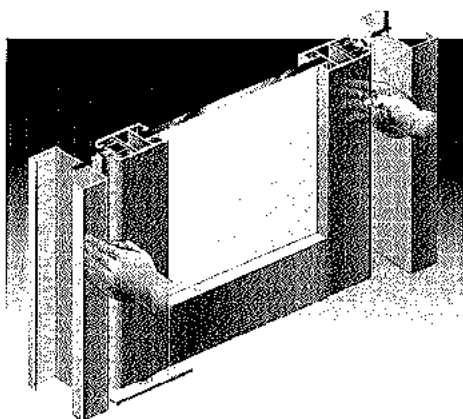


세이프강화도어

제조물 책임(PL)법에 의해 제작된 안전한 문. 세이프 강화도어! — 정우는 안전한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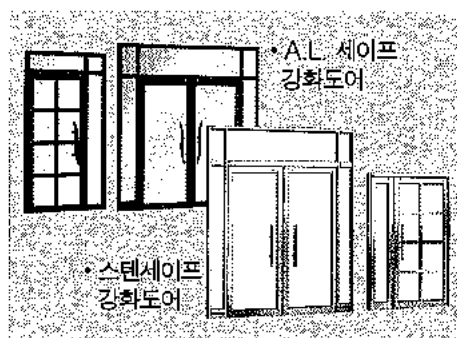


어린이 “손”을 보호하는 도어,
유리 “문” 파손방지 및 에너지 절약, 방음, 방풍이 완벽한 도어!



단면 상세도

사용시에는 방풍, 방음, 단열이 완벽하고 손가락이 끼었을 시에는 이중케이스가 유연하게 작동하여 손가락을 보호하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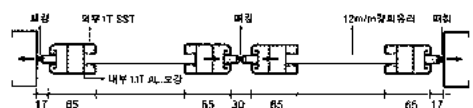


설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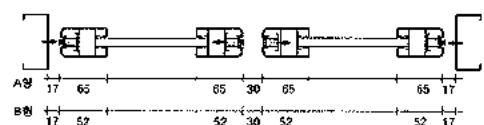
- 학교 • 관공서 • 종교건물 등
- 음식점 • 은행 • 아파트 • 빌딩
- 목욕탕 • 상가건물 • 유치원
- 백화점 • 병원 • 호텔 • 기타

평면 상세도 (홈페이지 설계다운로드 참조)

1 사용 상태도



2 어린이 손가락이 끼었을 때 작동 상태도



기존의 일반 강화도어는 안전사고 및 에너지 손실이 많아 단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물가 자료집에서 삭제되었음)

단가표: 한국물가 자료집 416p 참조

어린이 「손」, 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정우산업

www.safedoor.co.kr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을내동 374번지
전 화 : (053)325-9800/325-9801~2
FAX : (053)325-9802
E-mail: jungwoo9800@hanmail.net

벤처 기업 등록 업체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03년 1월호, 통권405호

차례 2003 1 405호



도로기술연구원(김상길·김희옥 작)

27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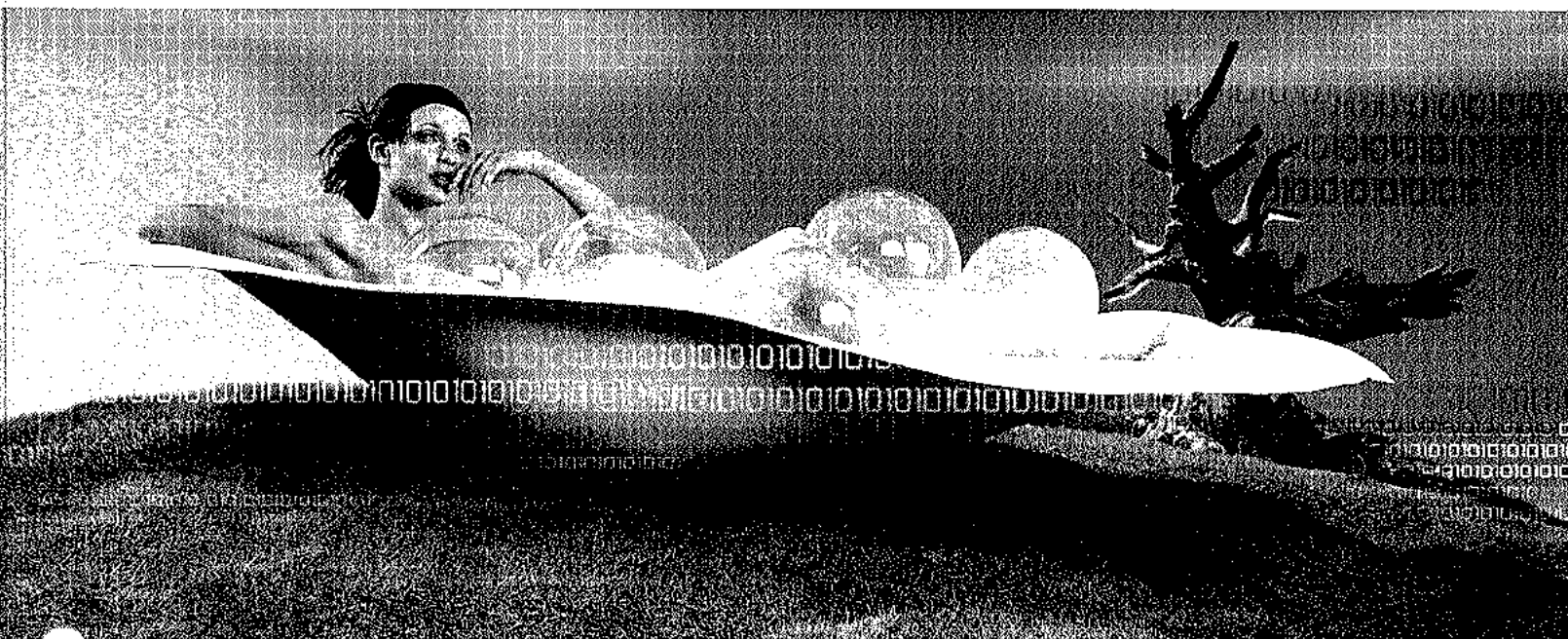
55



발행인: 우남용
 홍보편집위원회: 정정채, 박영식, 김수경, 목대상, 민승렬,
 박주환, 심우근, 최정일
 취재·편집: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종식/중앙미술쇄공사 (02)2269-7619
 광고문의: 대한건축사협회(아홍식 팀장)

신년사	우남용	16
칼럼	건축계의 새로운 필요들	길기석 18
건축만평	유원재	21
회원작품	경기도 어린이집	김동훈 22
	한국도로공사 도로기술연구원	김상길·김희옥 28
	산수동 K빌딩	한진수 34
	김포우리병원	박홍균 40
	수원복합빌딩	박상하 46
	민마루주택	최삼영 52
	수서주택	이웅선 58
작품노트	교원공제회 대전회관	오봉희 64
기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방법과 기준 (1)	이희정 70
	「건축사 특별 검사원 제도」란 기고를 읽고	이봉춘 80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83
	현상설계	88
	해외잡지동향	97
	법령	100
	2002년 총 목차	104

당신의 보일러는 디지털 입니까?



린나이 디지털 보일러 디지털 —



디지털은 가스비가 절약됩니다

가스불꽃이 컴퓨터로 자동조절되어 불필요한 열손실을 막아
유지비를 최소화시키는 고효율 에너지 제품입니다.



디지털은 인터넷 제어시스템으로 앞서갑니다

홈네트워크 기술의 완성으로 인터넷을 통해 밖에서도
가정 내에 있는 보일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주문생산)



디지털은 리모콘 사용이 편리합니다

기본 리모콘 외에 별도의 리모콘을 추가로 설치하여
각방의 실내온도를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은 샤워하는 즐거움이 다릅니다

맞춤온도 유지기능으로 언제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
시켜주며 특히, 디럭스형의 경우 방수처리된 추가 리모콘
으로 욕실에서 샤워온도를 눈으로 확인하며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은 온수 사용이 훨씬 편리합니다

35℃에서 60℃까지 온수의 온도설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3·6·10개월
무이자 할부판매
삼성카드 할부금융
(삼성카드)



6년연속 고압만족도 1위 업체 선정
가스보일러: 능률협회인증



상공의날
금감산업진흥장수훈



동종업계최초
A/S 우수기업 인증



2001년 품질경영력
50대 우수기업 선정

Rinnai 린나이코리아(주)

전국지사 및 영업소 서울 320-5555 인천 512-0002 수원 247-3651 부산 583-6225 대전 625-6314 대구 362-3652 광주 521-2651 창원 238-3601 강원 (원주)744-8111

■ 업계최초 A/S 우수기업 인증 ■ 365일 연중무휴 서비스 ■ 신속한 본사직영 서비스 체제 ■ 동결기 24시간 서비스 운영 ■ 서비스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1544-3651 ■ 고객센터 : (수도권 통합서비스) 02-325-3651, 365-3651



Newyear Address	Woo Nam-Yong	16
------------------------	--------------	----

Column

New Needs To the Role of Architects	Kil Ki-Suck	18
-------------------------------------	-------------	----

Cartoon	Yoo Won-Jai	21
----------------	-------------	----

Works

Kyeonggi Kindergarten	Kim Dong-Hoon	22
Korea Highway Corp. Research Institute Facilities	Kim Sang Gil & Kim Hee-Ok	28
Sansudong K Building	Han Jin-Su	34
Kimpo Uri Hospital	Park Hung-Kyun	40
Suwon Complex Building	Park Seong-Ha	46
Minmaru	Choi Sam-Young	52
Suseo Residence	Lee Yong-Sun	58

Design Note

Korean Teacher's Mutual Fund Daejeon Center	Oh Dong-Hee	64
---	-------------	----

Feature

Implementation Guideline for District Unit Plan	Lee Hee-Chung	70
After Reading the Feature on "Architect's Special Examiner System"	Lee Bong-Choon	80

Architects' Plaza

Archi-Net	83
Competition	88
Overseas Journal	97
Laws & Ordinances	102
2002 Annual Index	104

Publisher: Woo Nam-Yong

Editorial Member : Jeong Jeong-Chi, Park Young-Sik,
Kim Soo-Kyeong, Mok Dae-Sang,
Min Seung-Ryeol, Park Ju-Hwan,
Shim Woo-Keun, Choi Jeong-Il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ungang-art Printing Co.)

For the Generations to 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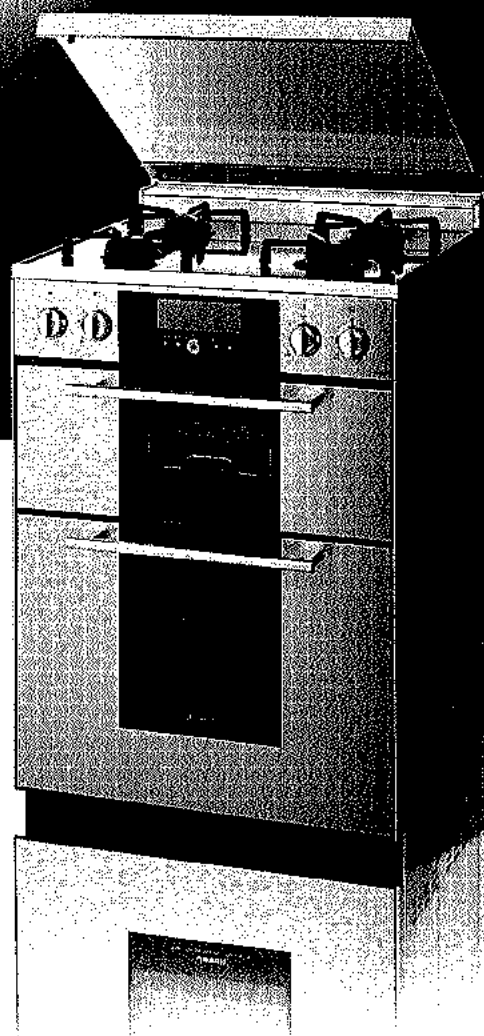


여자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여자의 감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린나이도 변했습니다
여자를 위한 화려한 변신! 레볼루션 린나이

- 우수디자인 선자부 장관상 수상 TOP
- 고품격 독일 세라믹(CERAN)글라스 상판
- 유림스티일의 글라스 커버
- GRILL
- 심면 압제가열방식의 대형그릴
- 15분 자동소화 안전티머
- 위생적인 항류코팅 그릴
- OVEN
- 과속조리 디지털 컨벡션 기능
- 편리한 아이온 오픈자동요리 기능
- 위생적인 흡속 항균 코팅

■ MODEL : RSF-31CS

Jewell 쥬벨



■ 제품 구입 및 문의 : 전국 유명 백화점 및 할인점등 대형유통점 · 가스 오븐/라인지 대리점 : 1588-8292 · 보일러 대리점 : 1588-9933 · 열수용기기 대리점 : 02-320-5555
■ 전국지사 및 영업소 : 서울 320-5555 · 인천 512-0102 · 수원 247-3651 · 부산 583-6225 · 대전 625-6314 · 대구 382-3652 · 광주 521-2651
· 창원 238-3601 · 원주 744-6111 ■ FAX A/S접수 : (02) 323-3651 ■ 서비스 고객 상담실 : 전국 어디서나 1544-3651 ■ 인터넷 주소 : <http://www.rinnai.co.kr>

Rinnai 린나이코리아(주)

다시다난했던 두두년이 지니고 대망의 찬 꽃未년 새해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협회는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건축사업무대강화, 건축사대표자격 존속, 건설업체의 설계허용범위 확대 저지, 실적 관리제도 도입 등 건축사업무와 관련한 각종 불합리한 법규개정과 제도개선을 이루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이같은 성과는 힘든 상황속에서도 회원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뜨거운 성원으로 가능했기에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회원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2003년 또한 미래를 향해 크게 한 발자국을 내딛는 제도약의 원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우리나라 경제가 점차 호전되고 있다지만 아직도 우리, 건축설계업계의 앞날을 비리보는 시각에는 기대와 열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과당경쟁, 덤핑수주 등으로 아직도 일선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시장개방 등 급변하는 주변환경이 우리를 숨돌릴 틈없는 긴장국면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과거 외환위기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모든 난관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협회 또한 올 한해 건축제도의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회원 권익보호 차원에서 조사·감사업무에 대한 법개정, 행정처분제도 개선, 건축사자격대여문제 해결, 건축물 유지관리 등 건축사 업무영역 확대방안 등을 적극 연구 실현시켜 나갈 방침이며, 다수의 회원들이 참여해 협회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회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건축정보화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각종 정보가 실시간으로 회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본인은 회장에 취임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목표는 전회원의 건속을 바탕으로한 건축사의 권익향상과 위상제고에 있음을 밝히 왔습니다.

그러나 2년여간 회장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우리 앞에 산적한 많은 과제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 최대의 걸림돌이 밖이 아닌 우리 내부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에 심로 인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굳은 결속력과 화합은 우리 건축사들의 전통인 동시에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전문자격사단체 설립 규제완화 정책을 틈타 나타나고 있는 도의의 타락, 사상분열과 대립 등 여러 병리현상들이 이같은 오랜 화합과 단결력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전통을 쌓기에는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이루어진 좋은 전통도 한번 꺼어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심점이 없고 좌충우돌하는 붕토에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기란 불가능합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8천5백여 우리 건축사 회원은 한 배를 탄 동지요 한 가족입니다.

희생과 봉사로 서로를 위해주고 좀 더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협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면 우리 앞길에 놓인 그 어떤 난관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본인 또한 여러분과 함께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썽 우리 협회가 8천5백여 회원의 굳건한 중추조직으로서 그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회원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당부드리며, 이만 30주년 새해인사에 대신합니다.

30주년 기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우 남 용

건축계의 새로운 필요들

New Needs To the Role of Architects

길기석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시설이사
by Kil Ki-Suck

통합적 자세와 진취적 포용이 절실함

壬午年 한 해가 가고,

21세기 모두(冒頭)의 설레임을 넘어, 이제는 보다 내실있는 성과를 향해 매진할 수 있는 2003년 癸未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건축계의 입장에서든 새롭게 시작되는 한해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펼쳐진 많은 변화에 건축계가 대응했던 과거를 둘러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도시개발의 시대에서 도시관리시대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의 변화는 개발밀도의 하향조정, 환경친화형 도시구축을 위한 선계획 후개발 방식으로의 제도변화와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시 내 물리적 공간을 다루는 건축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축계가 가져야할 자세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구분에서 통합의 시대로 - 건축사의 역할 증대

건축계가 다루고 있고 표현하는 도시내 물리적 환경은 경제적으로 보면 “부동산”이란 말로 변화하여 말할 수 있다. 흔히 21세기의 성장산업은 무엇인가? 란 질문에 사람들은 흔히들 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등을 말하곤 한다. 그러나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분야는 “부동산 비즈니스”이다. 이 분야는 지금까지 간과하고 지나쳐 온 분야이며, 이러한 부동산 비즈니스 분야에 건축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앞으로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왜냐하면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최종단계에 건축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비즈니스 분야의 하나인 “부동산 비즈니스” 분야에서 건축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최근의 제도적 변화를 보면 건축사에게 기술적으로 기술 통합적 자세를 요구하고 있으며, 비즈니스적으로는 고객지향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종전에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으로 운영되던 두 개의 제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었고, 종전에는 없었던 도시계획을 “주민이 제안” 할 수 있는 절차가 확립되었으며, 향후 공포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의 주체가 주민조합이 될 수가 있으며, 재건축/재개발시 사전에 컨설팅을 하도록 되어있고, CM/PM과 같이

개발사업의 전단계를 서비스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변화 및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다루는 건축계의 입장으로는 새로운 업무영역의 개척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으나, 지금껏 건축사의 역할은 상당히 미미하였고, 새롭게 생성되는 업무영역에 대하여 우리의 업무영역이 아니라는 배타적 태도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계획가가 만들어 놓은 물리적 환경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최종적인 설계업무만을 전담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건축사가 주도적으로 물리적 환경조건을 만들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적/사회 환경적 변화에 대하여 건축사들은 좀 더 적극적이고, 기술 통합적 자세를 견지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기성과 보수의 대결

21C의 화두는 “디지털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로 요약되는 주변환경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몰고 오고 있다. 21C초 한국사회를 요동쳤던 진취적 기상으로 뭉쳐진 “벤처산업의 등장”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사회적 변화의 바람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은 건축업계, 건축학계, 건축시장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건축업계에서는 기존의 매너리즘을 비판하고 신진그룹으로 태동된 “새건축”의 등장으로 그동안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타성에 젖었던 건축업계의 임의 단체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분파적 행동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건축학계에서는 설계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5년제 혹은 4+2년제와 같은 학제의 개편이 검토되고 있으며, 학교교육과 실무교육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고민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자들과 학생들 그리고 산업현장에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고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즉 교육자들에게는 학제개편에 따라 길어진 기간내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학문교육의 현상적 고민을, 학생들에게는 타 분야보다 더 길어진 학업기간 이후의 취업문제를, 산업현장에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성건축사의 재교육·실무교육의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건축시장에서는 도시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개발을 규제하는 제도적 변화와 업계내부의 초경쟁시대 도래에 따른 가격파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고민의 해결과 향후 예상되는 저성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자세의 변화는 건축업계, 건축학계 등 건축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21C초 한국사회를 들끓게 했던 진취적 기상으로 뭉쳐진 “벤처정신”으로 풀지 않으면 향후 건축계 전반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능동적 자발성의 회복

새로운 변화의 바람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의 주도세력인 신진그룹은 기성세대의 보수적 패배주의적 사고의 변화를 통하여 건축주(Client)에 예속된 건축사들의 자세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건축사의 입장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PJ Delivery System)에서 건설업체, Developpe 그룹의 요구에서 PJ를 주도하기보다는 단순용역의 개념으로 접근해 왔다. 그러나 향후 전개될 미래사회는 건축사에게 “비즈니스 마인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세분화된 시장의 수요를 읽는 힘, 디자인적 사고를 벗어나서 “상품”을 만드는 사고의 변화, 대상고객(Client)과 상품을 효과적으로 묶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가는 역할 등 지금껏 요구되지 않은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건축사의 업무영역의 확대 또는 새로운 역할의 증가에 대비하는 건축사의 자세는 지금껏 가졌던 수동적 사고로는 접근하기 어렵다.

건축사가 몸담고 있는 “건축시장”은 “부동산 시장”이며, “부동산시장”은 한국의 시장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한 축이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흐름 속에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사들은 수동적인 시각으로 “건축시장”을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이고 유연한 시각으로 “건축시장”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전개될 미래사회에서 건축사의 역할은 단순용역의 범위를 벗어나서 다양한 요구를 받게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건축사들은 분과적 사고에서 통합적 사고로의 전환과 기술 지향적 역할에서 기술 통합적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껏 PJ에 예속된 수동주의적 사고를 벗어나 진취적 기상의 내부확산을 통하여 PJ를 주도하는 전문 기술집단으로서 전문기술능력의 습득과 고객지향적 사고의 균형과 조화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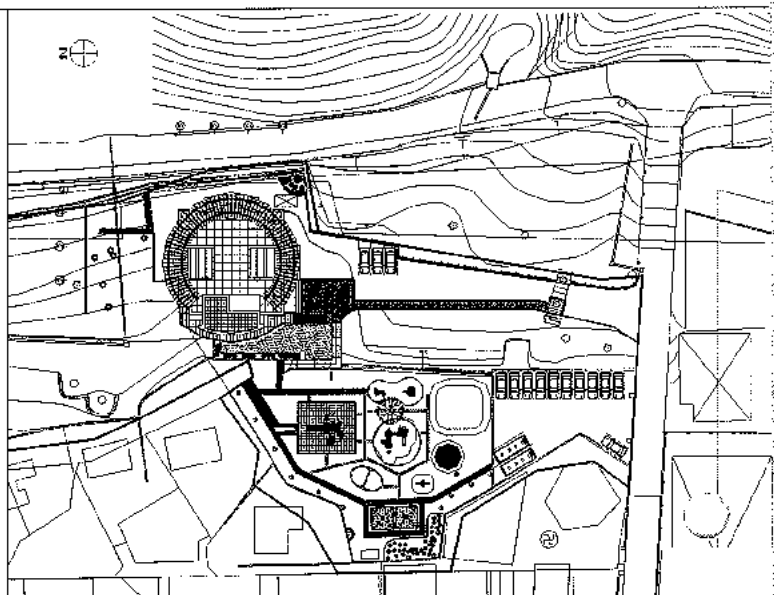
경기도 어린이집

Kyeonggi Kindergarten

김동훈 / (주)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Dong-Hoon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산43-7번 일원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용 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어린이집)
대지면적	14,504.04㎡
건축면적	434.09㎡
연 면 적	674.72㎡
건 폐 율	6.75%
용 적 륜	9.86%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 장 재	부조타일(도안), 드라이비트메쉬, T=16칼라록충유리, T=12강화유리
내 장 재	판넬히팅위 비닐계쉬트, 비닐벽지, 비닐천정지, 수성페인트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채수옥)



배치도

사회 구조가 급격히 변화해 가면서 맞벌이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행정을 담당하는 경기도청에도 우수한 여성 공직자들이 늘어나면서 자연히 자녀들의 보육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사 내 어린이집이 만들어졌다.

집안이 편해야 바깥일도 잘 되듯이 집에 두고 온 우리 아이가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여야 여성공직자는 물론이고 아빠들도 안정이 될 것이고, 이는 곧 경기도민을 위한 서비스 정신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본다.

남들은(?) 청사를 새로 짓는다, 집무실을 리모델링 한다 아단일 때 경기도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기거하던 관사를 할어내고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집을 건립한다고 할 때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잘 지어졌다고 소문난 어린이집들의 방문 조사와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 그 뜨거운 여름은 그렇게 해서 더운 줄 모르고 지나갔다. 아마 필자가 설계를 하면서 그렇게 덥고 힘들고 고뇌해 본 기억도 없었던 것 같다.

적은 예산에 수많은 주문 사항들, 예정된 착공 일을 두고 이루어 지는 온갖 사항들 몇 번이고 팽개치고 싶은 심정이 있었지만, 그 일을 주관하는 부서의 공직자들 자세가 너무나도 진지하고 의욕에 차 있어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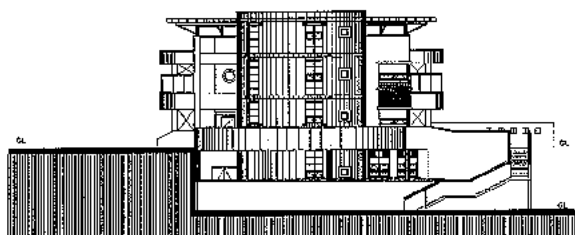
특히 어린이 집을 계획 하면서 임시로 운영중인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그 또랑또랑한 눈망울로 "우리 어린이집 잘 지어주세요" 하고 말하던 아이들 모습이 떠올라 시간에 쫓겨 밤잠 못 자고 계획할 때도 힘든 줄 몰랐던 것 같다.

경기도 어린이 집은 팔달산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화성이 어우러진 정말 훌륭한 주변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부지는 심한 경사로 인하여 계획에 어려움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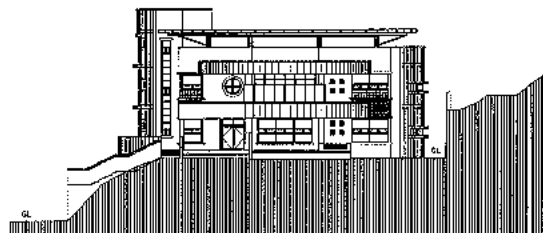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심한 경사를 이용하여 동적공간과 정적공간을 구분하였고, 이 공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지







좌측면도



정면도

하층을 연결하는 계단과 엘리베이터 그리고 미끄럼틀 등의 요소가 활용되었다.

가급적이면 예각을 피하고 곡선을 디자인 언어로 채택 하였으며, 외부의 색상도 미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결정 하였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2층 테라스를 형성하고 있는 벽체에 아이들이 직접그린 그림을 활용하여 풀리주 형식의 타일작업이 예산 등의 이유로 실행되지 못하여 아쉬운 마음이 든다.

설계자는 이 작품을 구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였다.

- 어린이들은 재미 있어야 한다.
- 어린이들은 그곳에 가고 싶어 해야 한다.
- 어린이들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여야 한다.
- 어린이들은 집만큼이나 안전하고 엄마만큼이나 사랑스런 관심 속에서 생활하여야 한다.
- 엄마가 마음 놓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공간계획

· “나 경기도 어린이 집 다니다.” 자랑할 수 있는 어린이 집

· 보육업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곳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고 생각할 어린이 집.

가장 기본적인 말이면서 건축가가 가장 하기 어려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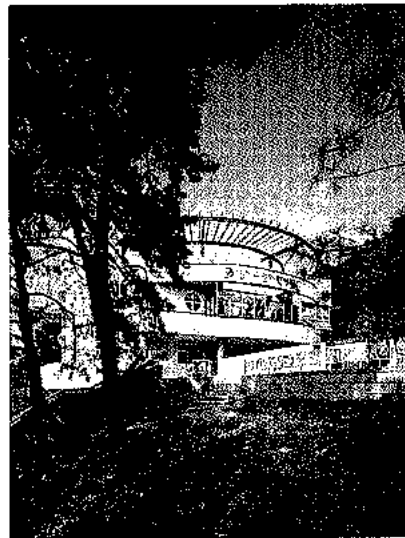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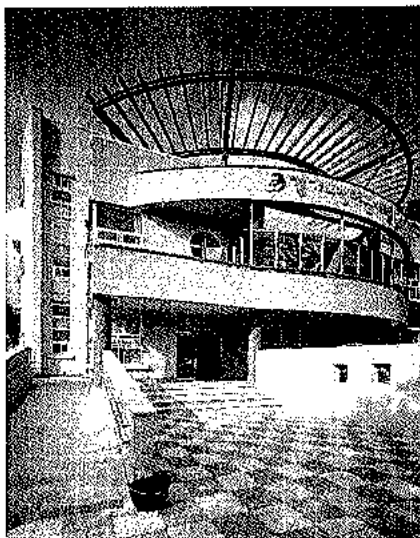
“설계한 집에 갔을 때 진심으로 환영 받는 건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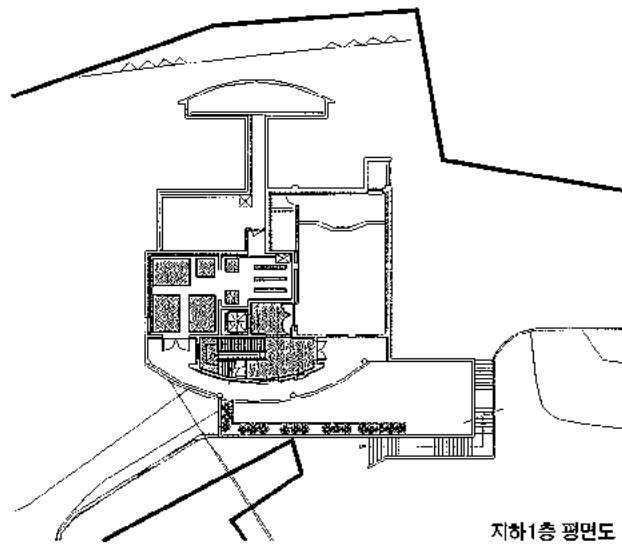
작품을 끝내놓고 보니 아쉬운 점들이 이곳저곳에 보이긴 하나 그래도 정말 좋다!

“애들아 이제 너희들 맘껏 뛰어 놀아라,아저씨는 너희들과 약속을 지켰으니 너희들도 아저씨가 바라는 대로 맑고 희망차게 그리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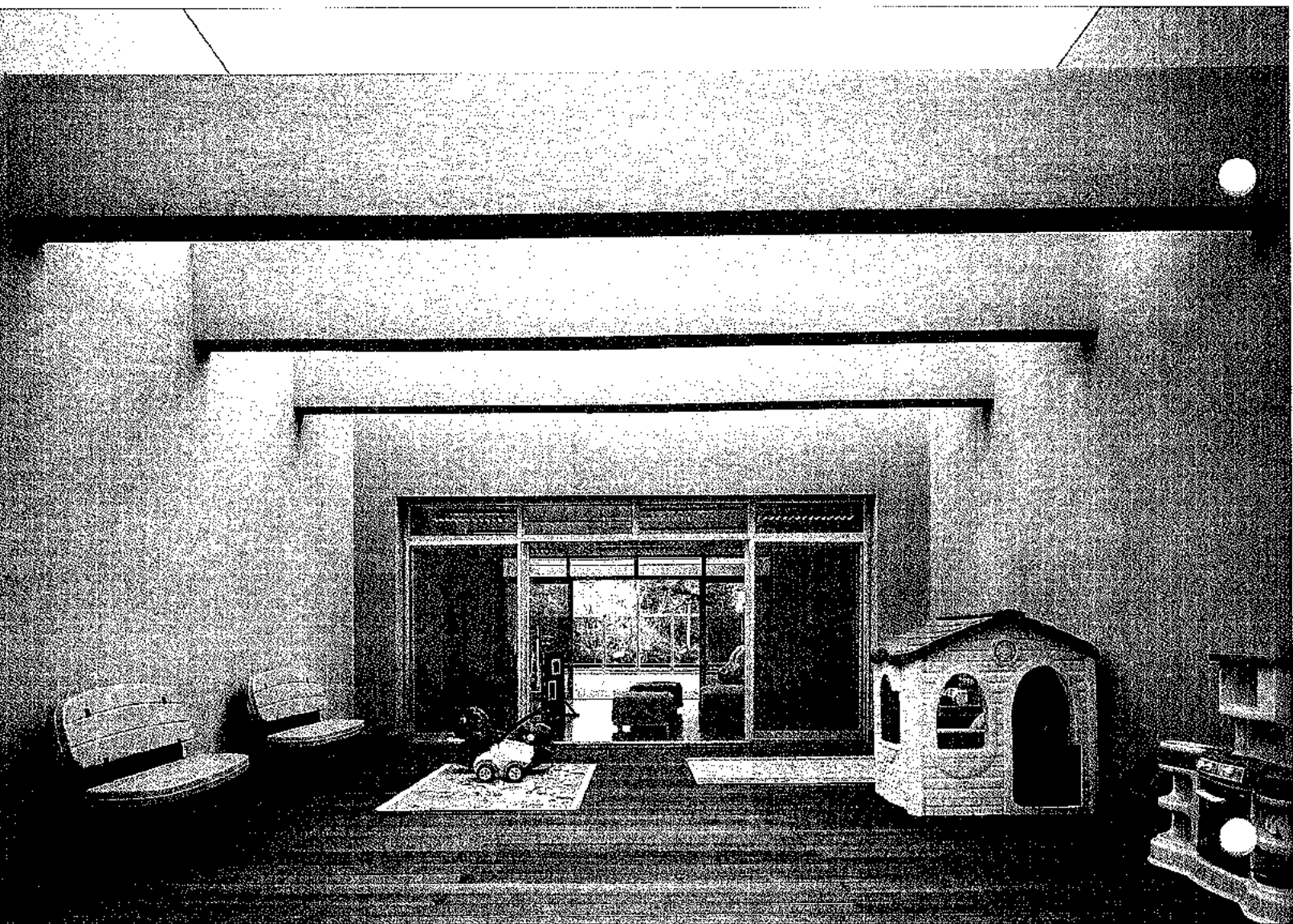
새해에는 형편이 닿는 대로 너희들 찾아 가서 같이 놀아주고 싶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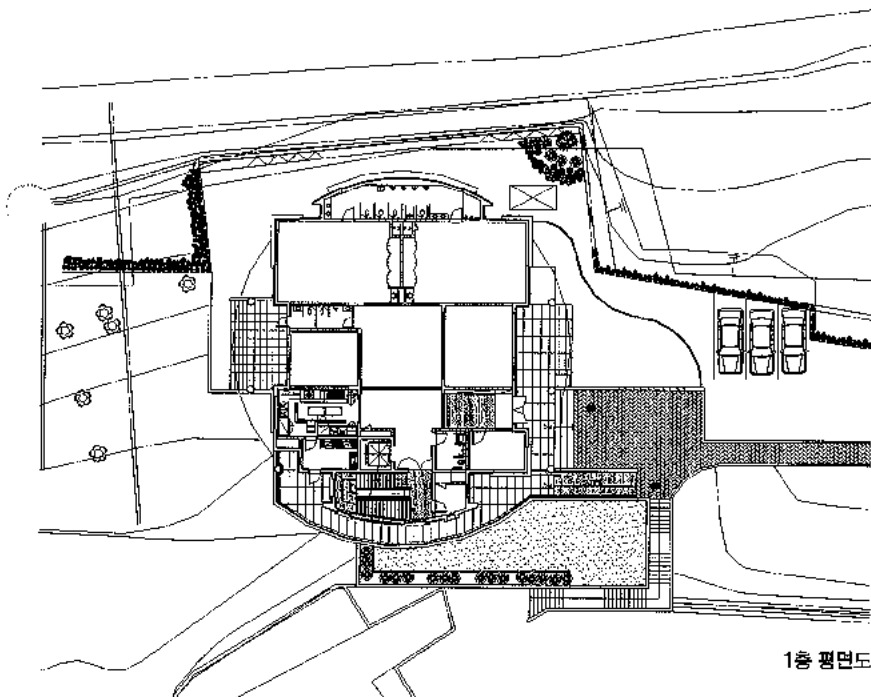
물론 아저씨의 사랑스런 딸 성민 그리고 믿음직한 아들 한준과 같이 약속을 잘 지킨 아저씨 김동훈(글/김동훈)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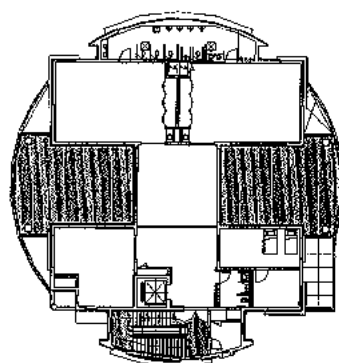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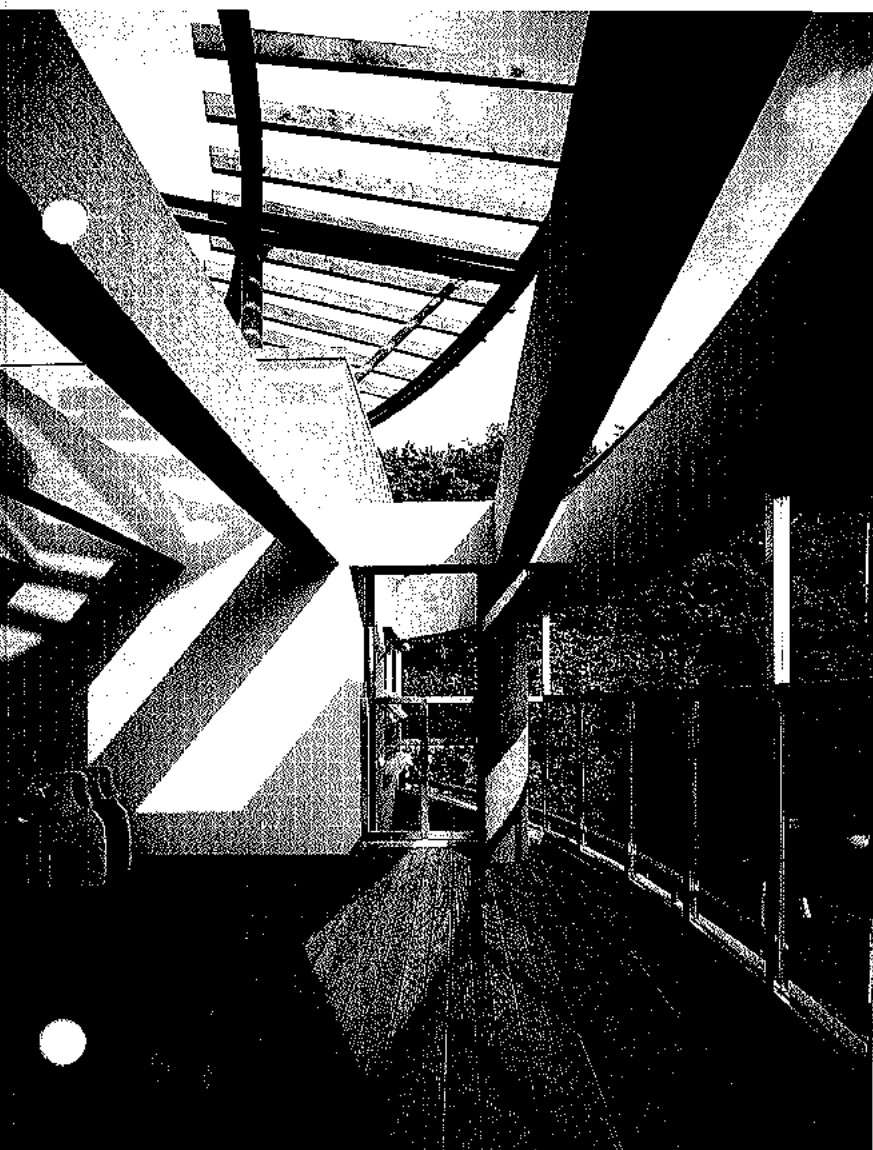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한국도로공사 도로기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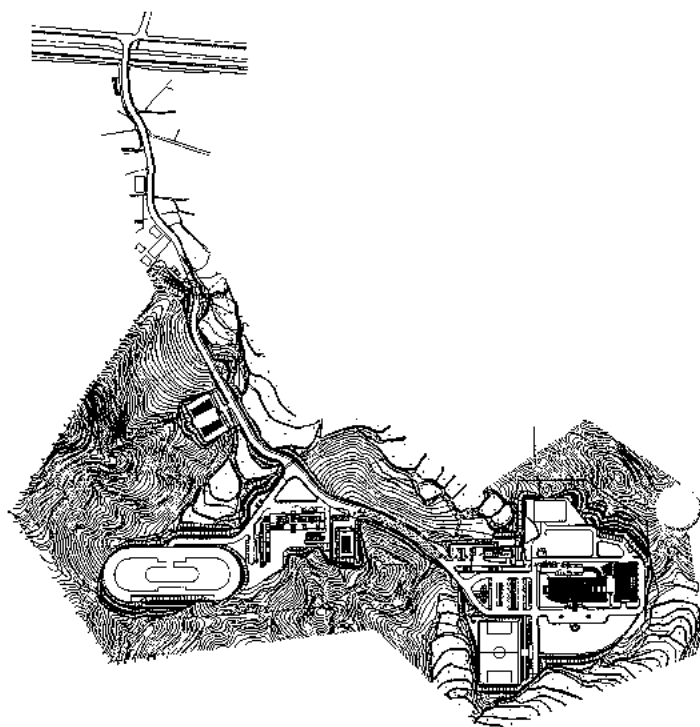
Korea Highway Corp. Research Institute Facilities

김상길 · 김희옥 /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ang Gil & Kim Hee-Ok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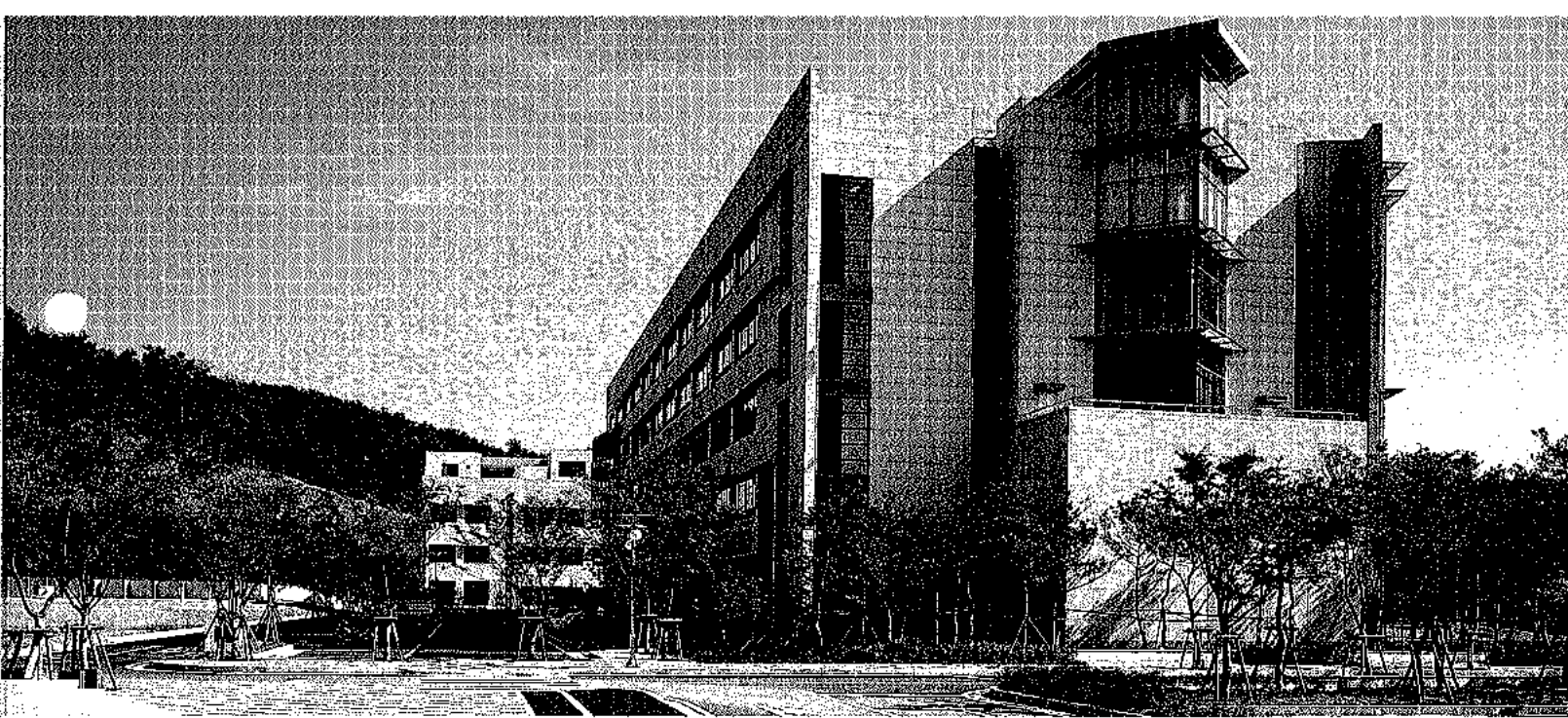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삼척리 28-1
지역지구	농림지역 / 준농림지역
연면적	25,064.08㎡
조경면적	11,784.3㎡
대지면적	78,561.99㎡
건축면적	5,917.52㎡
건폐율	7.53%
용적률	24.53%
규모	지상 : 5층, 지하 : 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일부 철골조
내부마감	바닥: 화강석물갈기, 벽: 스테인레스, V.B마감, 천장: 비닐페인트
외부마감	THK30 화강석 버너구이, THK16 컬러복층유리
설계	김형국, 박보원, 이광기, 자용운, 류창우, 김준희, 김영수, 지금순
설계기간	1998. 3. ~ 1999. 5.
공사기간	1999. 10. ~ 2002. 9.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백수성)



배치도

도로종합기술연구원은 한국도로공사 연구소로서 민간자본으로
는 투자하기 어려운 고속도로 및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으
로, 일본의 건설성 산하 토목연구소 및 도로공단 시험연구소와
미국 연방 고속도로청의 'Turner Fairbank Highway
Research Center' 와 같은 성격의 연구 내용을 갖고 있다. 그런
데 일본이나 외국의 연구소는 연구 범위를 자국에 한정하지 않
고 세계를 겨냥하는 폭넓은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내
용을 마케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우리 설계팀이 그 연구
소들을 방문하면서 가슴 깊이 느끼고 돌아왔다. 앞으로 북한 지
역이나 만주를 포함한 중국, 러시아 등 우리나라로부터 연결될
도로에 대한 연구가 우리가 아닌 미국, 일본에서 수행되고 있다
고 느낌이었던 것이다. 한국 도로공사의 내부에서도 이러한 위
기감으로 97년 경제 환란의 어려운 시절에도 본 연구소를 건설
하고자 결정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소는 세계 각국의 연구소와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고 수많은 외국인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방문하
게 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연구소의 대지는 경부고속도로 기흥
I.C에서 오산 I.C로 가는 중에 좌측 산악지대가 펼쳐져 있는 초
엽의 나즈막한 야산 뒤쪽에 펼쳐져 있다. 전체 대지 면적이 약
58,000평이며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고 부분 부분 동산과 언덕
으로 가려져 있어서 진입하면서 위치에 따라 다른 인상을 제공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건물이 준공된 시점에서 현장에
서의 느낌은 생각만큼 극적인 장면이 펼쳐지지는 않았다. 다만
살내로 들어서서 남쪽의 드넓게 펼쳐진 계곡과 들판을 보면서
기대 이상의 좋은 전망을 느낄 수 있었다. 대지에서의 절, 성토
공사과정에서 봉우리와 언덕이 많이 낮아지고 평평해졌기 때문
에 진입과정에서의 시각효과는 미약해진 반면 연구소와 상부 층
에서는 외부에서 볼 수 없었던 먼 조망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전면 외벽은 Double-Skin System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은 물론 천장에서 바닥까지 창이 내려오고 컨벡터를 천장 속에 들으로써 넓게 펼쳐진 조망이 이용자들에게 큰 매력일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올해 초에 준공한 미래산업첨단연구소에서도 Double-Skin을 적용하였고 이것의 열적효과에 대한 계측 및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도로연구소가 준공됨으로써 Double-Skin System의 보다 다양한 양상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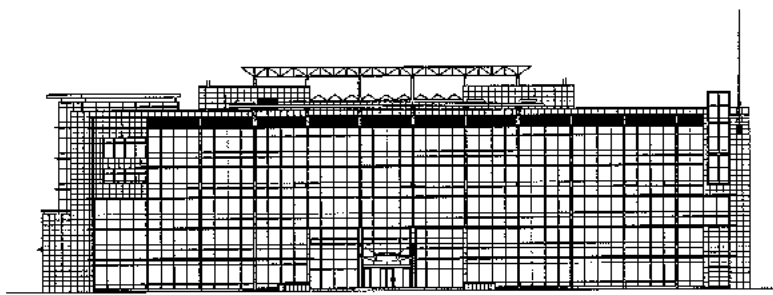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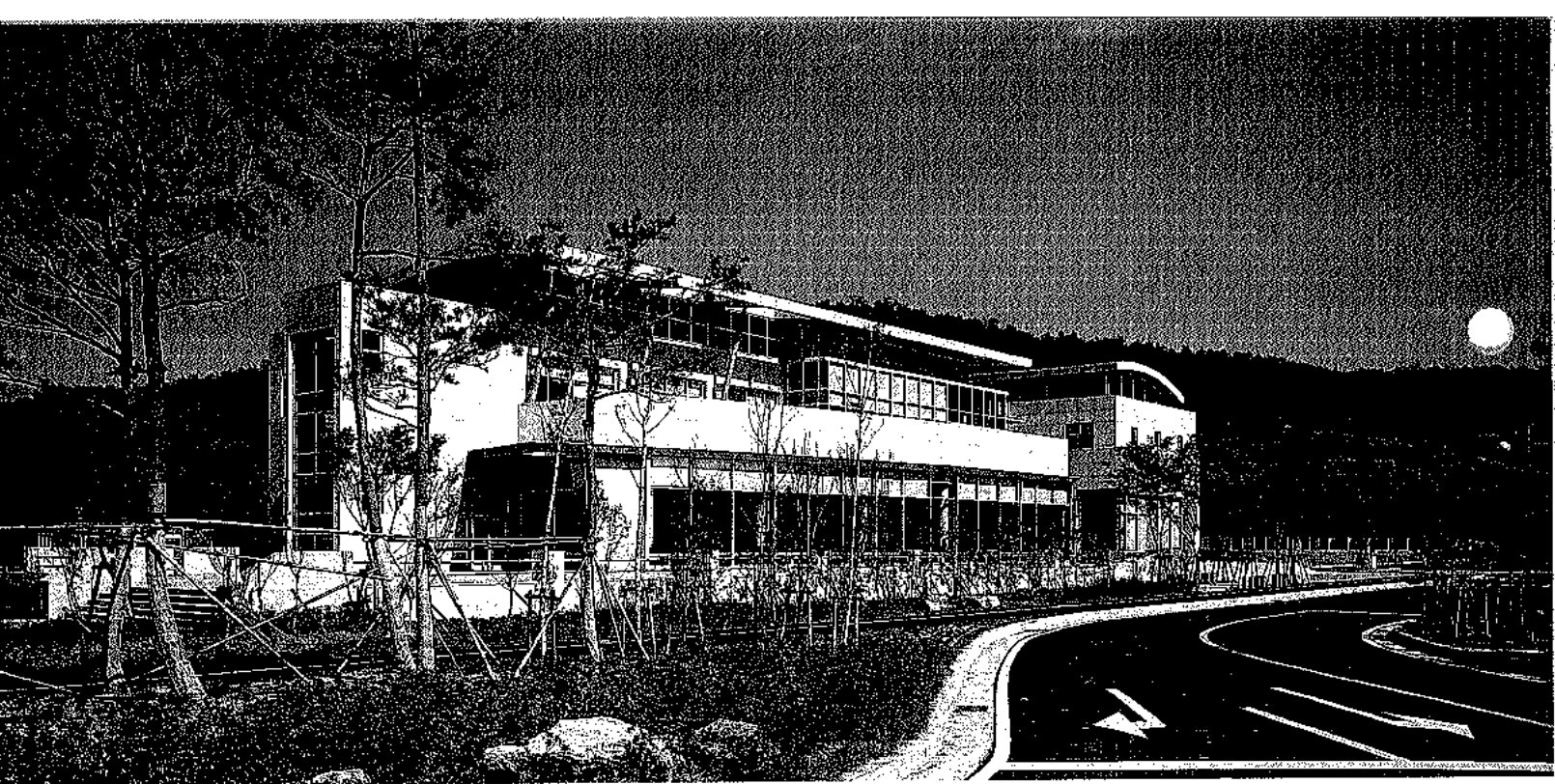
연구소동의 평면구성은 중앙에 코어가 있고 양쪽으로 연구실이 배치되는 3-bay로 구성되었고, 가운데 bay의 중앙은 5층까지 열려있는 아트리움이 있다. 진행 중 당초 계획보다 open공간이 작아진 것이 아트리움의 공간적 비례로 볼 때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다. 중간 bay의 양끝은 연구원들에게 답답함을 해소하는 휘트니스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원들은 거의 같은 거리에 휴게공간을 갖게 된 것이다. Double-Skin에서 전면의 커튼월과 그 뒤쪽의 창틀이 실루엣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열에너지적 측면과 시선에 대한 배려를 고려한 것이며, 또

한 형태적으로 혁신적인 느낌과 기하학적인 정갈한 느낌을 갖게 한다. 좌측면의 삼각형 평면의 휴게공간의 창은 진입부의 상징적인 성격을 갖게 하고, 정면 우측의 계단실 돌출은 긴 수평적 정면의 지루함을 감소시키면서 상승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려 하였다. 또한 이들은 내부에서 외부로의 예기치 않은 View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로도 구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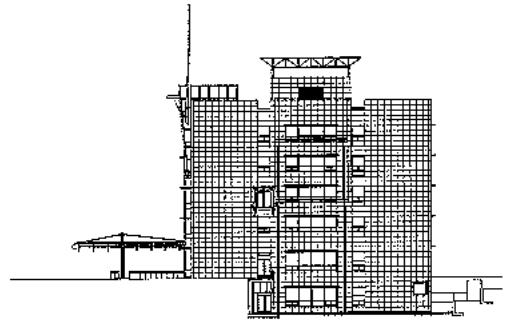
후생동은 당초의 설계에서 기능이 상당히 변화되며 결과적으로 의도와는 다른 공간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1층의 식당은 2층까지 뚫린 높은 천장으로 계획하였지만 단층으로 낮아졌으며, 2층의 휴게기능은 업무공간으로 바뀌었다. 다행히 전면의 연속된 폭면창으로 내다보이는 외부공간은 시원한 느낌이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관계자들이 보여준 이 건물에 대한 애착과 진지한 태도에 대해 설계자로서 많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발주처 관계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어려운 디테일들이 해결 되었고 이는 건물을 풍부한 표정으로 살아남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글/김희옥>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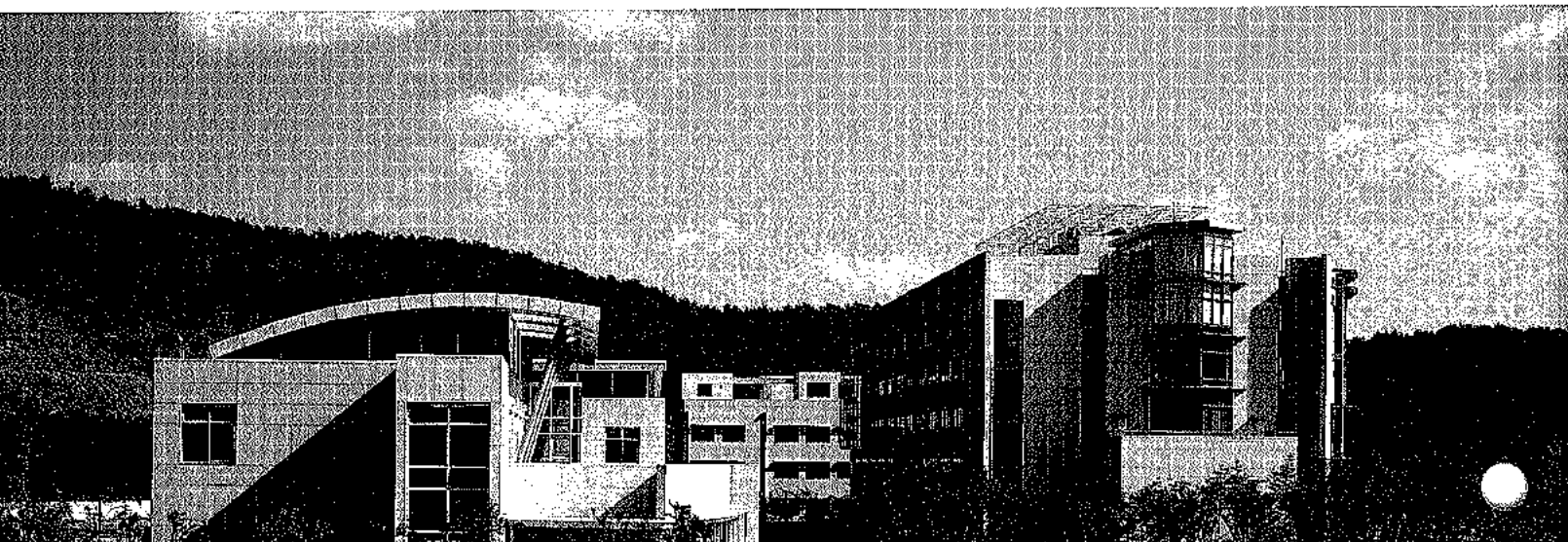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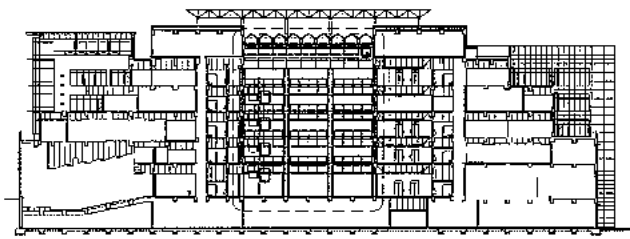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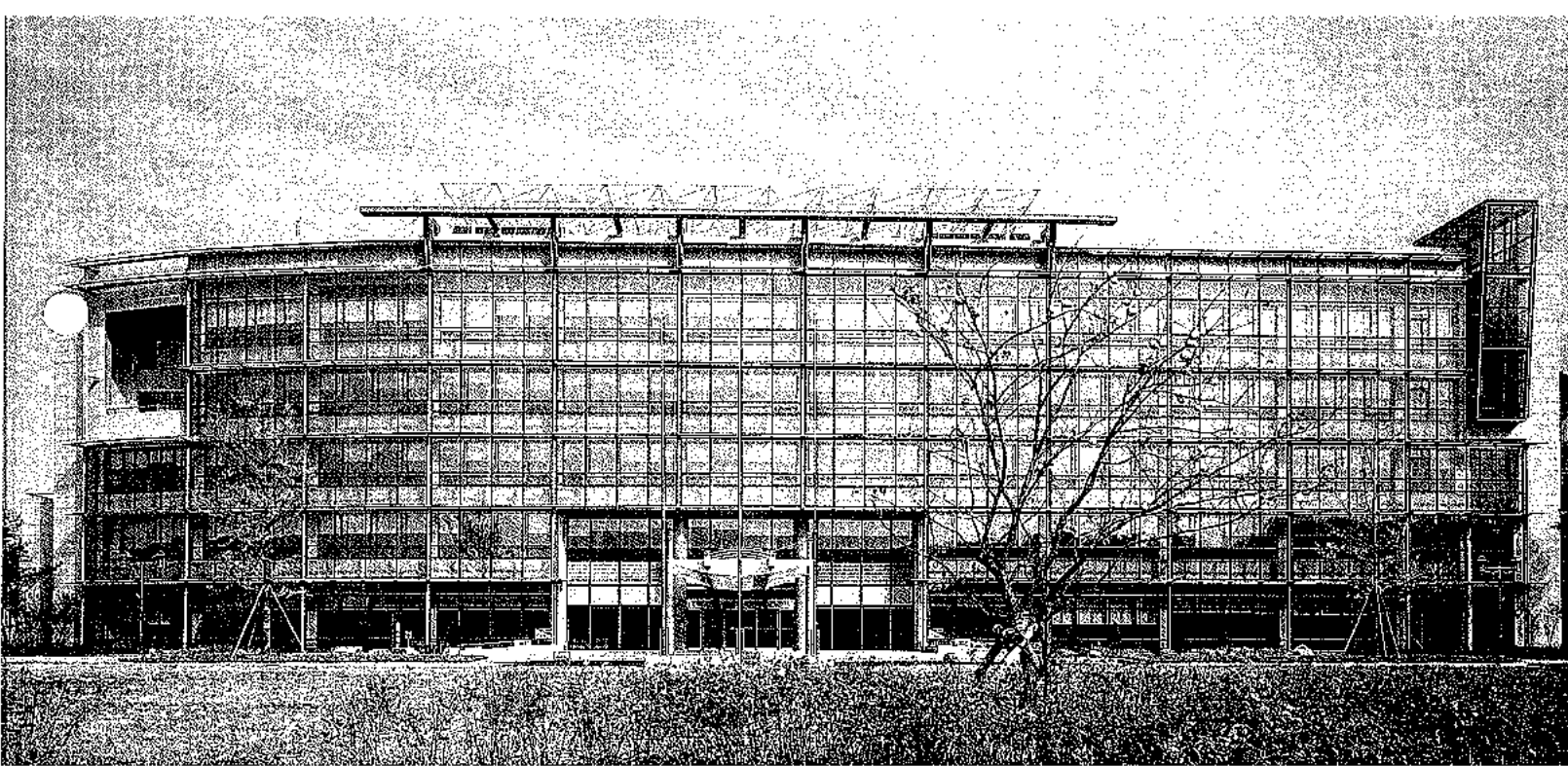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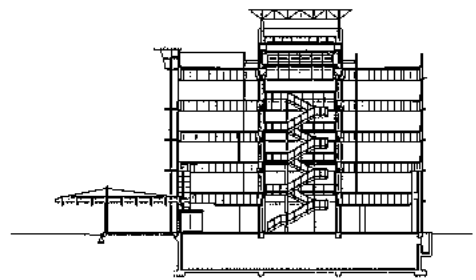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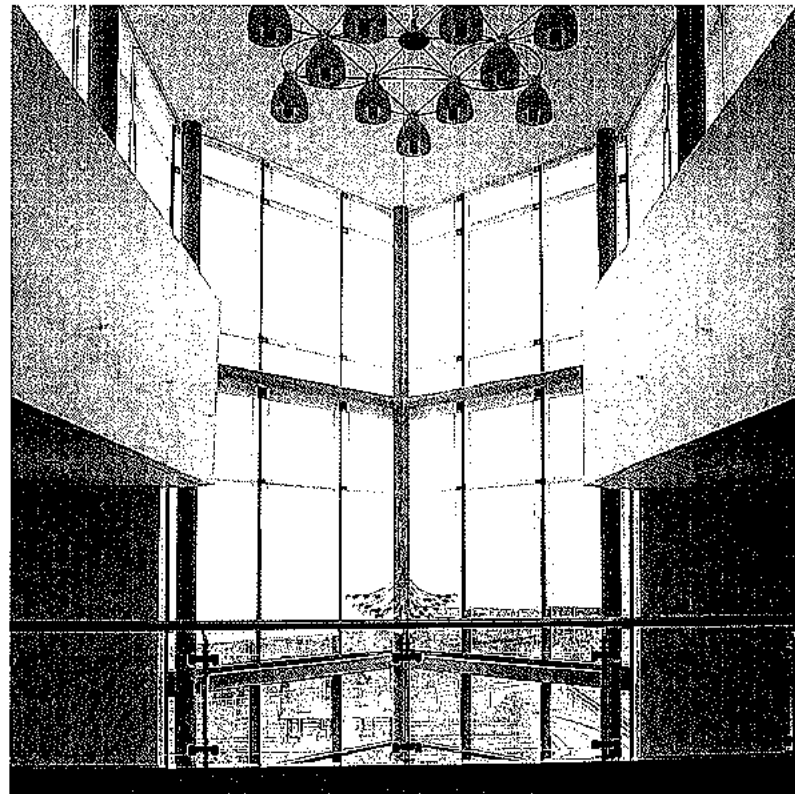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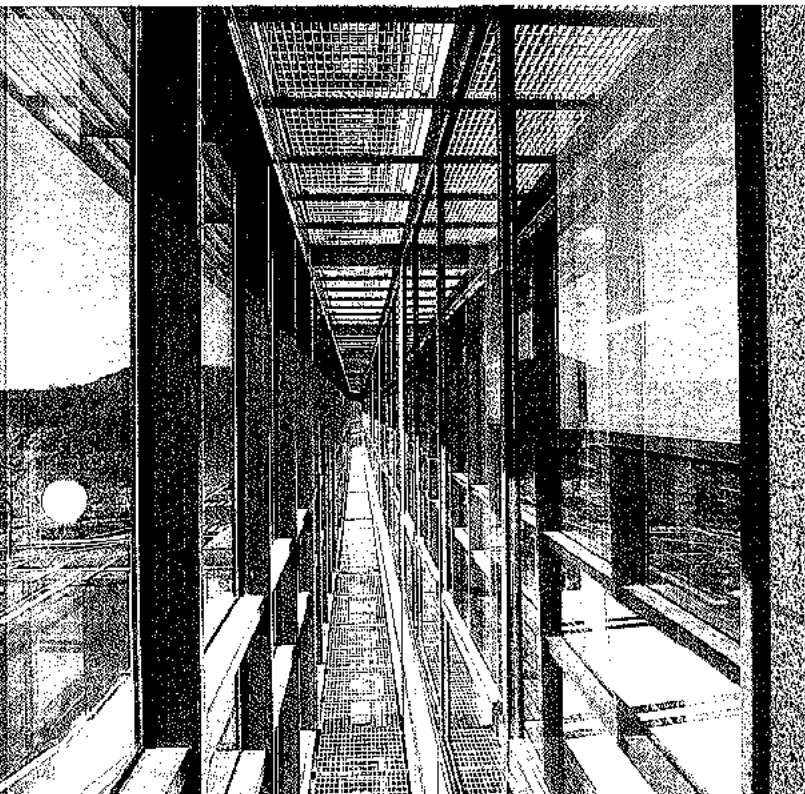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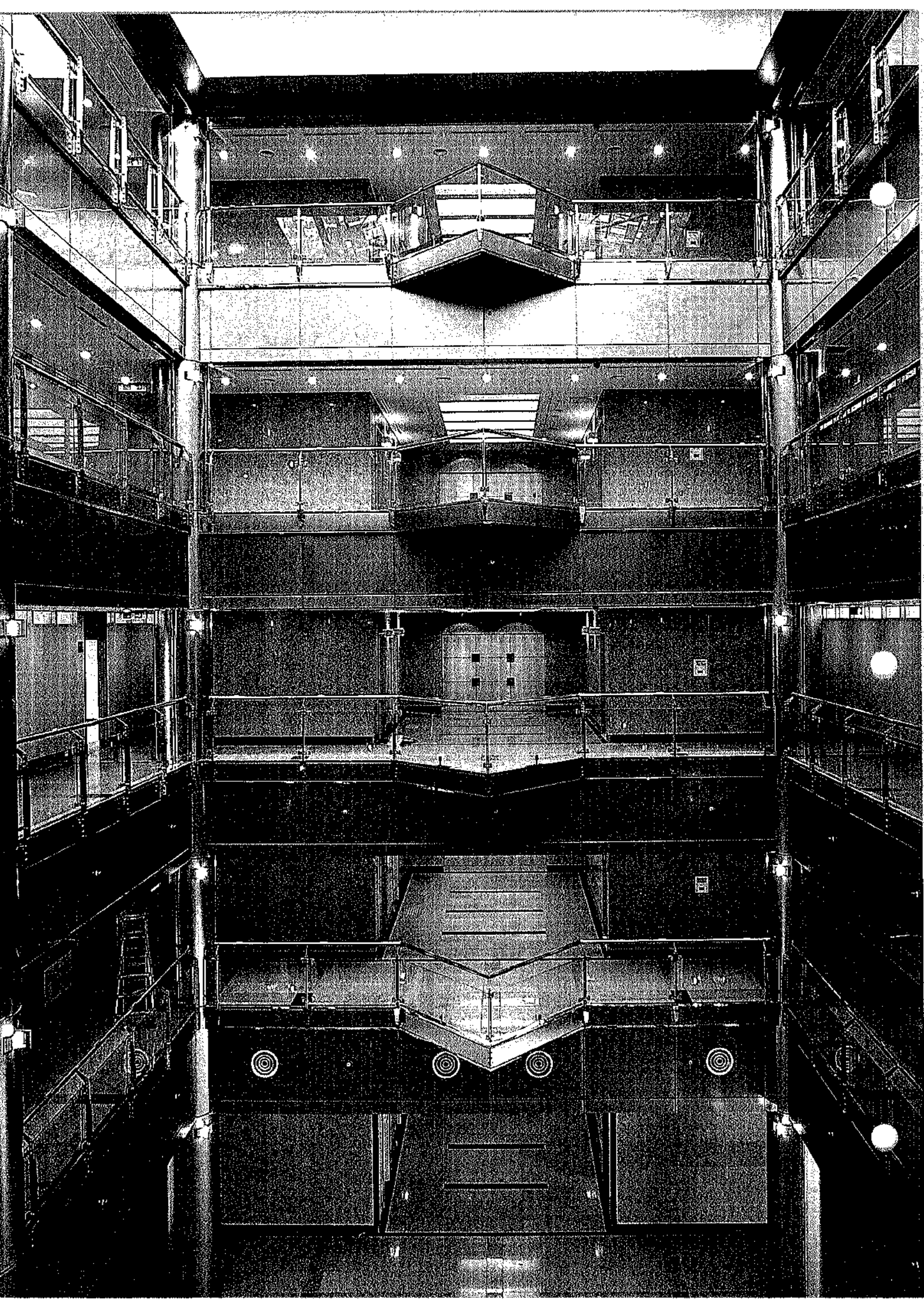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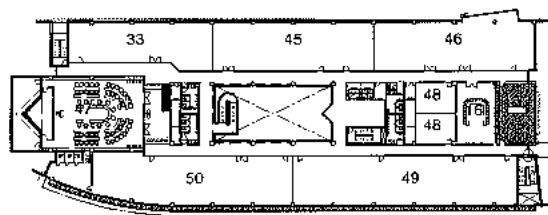
청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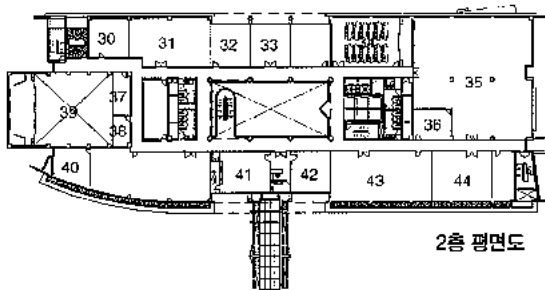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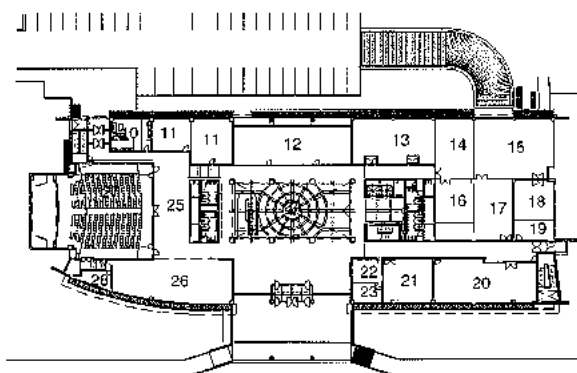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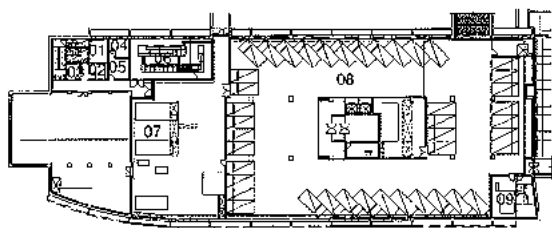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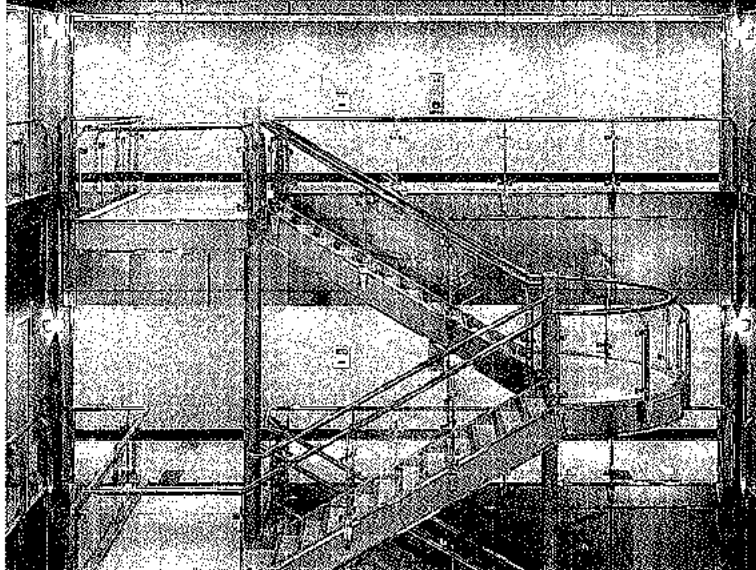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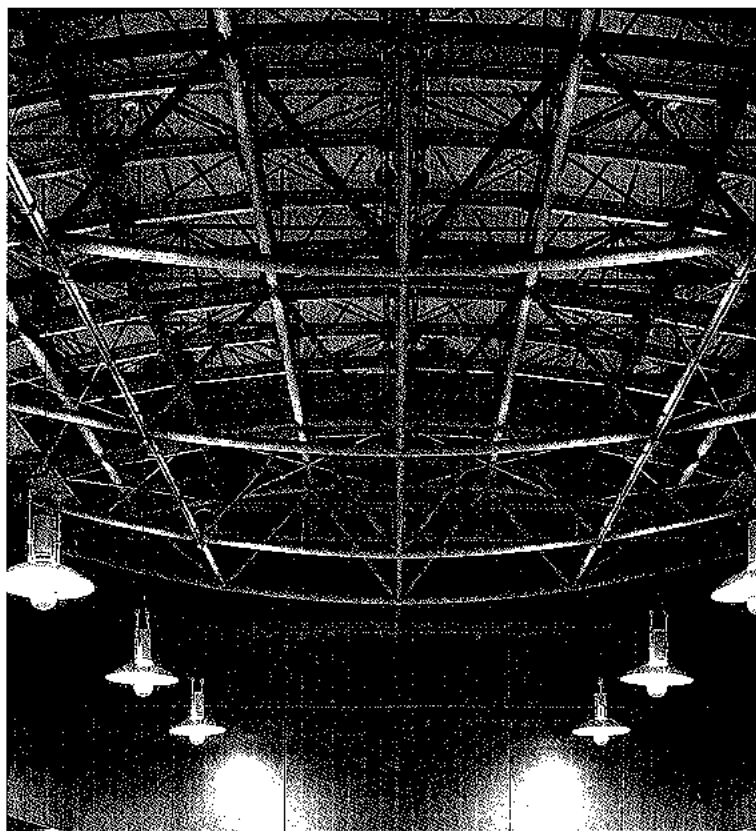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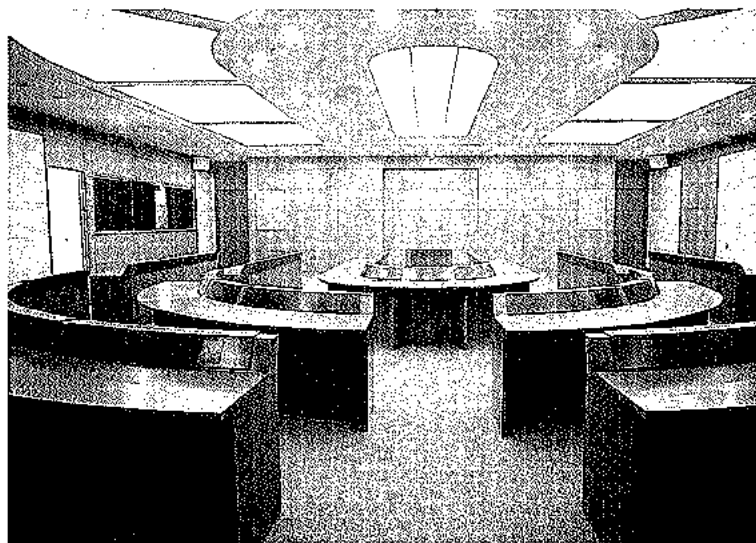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 | | | | |
|------------|------------|---------------|-----------|
| 01_ 샤워실 | 14_ 개별실 | 27_ 대강당 | 40_ 자료보관실 |
| 02_ 탈의실 | 15_ 정보시스템실 | 28_ 대기실 | 41_ 소장실 |
| 03_ 창고 | 16_ 소회의실 | 29_ 발코니 | 42_ 실장실 |
| 04_ 숙소 | 17_ 운양실 | 30_ 도로포장유지관리실 | 43_ 지반연구실 |
| 05_ 근무자실 | 18_ 원운항습실 | 31_ 참담보유실 | 44_ 경영연구실 |
| 06_ 전기실 | 19_ 보관실 | 32_ 피강실 | 45_ 교통연구실 |
| 07_ 기계실 | 20_ 재료시험부 | 33_ 연구실 | 46_ 지반연구실 |
| 08_ 주차장 | 21_ 건람부 | 34_ 중회의실 | 47_ 세미나실 |
| 09_ 약제실 | 22_ 당직실 | 35_ 자료실 | 48_ 개발실 |
| 10_ 휴게실 | 23_ 숙직실 | 36_ 영상자료실 | 49_ 구조연구실 |
| 11_ 사무실 | 24_ 로비 | 37_ 영상실 | 50_ 포장연구실 |
| 12_ 시뮬레이션실 | 25_ 강당홀 | 38_ 방송실 | 51_ 회의준비실 |
| 13_ 경전승실 | 26_ 전시실 | 39_ 세미나실 상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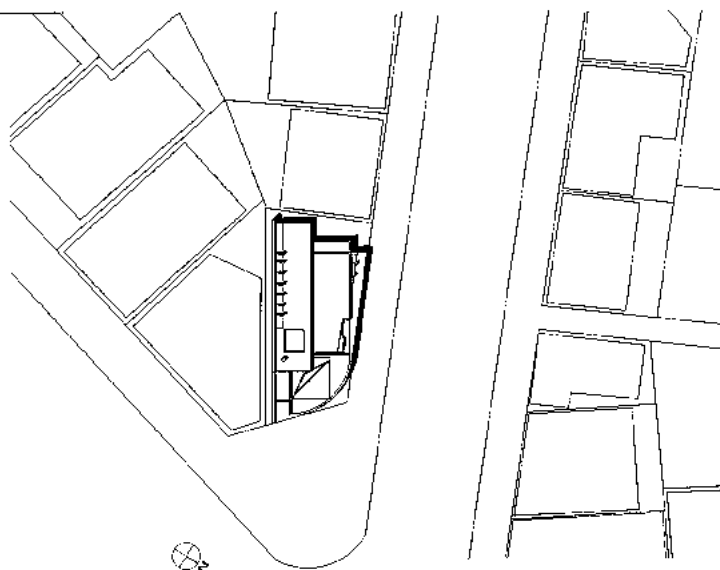


산수동 K빌딩 Sansudong K Building

한진수 / 건축사사무소 토방
Designed by Han Jin-Su

건축개요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산수동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미관지구
대지면적	127.30㎡
건축면적	87.66㎡
연 면 적	426.25㎡
규 모	지상 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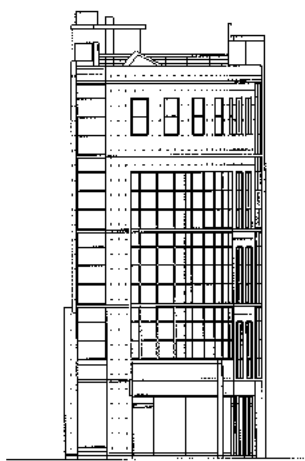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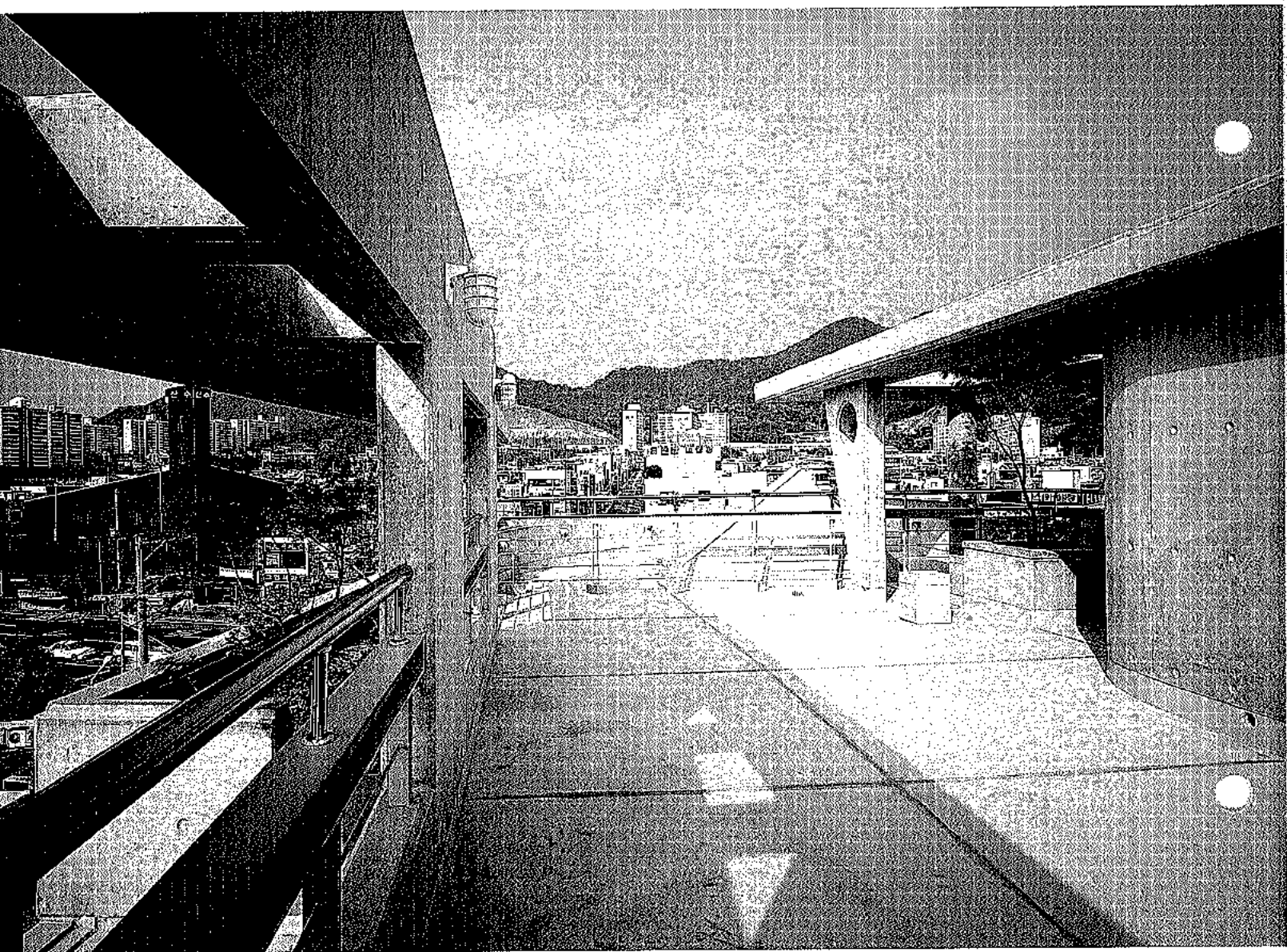
대지는 광장을 향해 좁고 긴 대지 형상을 가지고 있어 인도 모서리 부분의 가로 유휴지와 다소 개방된 공간을 진입부로 결정하게 되고, 정면이 좁은 대지는 계단을 일직선상에 두어 자연스런 흐름을 유도하였으며, 상층부에 오르면서 후면코어를 형성하였다.

2,3층에 위치한 치과의원은 기능의 유기적 연결을 위해 내부에 별도의 수직동선을 연결하고, 층간 공간의 시각적 연결을 위해 2층 상부를 VOID시켰으나, 인테리어 과정에서 채워져버려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옥상의 쉼터에서 바라다 보이는 자연풍경과 도시 풍경은 휴게공간의 풍요로움을 더해주고 있으며, 심미적 여유로 인한 감흥을 느끼게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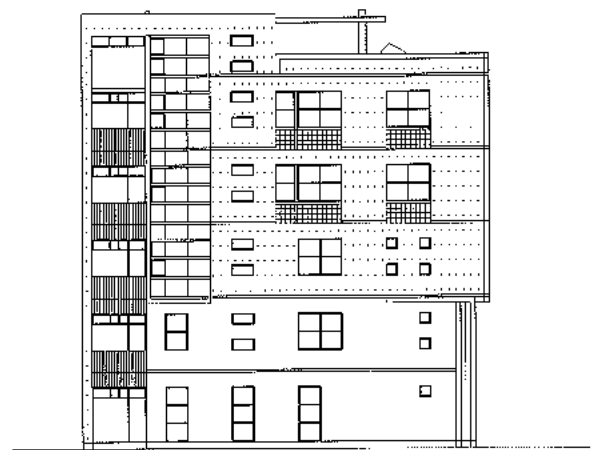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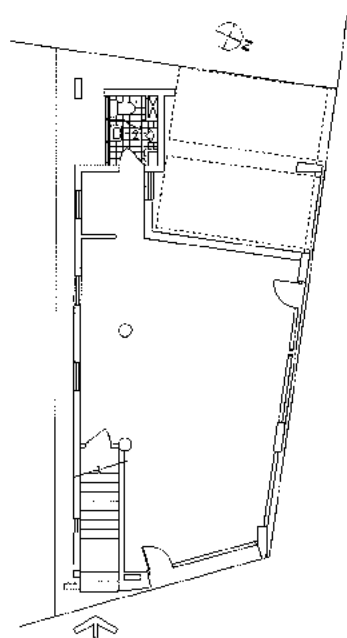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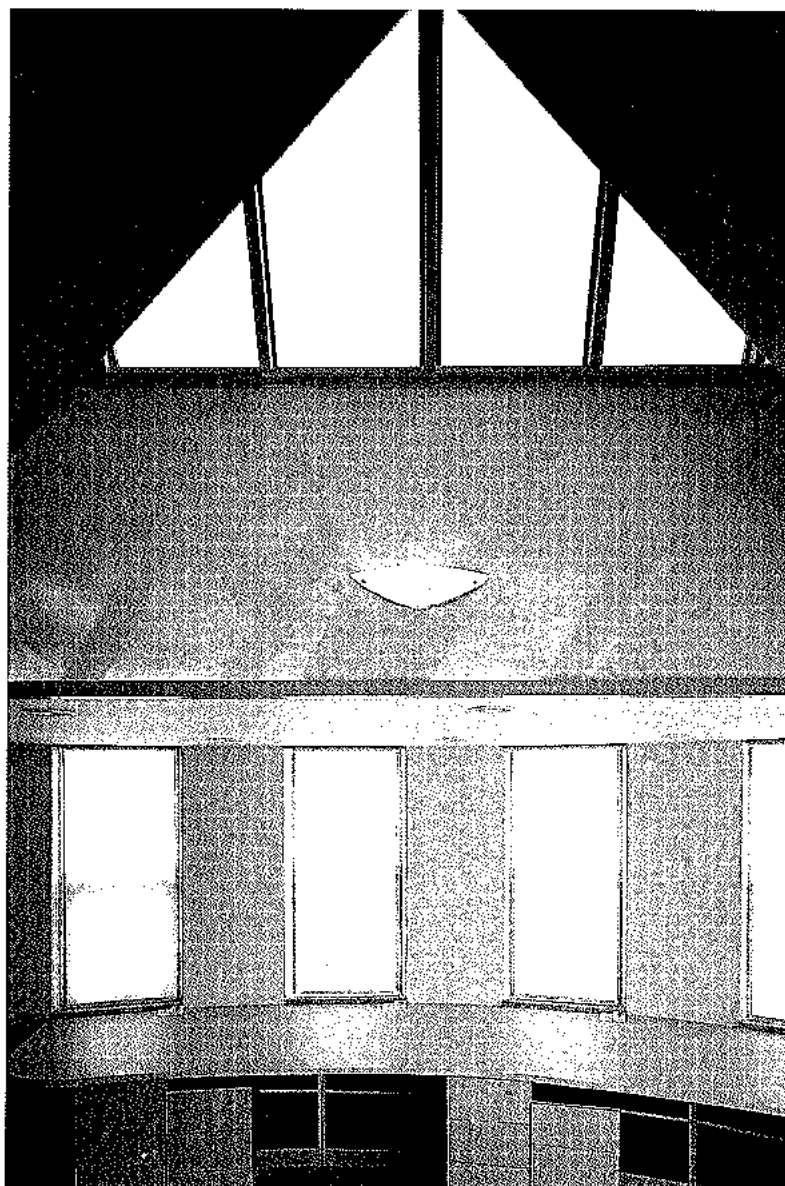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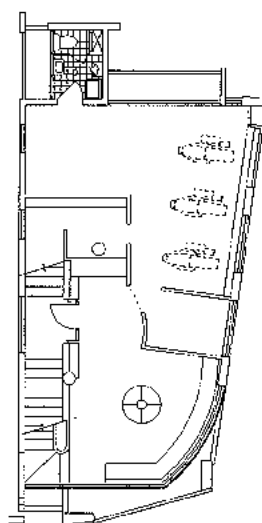


0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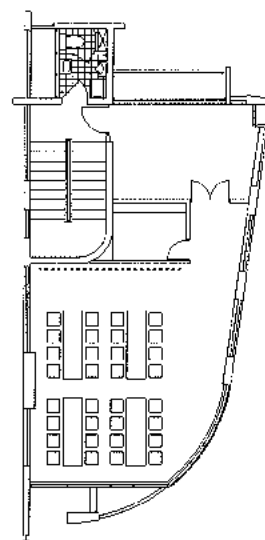
좌측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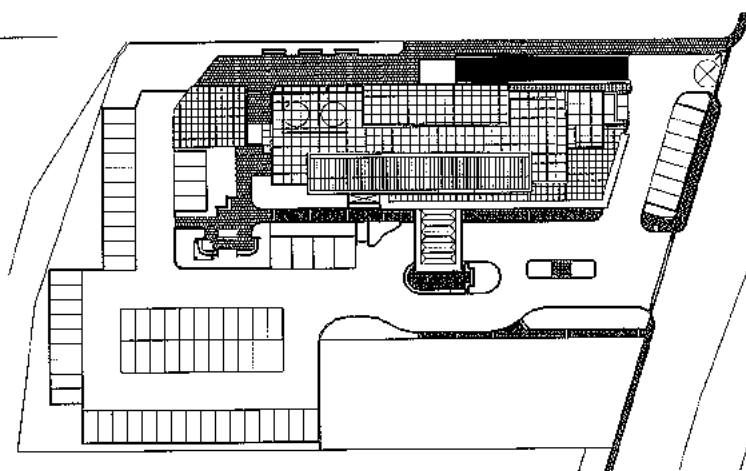
0 1 3

김포우리병원 Kimpo Uri Hospital

박홍균 / 호서대학교 + 강영옥 · 최익현 / (주)PCK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ang Young-Ok, Choi Ick-Hyun & Park Hung-Kyun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김포시 길포동 389-15번지의
지역지구	생산녹지지역
대지면적	5,284㎡
건축면적	1,049㎡
연면적	9,751㎡
건폐율	19.86%
용적률	123.9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10층
외부마감	알루미늄 복합패널, THK18 착색복층유리
설계담당	고철웅, 김대진, 백 훈, 김일수
감리담당	현신건축
구조설계	창민우 구조건설턴트
전기설계	하나기연
기계설계	하나기연
시공	오구건설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이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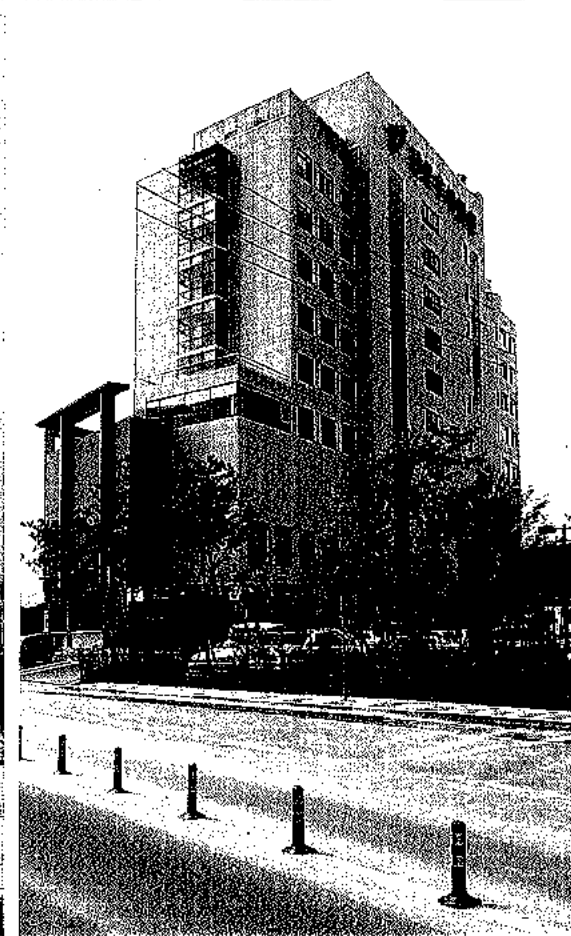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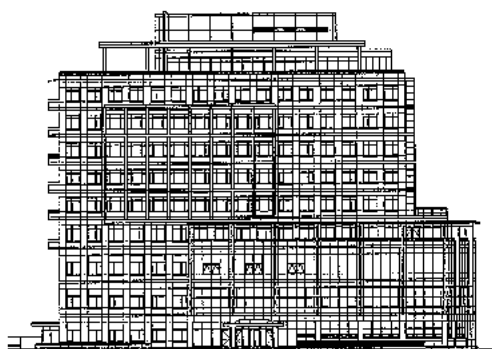
3년 전 봄날 부천에서 100병상 규모의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주로부터 김포에 2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신축을 위하여 지명 현상설계로 건축가를 선정코자 하는데, 이에 참여 의사를 묻는 연락을 받았다. 건축주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김포지역에 병원을 세워 진료하는 일을 의사로서 사회 봉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왔고, 그에 합당한 병원을 건축하고자 하였다.

건축주는 이미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건축을 직접 관여하면서 가졌던 많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설계의 중요성을 익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계획 원론적인 지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무에서 겪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스페이스 프로그램(Space Program)을 가지고 있는 터라 건축가로서 만날 수 있는 이상적인 건축주였다. 그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필자가 만난 어느 건축주보다 현실적이었으며, 그를 통하여 병원 건축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너무도 여유를 허락하지 않은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 공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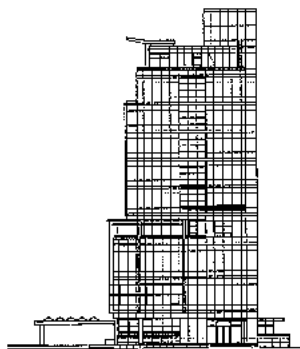
설로서의 기능에 합당한 내부 공간의 필요로움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아쉬웠다. 병원에서 환자는 능력 있는 의사와 좋은 시설에 의해 치료되는 것이지만, 간접적으로 건축가가 환자들의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들에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장치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부지 주변에 에워싸여진 넓은 논 경작지의 풍경과 인근의 공원부지 및 멀리 보이는 한강이 계절마다 풍요롭게 변하는 모습을 조망할 수 있도록 건물을 배치하여 그 아쉬움을 보완하였다.

도심에 비해서는 비교적 넓은 부지였지만 건폐율이 20%인 생산녹지지역이었으므로 포디움 부분의 건축 가능 면적을 최대한 사용하여도 원하는 기능을 배치하기에는 협소하였으므로 외래 진료 및 중양진료의 기능을 배치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스페이스 프로그램 중 6인실과 8인실의 요구는 병실의 모듈을 정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도록 하였는데, 오히려 8인실의 모듈을 적극적으로 건축 매싱(Massing)에 돌출되게 표현함으로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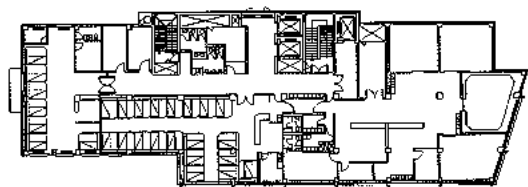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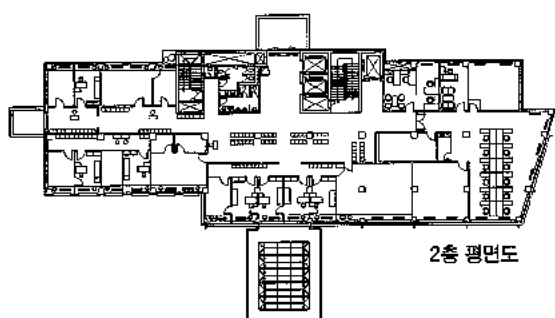


써 결과적으로는 김포우리병원의 변화 있는 입면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한 건축 설계 요구조건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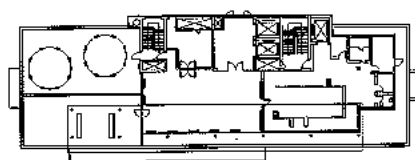
부족한 휴식공간의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자 옥상에 식당 및 옥상정원을 계획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멀리 한강까지 시원스레 조망할 수 있게 계획하였다. 식당 지붕의 넉넉한 캐노피는 멀리 한강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해가림을 만들어주고, 건물 자체로서는 표정 있는 얼굴을 가지게 하였다. 공사 중에 병원장 부인이 4층의 데크 부분 중에서 조망이 가장 좋은 부분에 병원의 티 룸(Tea Room)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자그마한 티 룸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병원에서 모든 이들이 가장 많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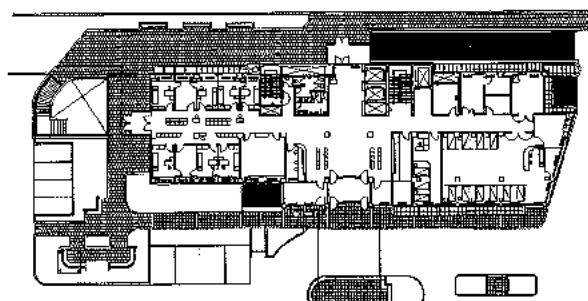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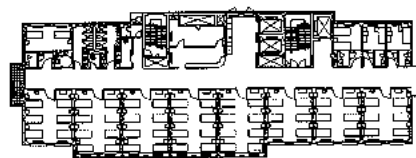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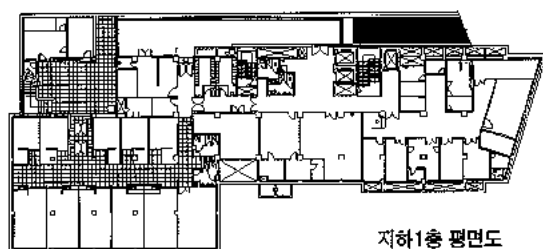
10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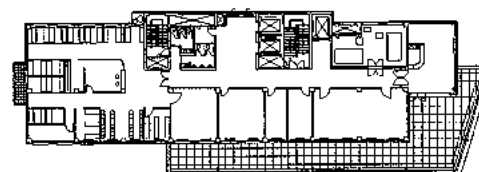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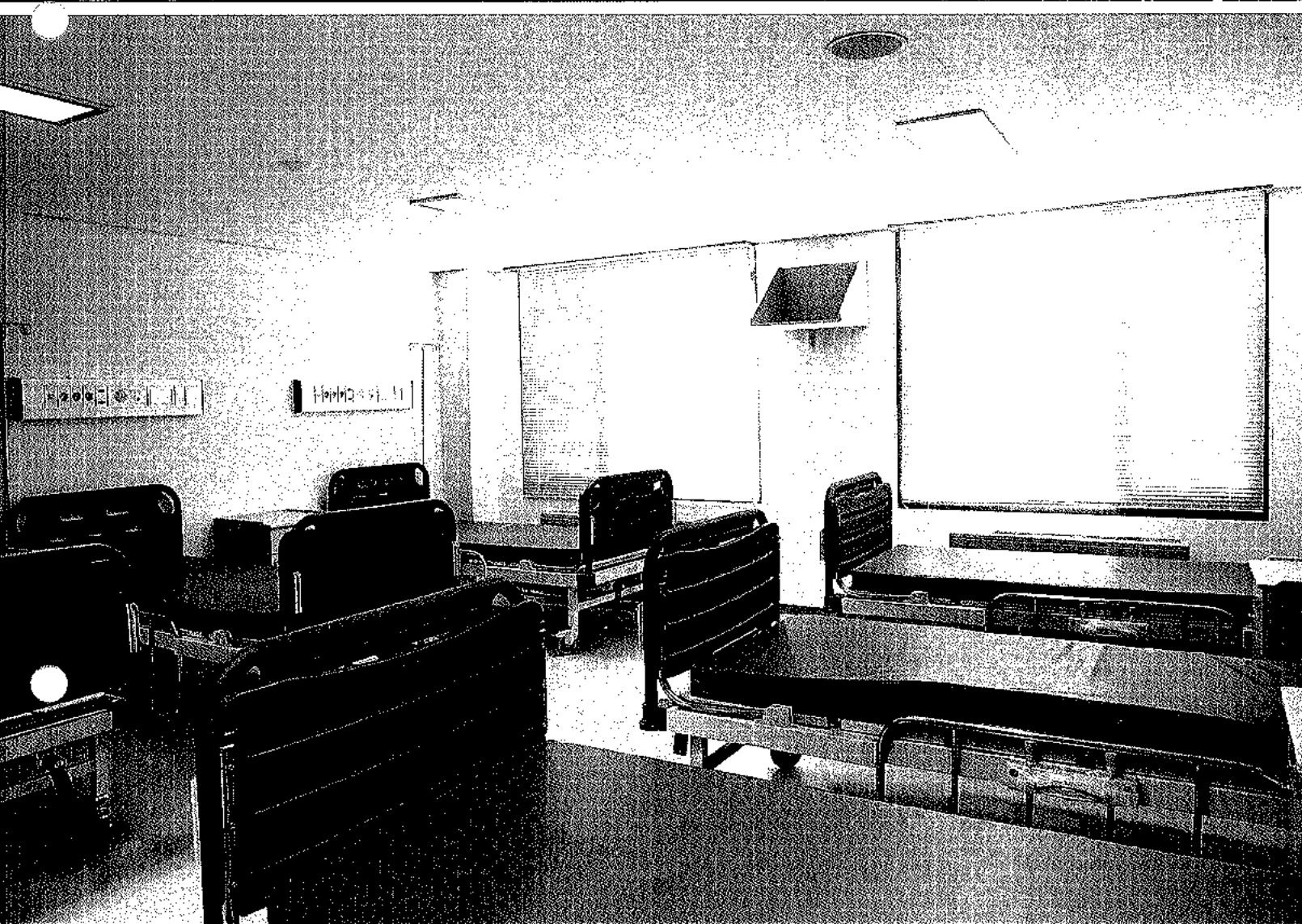
7. 8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4층 평면도



수원복합빌딩 Suwon Complex Building

박성하 / (주)한길종합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
Designed by Park Seong-Ha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89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미관지구(3종, 5종), 항공고도제한구역
대지면적	51,520.90㎡
건축면적	26,914.75㎡
건 폐 율	52.24%
연 면 적	92,300.98㎡
용 적 륜	121.73%
구 조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6층
주요용도	운수시설, 판매시설, 근생시설, 집회 및 문화시설, 주차시설
주차대수	1,356 대
조경면적	10,582.79㎡
설계총괄	박남균, 이창룡, 박우정
설계담당	김명현, 정대진
건축주	(주)대우건설, (주)신세계
시공자	(주)대우건설, 산세계건설(주)
준공일	2001. 10. 30
외부마감	터미널동 - THK30 칼라아연도강판 판매시설동 - 스테인레스 지점금속판넬 합인점동 - 지정석 ALC 패널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수원복합(터미널)빌딩 건설은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상업 및 문화시설을 갖춘 대규모 시설을 부도상에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심교통난의 완화, 지역간 교통의 원활한 연결을 도모하고, 문화·업무·판매시설의 유기적 결합으로 도심-부도상-지역간의 기능적 역할에 충실하며, 시민의 건전한 문화휴식처 및 지역의 연결매개공간으로서 창조적이고 활동적인 장소로 활용함에 그 목적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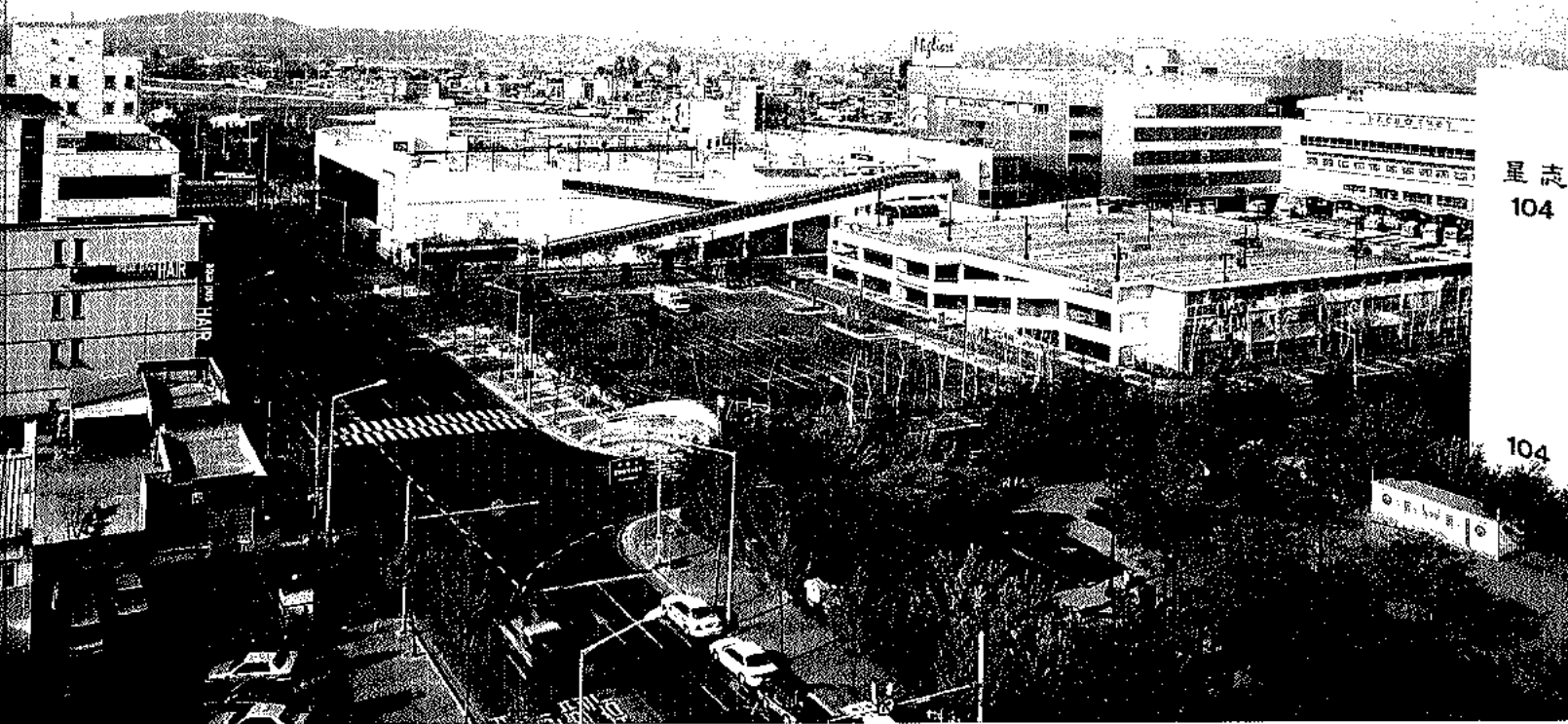
계획의 방향

- 수용규모 50,000인 기준의 터미널시설과 대형판매시설의 복합계획시설로 각 시설군의 건축적 기능과 도시적 기능의 유기적 결합

- 용도의 특성 및 도시 CONTEXT를 고려한 배치계획
- 도로확폭, 용도별 차량진출입 및 보행자동선의 원활한 분리
- 기존 도시축에 따른 배치축의 형성
- 도로축과 교차축을 이용한 매스 상징
- 각 시설별 개방적 외부공간과 물의 성격을 가진 내부공간의 유기적 결합
- 복층 아파트단지의 조망권 확보를 고려
- 저층의 스카이라인 형성
- 주차장의 대규모 외부공간을 확보
- 광장
- 도로가 교차하는 코너부에 광장을 설치
- 무대 등의 공연시설을 통한 적극적인 체험외부공간 연출
- 수원성과 고속버스의 이미지를 도입한 외부공간 및 조형
- 시민편의를 고려한 공개공지 및 가로공원
- 복지개념의 내외부공간 - 장애인편의시설, 자전거보관소, 쾌적한 화장실 등
- 터미널 기본시설과 편의시설을 1,2층에 집중배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도모
- 주출입구 - 서측의 1번 국도쪽에 설치, 최적의 접근성을 도모
- 2층 브릿지를 통한 각 시설별 유기적 연계

입면계획

- 터미널
 - 수원시의 상징인 수원성의 이미지와 버스의 조형적 이미지를 적극도입하여 지역의 Landmark 및 Identity 부여
 - 승차장과 하차장 캐노피에 철골조와 유리를 사용, 가볍고 경쾌한 느낌부여
 - 저층부 유리 커튼월 처리 : 대합실의 조망 및 개방성 확보
 - 휴게대합실을 사선의 원형공간으로 처리, 다이내믹한 공간 연출
- 판매시설
 - 메탈릭한 고풍택의 금속패널을 사용, 강렬한 시각적 인지성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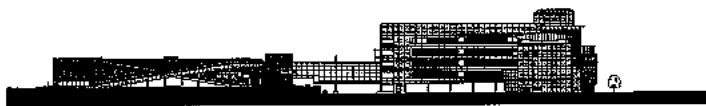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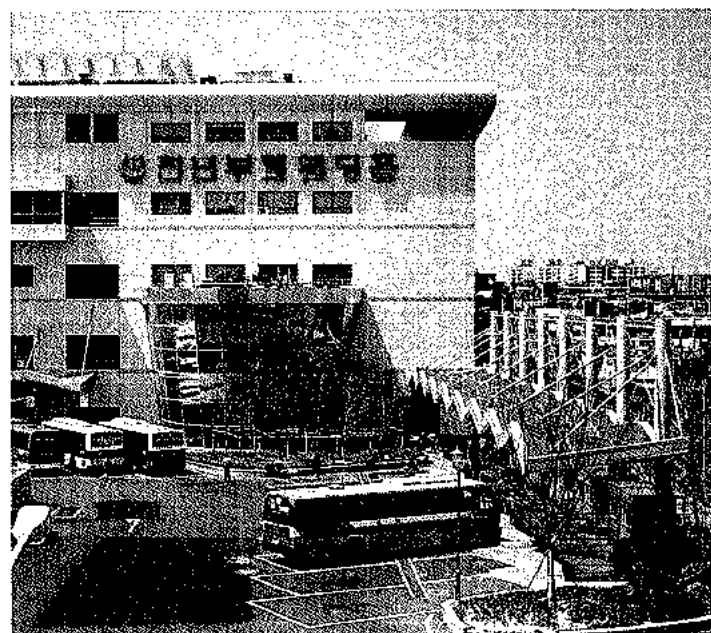
- 인공조명을 주로하는 판매시설 특성 및 광고판 부착으로 인한 장면적 최소화
- 엘리베이터 코어의 내부동선을 노출, 주벽면의 불투명성을 투명성 재료사용으로 상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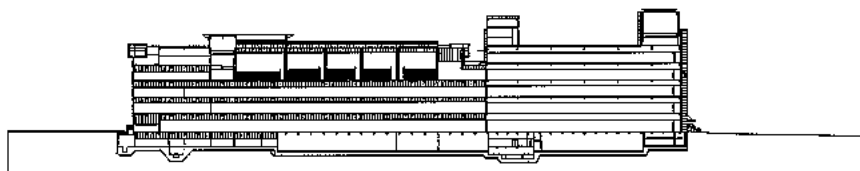
■ 할 인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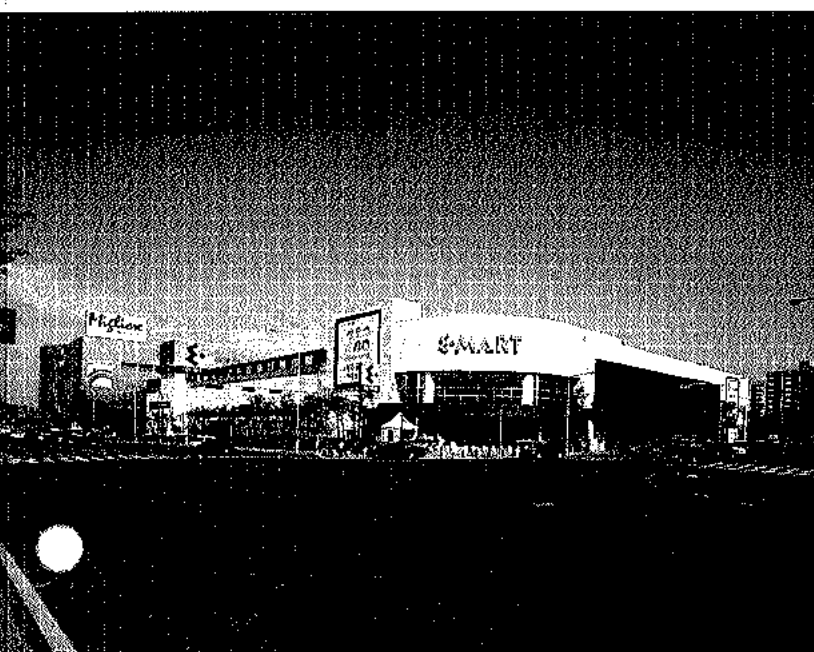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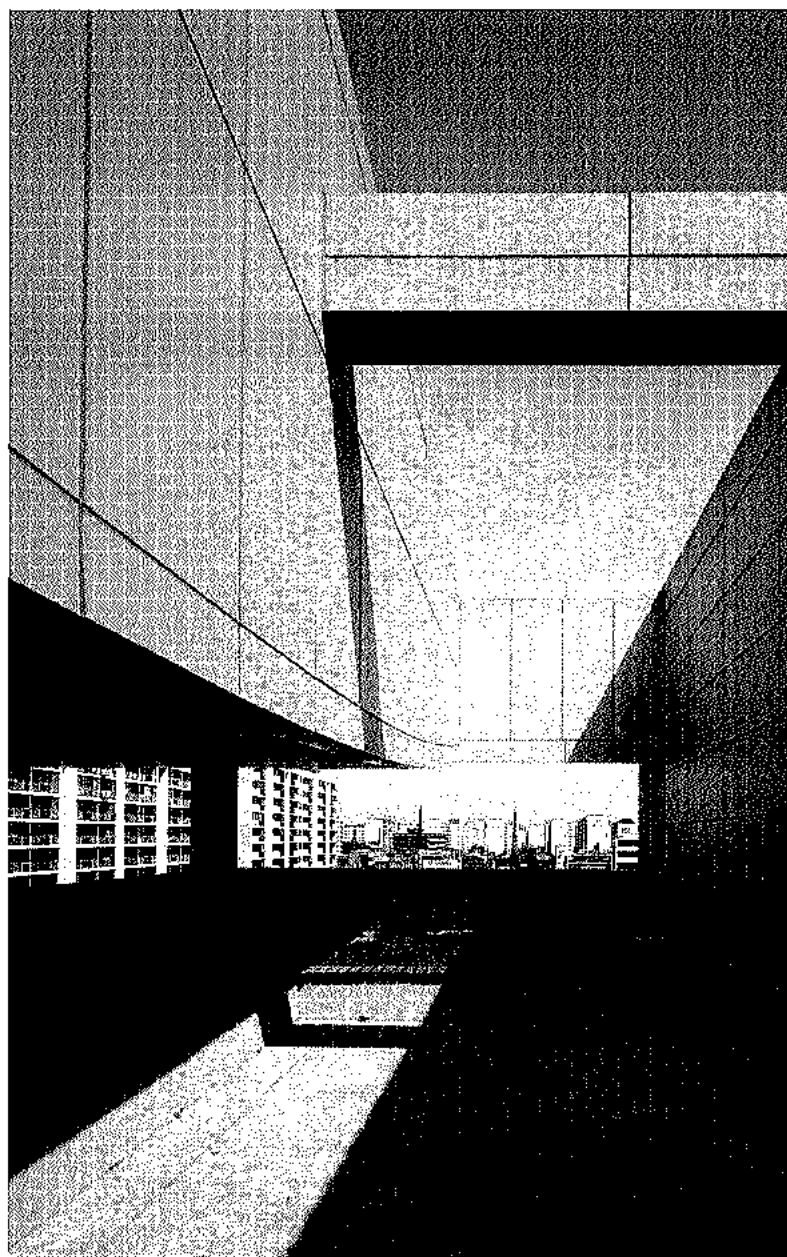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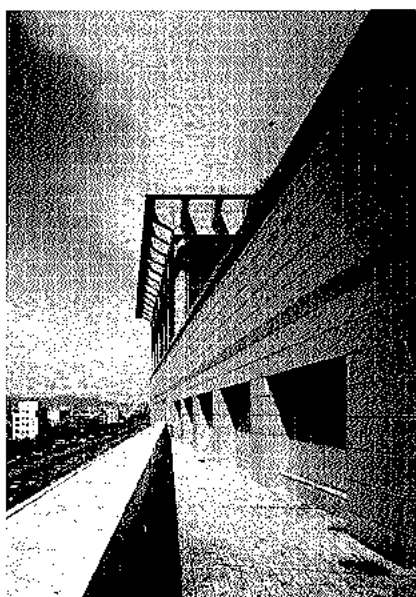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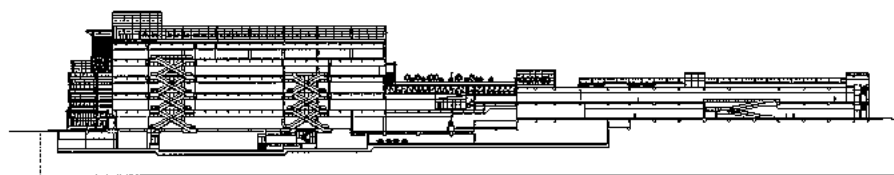
- 무빙워크벽면을 유리커튼월로 처리하여 내부공간의 활력을 외부로 전달
- 주진입부의 VOID처리에 의한 천장고 확보가 주는 진입시 개방감을 벽면의 유리커튼월로 배가시킴
- ALC 특유의 재료적 질감으로 인한 부담없는 벽면처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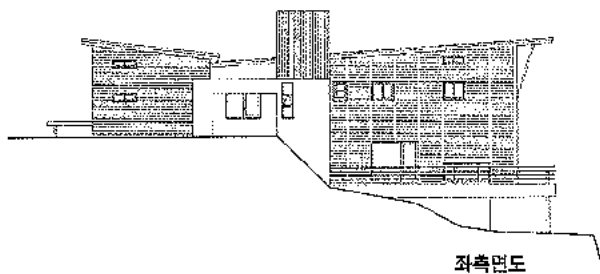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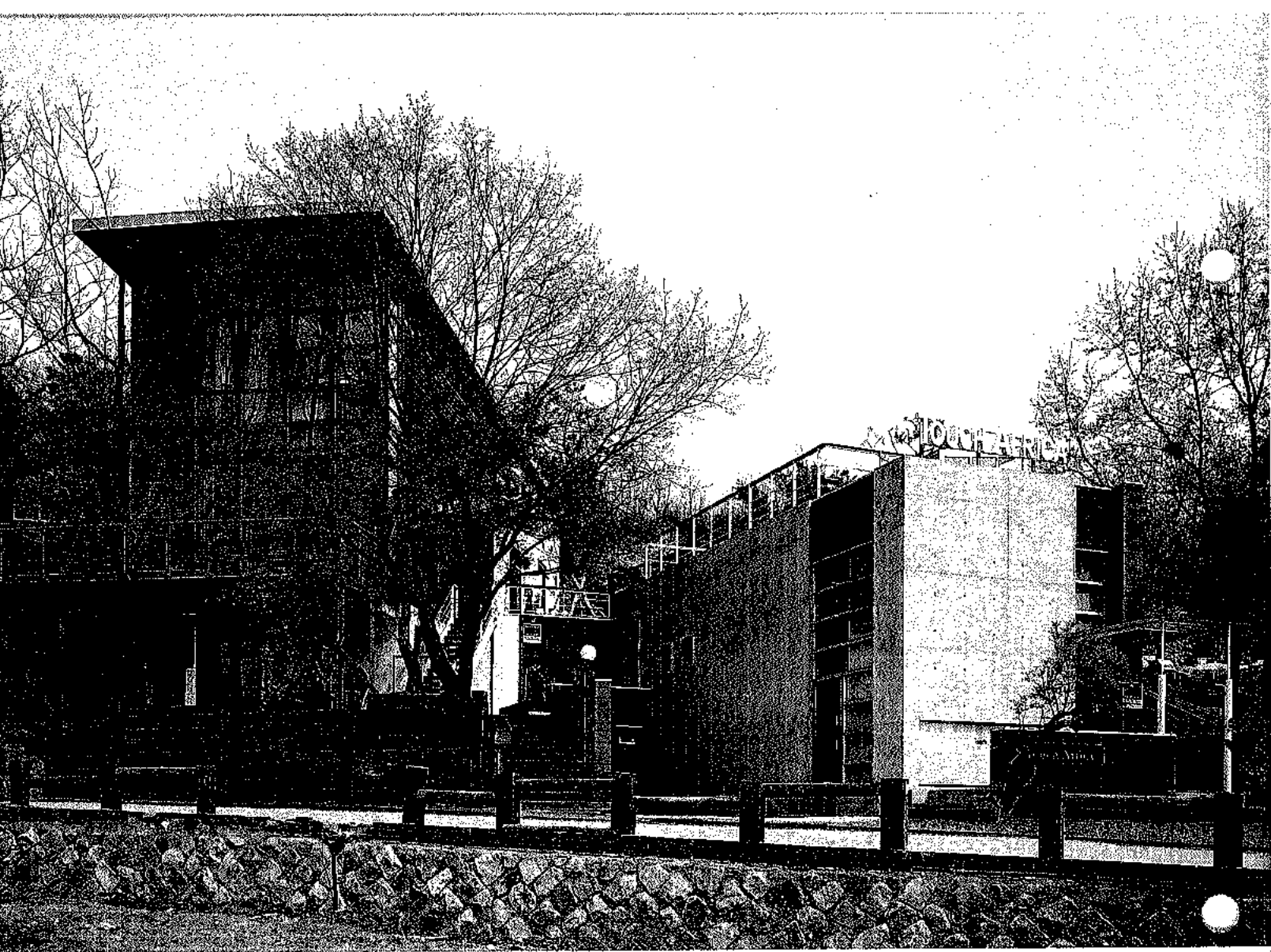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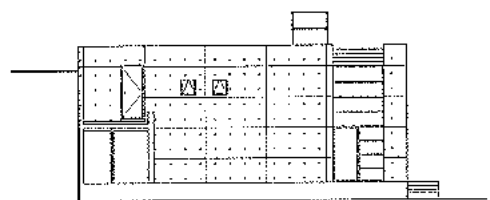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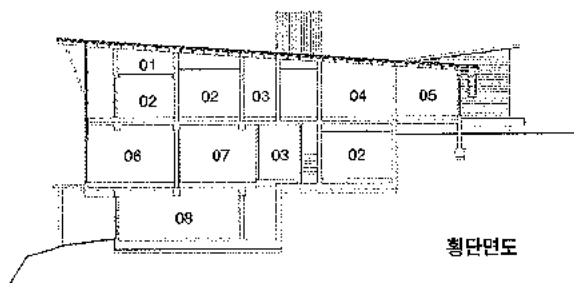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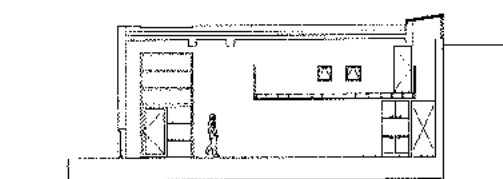


화랑 좌측면도

- | | |
|---------|----------|
| 01_ 디락 | 05_ 침실 |
| 02_ 방 | 06_ 거실 |
| 03_ 화장실 | 07_ 식당 |
| 04_ 안방 | 08_ 보일러실 |



평면도



화랑 종단면도



하는 이였다.

그가 관리하던 많은 땅 중에 가장 경사가 급하고 비정형의 대지를 내게 제공하였고, 대지내의 나무들을 가능한 베거나 옮기지 말고 기존의 자연지형에 어울리는 건축을 부탁했다.

아무리 폼나고 화려한 집인데 수십 년을 이 땅에서 지리온 나무 한 그루만큼 소중하겠느냐는 일치된 생각, 참으로 행복한 만남이 아닐 수 없었다.

삼각형의 경사 급한 대지(대지 LEVEL 차이가 9M)는 서향쪽으로 키 큰 참나무가 있었고, 풍덕엔 소나무가 소담스레 모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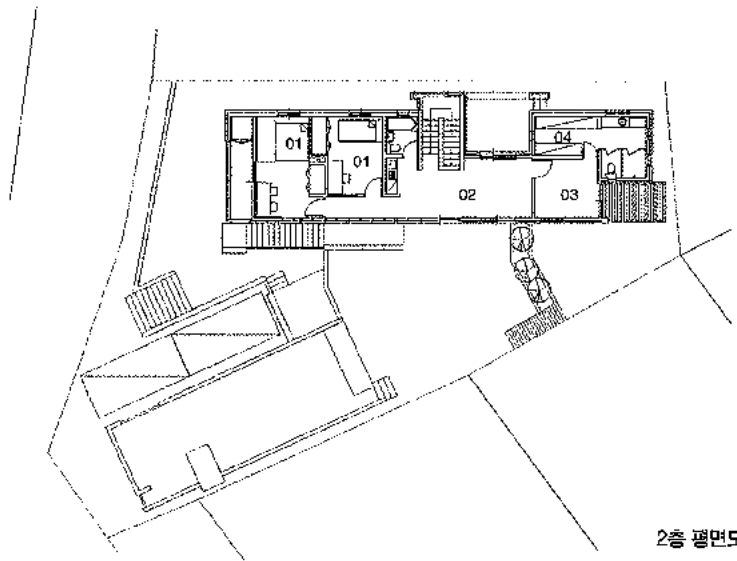
열손실 때문에 서측창을 소극적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반해 서측 하늘의 아름다움을 맘껏 보기 위해 크게 창을 열어 주어도 참나무 잎들은 여름 저녁 햇살을 웬만큼 막아주며 2차적으로는 거실 루버 셔터로 열을 차단할 수 있게 하였다. 밤이 되면 거실에서 나뭇가지 사이로 바라보는 신도시 아파트의 불빛도 나름대로 도시적 정취를 느낄 수 있어서 좋다. 소나무 숲이 있는 2층 가족실부분은 장방형메스를 일부파고 들어내어 가족실 전용 소정원이 소나무가지로 살짝 덮이게 했다.

삼각형의 대지에 목조로 지어진 긴 주택과 8자로 어긋나서 만나는 사랑채(아프리카 조각을 전문으로 다루는 화랑)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져서 흙에 깊숙이 박혀있으며, 두 채 사이에 만들어진 마당은 주차공간이면서 화랑의 마당으로서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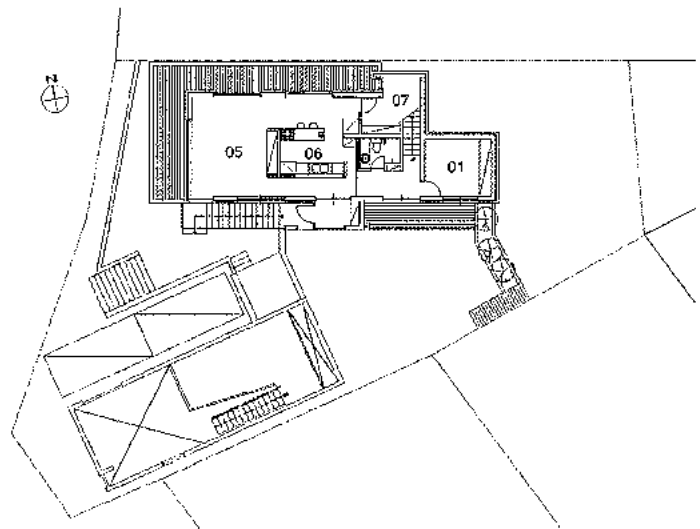
전체단면을 보면 4개층 높이로 나뉘어져 있고 각층은 모두 땅에 접하게 되면서 각자의 조그만 마당 또는 목조데크를 만나게 된다. 짓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 소모로 나무리가 열악하고 거칠어진 곳도 많지만 땅이 가진 그대로의 의미를 상실시키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땅과의 관계에 자연스런 교감을 형성하려 노력했던 시간이었다.

땅에 물리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되어 아예 마감까지 드러나는 노출콘크리트로 마감했고, 흩어 덮이지 않은 부분은 구조에서 마감까지 목재를 사용했다. 마감이 시작되는 시점이 가을이라 단풍잎들과 잘 어울리는 적삼목을 주 외장재로 했으며, 좁고 긴 건물의 덩치를 줄여보고자 부분적으로 시멘트벽돌을 쌓고 수성페인트로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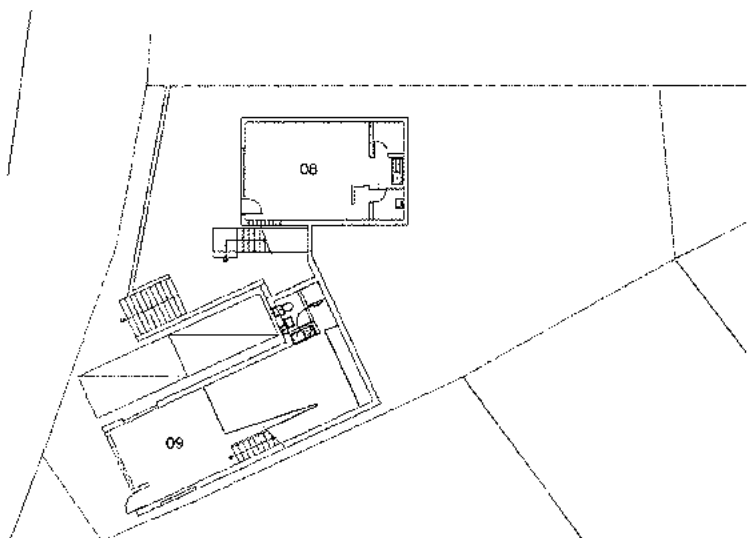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 최상 중층평면도

- 01_방
- 02_가족실
- 03_안방
- 04_드레스룸
- 05_거실
- 06_부엌
- 07_다용도실
- 08_보일러실
- 09_차량



지하층 & 최상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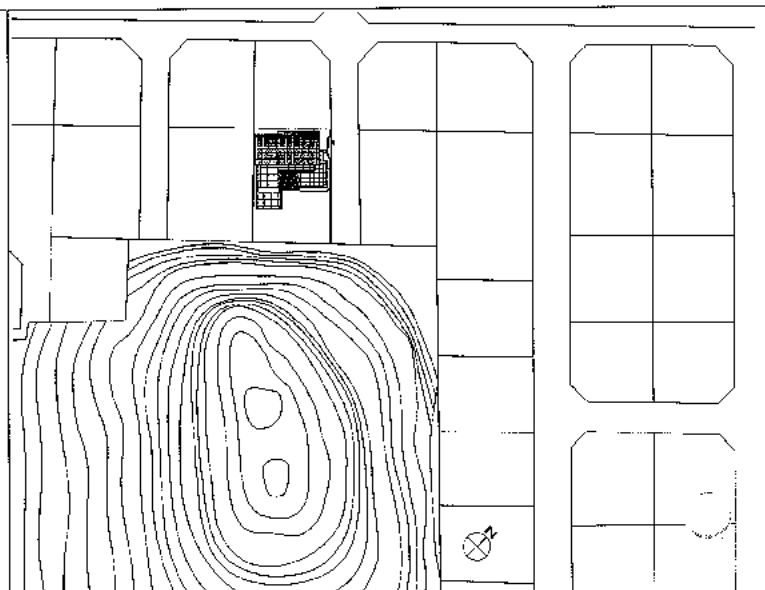
수서주택

Suseo Residence

이용선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기획
Designed by Lee Yong-Sun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 강남구 수서동 462-9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대지면적	328㎡
건축면적	162.27㎡
연 면 적	231.80㎡
건 폐 율	49.47%
용 적 륜	70.67%
규 모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바다-마루널갈기 벽, 천정-석고보드워 페인트마감
외부마감	드라이비트, 적삼목
설계담당	원윤정
시 공	(주)이스트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서울 도시에 있으면서도 개발제한구역내 있어 풍요로운 자연을 가까이 접하고 있는 특별한 대지이다. 남쪽의 산 끝을 대지 경계로 하고 있어, 산기슭 전체가 마당에 떨어진 정원처럼 느껴진다. 울창한 숲속, 산자락 끝에 걸쳐있는 큼직한 바위, 마당까지 날아드는 이름 모를 새, 동쪽 계곡을 통해 대지 깊숙히 떨어지는 아침햇살, 겨울오후 마당 끝까지 떨어지는 서늘한 앞산 그림자, 살랑살랑 불어오는 계곡바람.....

대지와 건축물은 완전히 일체가 되어야 한다. 마치 연출가에 의해 연출된 드라마가 만들어지듯, 내부/외부공간은 물론,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을 소재로 새로운 환경을 연출할 연출가가 되기도 한다.

현관, 거실, 방, 식당 그리고 각각의 실을 연결하는 통로공간,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 돌, 숲, 바람, 햇빛 등 모든 소재를 함께 펼쳐 놓는다.

건축내부 공간에 의해 재단되어지고 남는 외부공간이 아닌 내/외부 공간이 함께 계획되고 다듬어진, 일체로서의 생활공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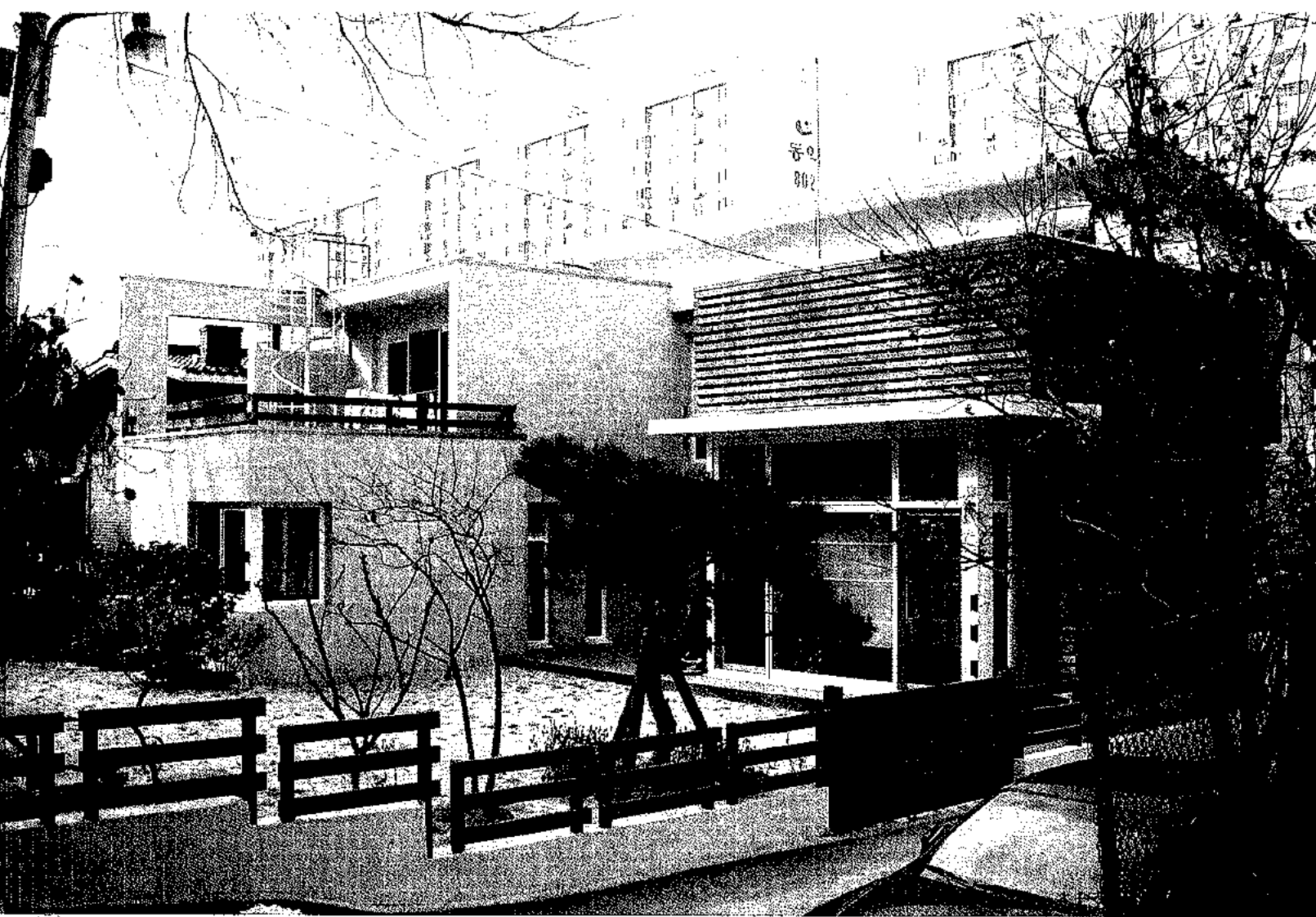
만든다. 마치 조경 계획에 의해 바위가 그 자리에 놓여있는 것처럼, 한여름 시원한 맞바람이 틀이도록 바람길을 만들어놓은 것처럼,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있도록 일부러 그 자리에 심어놓은 나무처럼, 다소곳이 벌리고 선 안마당에 따스한 햇빛을 듬뿍 담아놓은 것처럼.....

마치 동일한 피사체라도 카메라의 위치, 원근, Eyelevel, 조도에 따라 다양한 느낌의 영상이 되듯, 철저하게 연출된 각각의 공간은 서로에게 다양한 변화와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각 실은 그들 나름대로의 기능과 특성을 갖고 있다.

거실, 식당, 안방, 자녀방, 가족실 등 누가, 주로 어느 시간대에, 무엇을 하며 그 방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놓여지는 위치, 보여지는 바깥풍경,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달리 한다.

아침 커튼을 열면, 그림처럼 펼쳐지는 자연과 함께 아침햇살을 만끽할 수 있도록 안방의 위치를 잡고 부부만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완충공간(Hall-way)을 경유하여 방에 이르도록 하므로서,



공간의 필요움을 느끼게 한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생활할 수 있는 거실은 평면적인 크기와 공간의 볼륨을 적절한 크기로 하므로써 주공간의 역할을 하도록 하며, 데크와 연결된 킷마루는 거실에서 앞마당으로 편리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주택에서 공간의 중심은 주방/식당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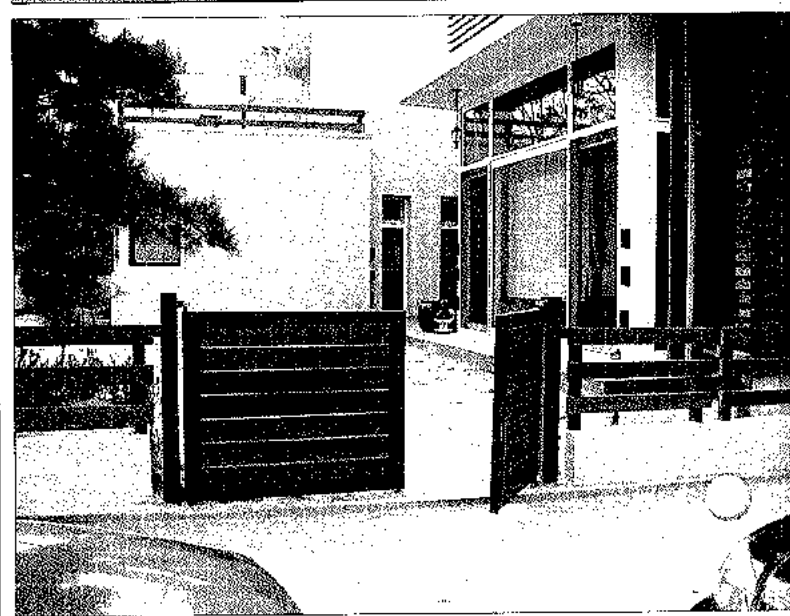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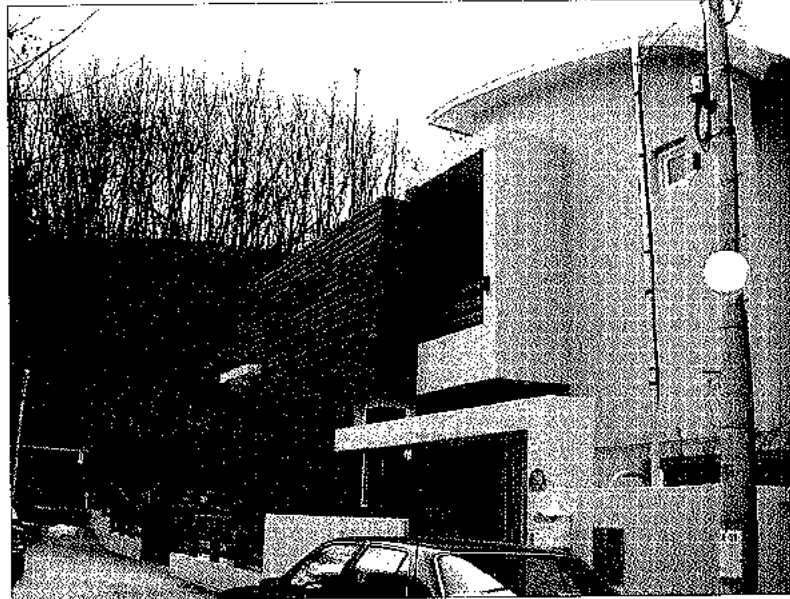
소가족으로 구성되어있는 요즘 가정의 주부는 적어도 가족이 모여 있는 시간(아침, 저녁)에 많은 시간을 주방과 식당에서 보내게 된다. 1층에 안방, 거실, 2층의 자녀들 방의 중심에 주방과 식당을 배치한다. 주방에 있으면서도 직접 대문/안마당을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잡고 창을 설치 하므로써 편안한 서비스 동선의 구성은 물론 방문객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 일을 하면서도 모든 공간과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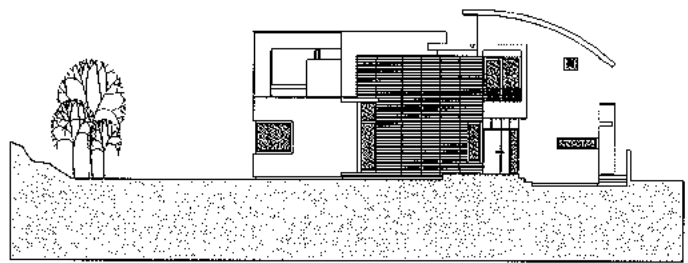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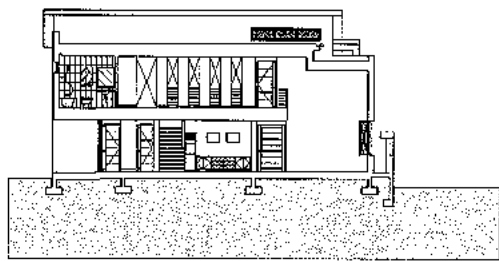
거실의 한 벽면을 사선으로 하여 식당/거실 공간을 중첩 시키므로써

상호 한 공간처럼 느끼도록 하고, 식당상부를 Open 하므로써 2층 자녀들과 직접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며, 특히 2층에 오르는 계단 또한 식당을 경유하도록 하므로써 이곳이 생활의 중심공간이 되도록 한다.

1층 거실, 식당, 안방으로 둘러 싸여있는 중앙 데크는 햇빛을 모아 식당 깊숙히 전달하는 광정(光井)의 기능을 하며, 식당에서도 이곳 데크를 통해 바깥의 풍경이 막힘없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한다. 데크에 심어놓은 한 그루의 나무는 주부로 하여금 문득 계절의 변화를 느끼도록 할 것이다.

2층에 자녀들을 위한 조그만 가족실은 남쪽 산을 향하도록 배치하고, 가족실 전면 옥상을 활용한 데크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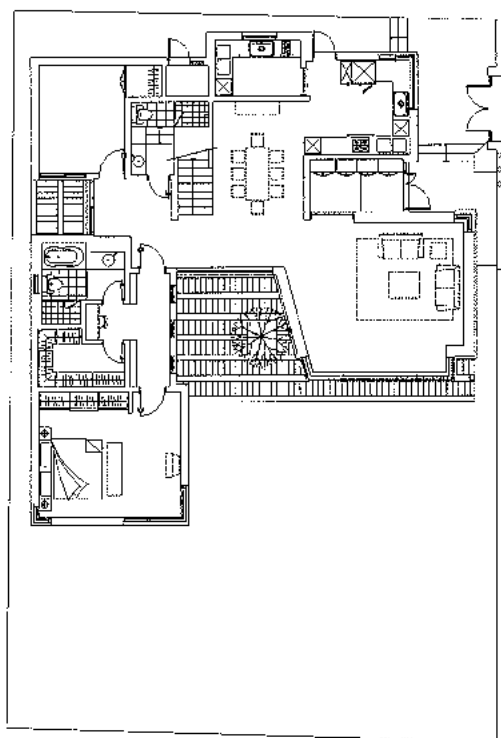


0 1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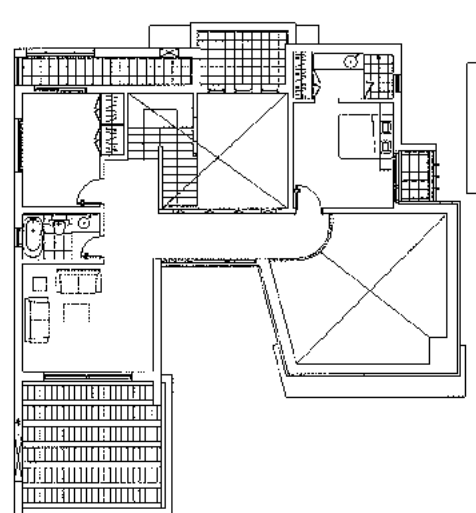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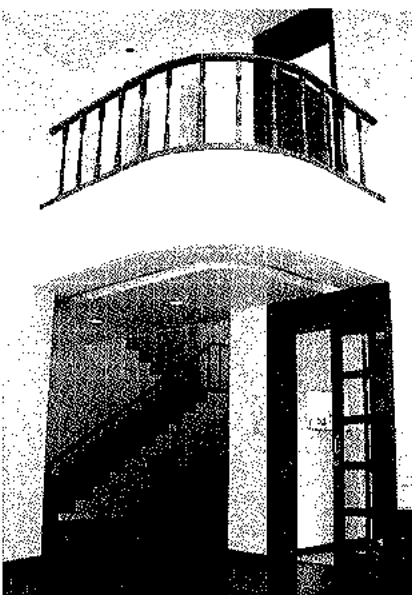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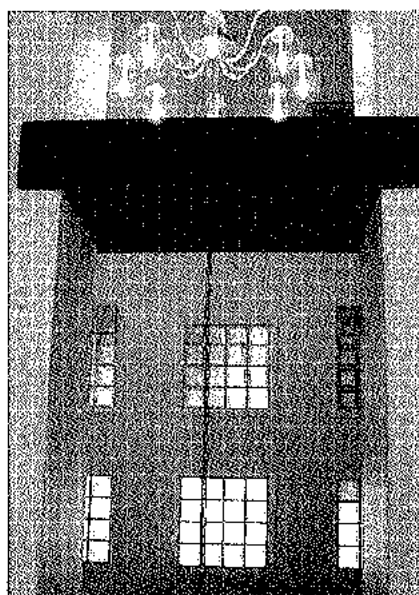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0 1 3 5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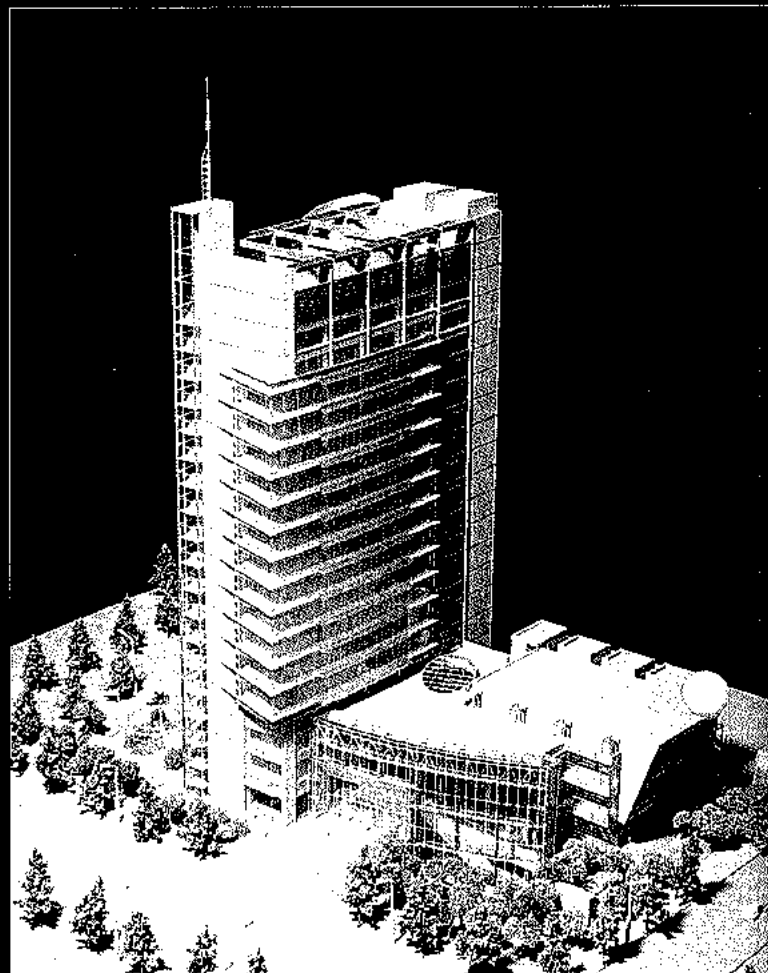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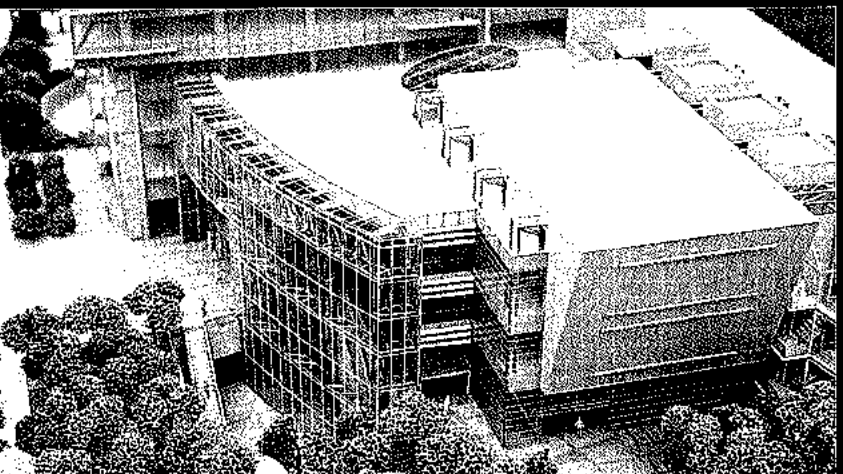
교원공제회 대전회관 Korean Teacher's Mutual Fund Daejeon Center

오동희 / (주)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Oh Dong-Hee

건축의 시대상황과 이념

우리는 살아가면서 안게 도르게 소위 10년이라고하는 시대적 한정을 두고 세대의 간격을 통념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만이 아닌 국가전반적인 상황의 인식변화에 기초하고 있고 이것이 새마을 운동과 유신, 통키타와 저항 문화, 민주화운동과 다양성의 인식, 세계화와 IT산업의 대표기업으로서의 등장, 첨단화, 국제화, 생명과학의 역한 등의 사회적 개념에서 비교적 잘 맞을 뿐만 아니라 건축의 시대적 배경 또한 깊음이 생각해 보면 이를 잘 반영하여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와 시대적 적응배경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이러한 시대적인 국가목표급 기업의 경영목표로, 또한 건축설계의 지표로 삼고 있음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설계기업으로서 이미 창립 100년의 역사를 지닌 Nikken Sekkei의 경우, 전후 10년간의 국가복구의 어려운 시대를 거쳐 1960년대에 들어서자 발빠르게 발전된 서구 선진적 건축문화를 받아들이고 고립되고 낙후



된 일본 건축문화를 미국과 유럽의 벤치마킹을 통해 발전시켜 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장래를 대비한 설계기초체력으로 튼튼히 함으로써 다음 1970년대의 건축기술의 독자적 능력기반 확보와 소니로 대표되는 일본적 세계주의의 사고가 건축 테크놀로지로서의 국가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1980년대는 이미 세계에서도 제일 앞서서 실용화된 정보화와 건축물의 인텔리전트화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과 시장주도, 그리고 1990년대에는 지구환경,온난화의 이해와 생태 및 에너지건축의 시도를 통해 21세기를 대비하고, 비록 일본경제가 경제불황의 깊은 늪에 빠져있다 하여도 실제 일본의 도시환경,사회환경,건축환경 및 건축건축이 세계에서 주도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상대적인 격차와 존경심을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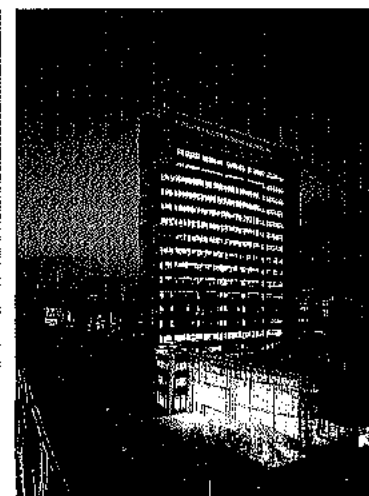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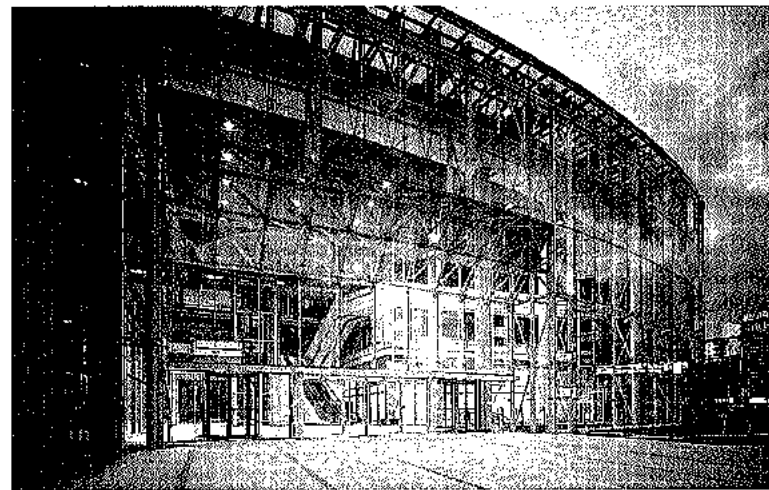
교원공제회 대전회관은 1990년대 하반기에 설계된 건축물이다. 그 당시의 한국에서의 시대적 요청이라고 한다면 서구 건축문화에 대한 경쟁의식과 모방의식이 함께 존재하고, 건축이념적 여파는 이미 미국, 일본과 동등하다는 의식아래에 있었음에도 이를 구사할 건축 테크놀로지 및 건축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미흡한 상황이었다고 기억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하였던 건축의 시대배경에서 본다면 일본의 동시대의 주도적 건축물에 시대안식과 기술의 면에서 격차를 갖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축의 목표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간담건축과 건축 TREND의 유추

교원공제회대전회관을 이야기할 때 함께 언급되어야 할 건축물이 몇이 있다. 이것은 이 건물이 한 건축가의 건축이념에서 탄생되어진 것이면서도 오히려 일련의 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협력, 반복적 사고에 따른 TREND로의 정립을 통해 건축에 있어서의 '일관성'을 시도하고자 하는 간담건축의 '건축가집단'으로서의 자부심으로 이해받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도시화에 따른 도시건축, 도시문맥에 대한 대형건축물의 사회기여, 건축의 의도와 자기표현성을 통해 기업의 건전화 및 기업문화와 대중과의 연결화, 건축기술의 요구를 통한 건축산업의 발전도모 등의 시도는 곧 간담건축의 건축가들이 1980년대 중반이후 199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품어온 능동적 사고로서 인식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시대는 아직까지도 선진건축에 대한 모방과 경쟁이라고 하는 묘한(?) 사고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87년도에 설계하였던 영풍빌딩(1차설계안, 지금의 건물과는 다름)의 경우 당시 주목할 건축이슈로 등장한 동경의 NS빌딩의 거대한 아트리움을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시도였으나 아쉽게도 국내 최초라는 실현(?)을 무담스러워 한 사업주의 고민아래 지금의 건물이 되었다. 이러한 선진적 사고를 더욱 획기적으로 시도할 기획은 바로 1990년도의 POSCO-21 PROJECT를 통해 다시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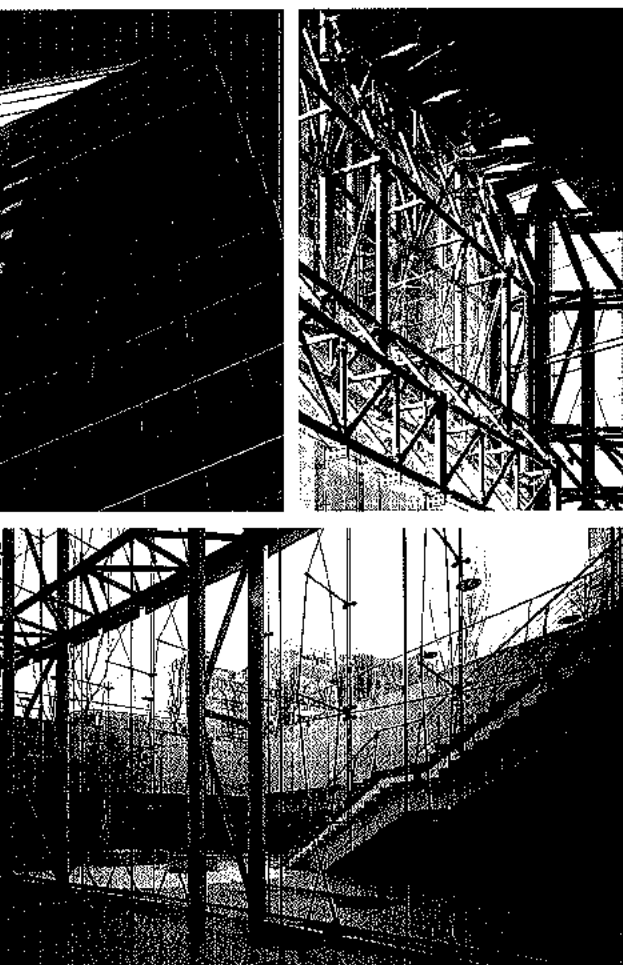
여되었는데 당시의 주목받던 홍콩상하이뱅크의 복합적 건축기술의 첨단성을 경이의 대상으로만 보고있던 우리에게 POSCO-21은 이를 경쟁으로 한 야심적 계획으로 시도되었으나 무려 2년에 걸친 설계에도 불구하고 다시 실현에는 이르지 못한 아쉬움은 지금도 남고 있다.

실질적인 결과로서 공제회 대전회관의 '친정' 이 된 건물은 1993년에 다시 설계된 POSCO센터인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POSCO-21을 뒤로 하고 이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설계기술의 자신감에서 국내 설계진에 의해 이룩된 것으로서 간접건축이 우리사회에 기여하고자 한 하나의 계기가 된 프로젝트라고 자평하고 싶다. 이를 통해 도시 건축이 취하여야 할 방향, 도시공간과 건축의 만남, 아트리움의 건축기술과 건축공간의 기능성 제시, 유리건축물의 다음 세대로의 진전, 미래기업과 CI, 건축의 역할 등 중요한 건축적 화두로부터 공법과 재료, 건축산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시도로서 건축가가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법 확장해 놓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교원공제회 대전회관은 이후 96년도 준공된 과천 코오롱 본사 사옥, 테헤란로 S-본사사옥(건축중 중단됨), 유너온스틸 본사사옥(2000준공)을 거쳐 앞서 POSCO센터에서 유후되었던 건축적 TREND를 이어받고 있는 건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대전회관은 도시적 건축의 거점이 되어야 했고, 둔산이라고 하는 신도시의 도시문맥에 대하여 이미 형성된 컨텍스트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질서를 찾는 역할에 주목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C.A.O' 즉 Creative Architectural Environment with Open to Public 이라고 하는 문구는 이 건물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으로서 창조성과 개방성을 함유한 건축을 통해 도시의 맥락에 접속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며, 이것은 그 자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전염성을 가지고 주변환경에 유형,무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인간과 시간, 공간과 건축

현대의 건축가들은 산 자를 위한 건축물을 설계한다. 아니 고대의 건축가들이 꿈꾸었을 법한 영속적 건축의 기대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100년 건축의 기대 또한 확산하지 못하는 '속도의 시대'에 내버려진 것과 같은 알пах함에 둘러싸여져 있는 느낌이다. 디자인을 시작하면서 디자인의 Code, Criteria로서 인간과 시간에 대한 전지함이 엿보이는 건축공간의 구현을 생각하였음에도 그것이 그저 구호에 그치지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든다. 공제회 대전회관의 설계는 현상설계를 통한 산물로서 이러한 전지성에 관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쟁력 있는 적당히 새로운 건축의 탐구에 힘을 쏟아 넣었는지도 모르겠다. 초기 계획 당시에는 이 건물의 용적조건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지규모도 여유가 있어 구조미의 표현성, 대형의 필로티 공간, 생태적 건축으로서의 저층부의 계획 등 상대적으로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시도가 있었으나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평가상의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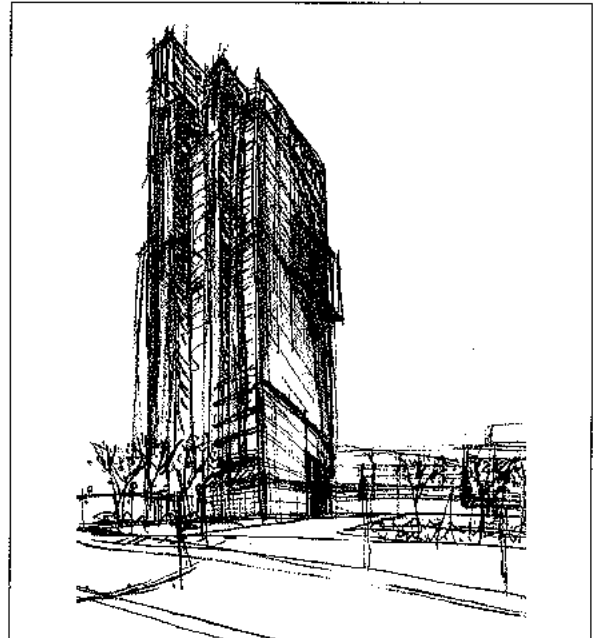


을 피해 안정적 구상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현 구상안에서 그 실험적 사고가 부족하지 않도록 진전시킨 결과 그 건축적 개념을 첫째, 건물의 아이덴티티와 심볼, 둘째, 인간적 건축과 쾌적성의 도모, 셋째, 융통적이며 가변적인 건축공간과 설비의 갱신성, 넷째, 생태와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추구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개념은 이미 많은 건축물에서 그 성과를 보고 있는 것이지만 특히 간담건축의 디자인 파트너들은 이 키워드를 90년대의 '건축적 시대정신'으로서 목표를 설정하고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여 왔다고 하고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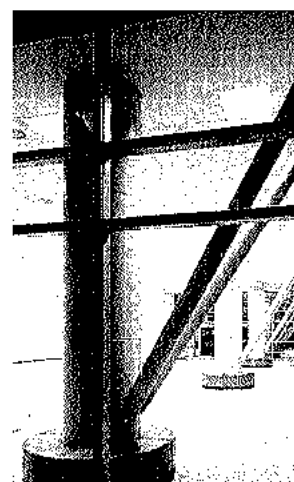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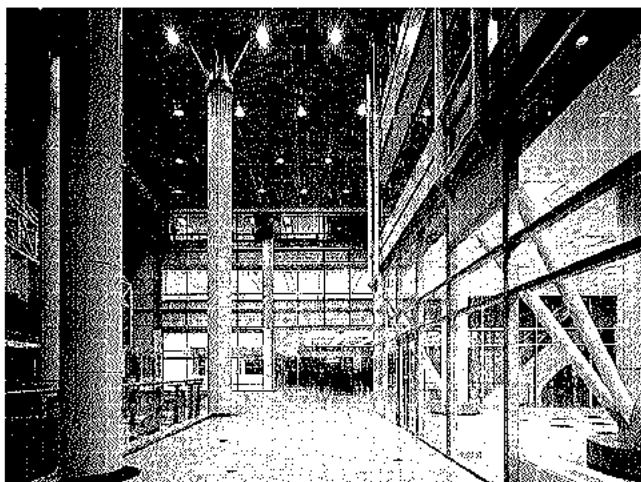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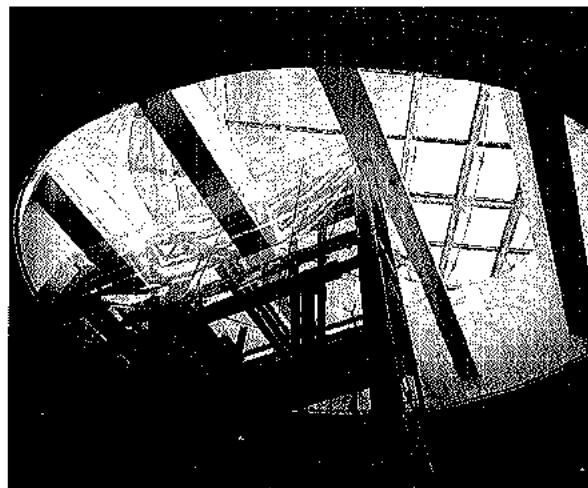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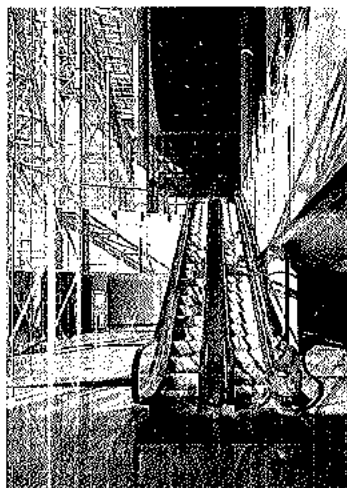
유리건축의 도시적 접근과 기업정신과 투명성의 건축가치 점목, 도시적 공간으로서의 아트리움의 일관된 시도와 건물의 도시기여성, 대중과 친밀한 건축을 구현하고 쾌적한 건축공간과 Urban Street의 제안, 장스팬을 통한 우주공간의 사무실 계획 및 이를 통한 장래 가변성의 능력확보, 계단 및 엘리베이터의 분산배치를 통한 고정요소의 외연화 및 이를 통한 인간의 유동성과 밝은 이동공간의 확보, 확장실 및 공조실의 외변배치를 통한 장래 갱신성의 가능성 도모 등은 이 건축물에 적용되어진 대표적인 건축개념으로서 인식되어질 바란다.

유동성의 건축

20세기 후반에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건축의 기술 정보화 및 인간



성의 회복, 그리고 에너지라고 하는 건축의 키워드를 앞서 설계하였던 '유니온스틸본사사옥'에서처럼 공제회대전회관에서 또한 필자는 1. Flexible, 2. Move, 3. Digital 이라고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접근해보고자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대개는 한정적이지 않고 스스로 변화하며, 고정적이지 않고 움직임에 유약하며, 또한 아날로그적 양방향매체통로가 아닌 디지털적 다방향교류를 건축



의 속도감과 내연과 외연의 연합에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유동성의 건축'으로 귀결하고자하는 건축시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유동성'이란 그 단어 자체가 풍기는 느낌처럼 유연하고 포괄적인 건축을 의도한다고 할 것인데 '공간의 유동성'이라고 한다면 즉 '도시와 건축', '안과 밖', '거주공간과 동선공간' '지표공간과 공중공간' 등 서로 대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다수의 공간이 서로 대립하는 대신 Infill(인입)과 Overlap(겹쳐짐)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시각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경우 이 건물은 동선의 핵심이 되는 엘리베이터를 북쪽 페리메탈 존에 Dominant한 형태의 Glass tower를 두어 안과 밖으로 그 움직임이 서로 인지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동의 표현은 곧 미래건축이 채택하게될 '캡슐건축' (Capsule Architecture: 건물의 구성물이 건축테크놀로지의 발전 또는 공학, 물리학 등 자기를 이용한 건축부착과 탈착의 개념의 가능성, 예를 들면 영화 'Blade Runner'의 Tyron사 사육으로의 Flying Shuttle의 접속장면, 또는 '제 5원소' 및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미래시대 자가용의 접속이 그러하다)을 상징하고 있고, 계단 또한 건물의 각각부에 투명한 유리의 외피를 통해 안과 밖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물의 상층부와 저층부 모두 이러한 시각적 유동성을 통해 인간의 Movement Flux가 표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사도중 당초 계획된 투명유리가 반사율 13%의 유리로 바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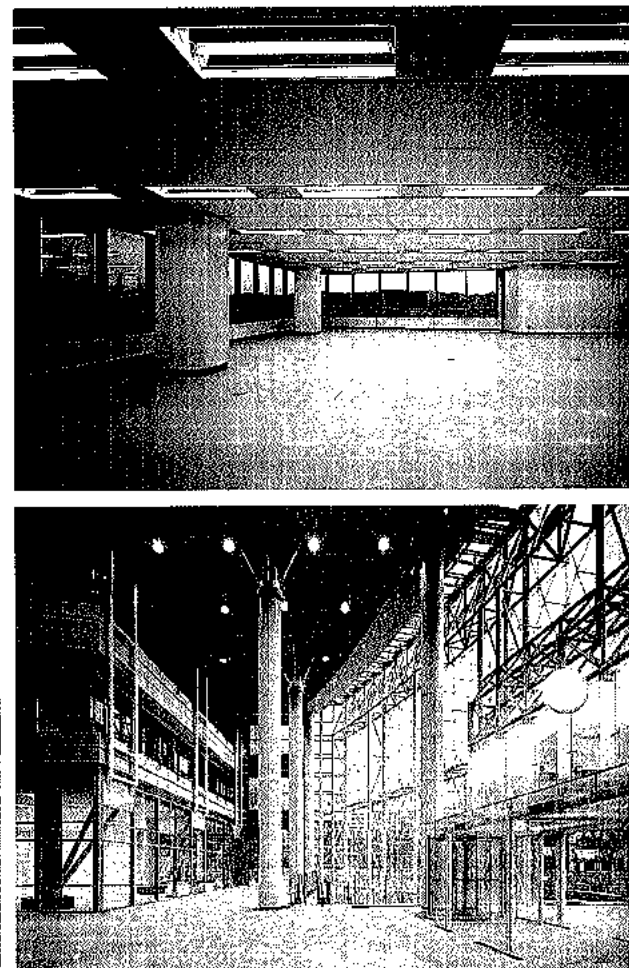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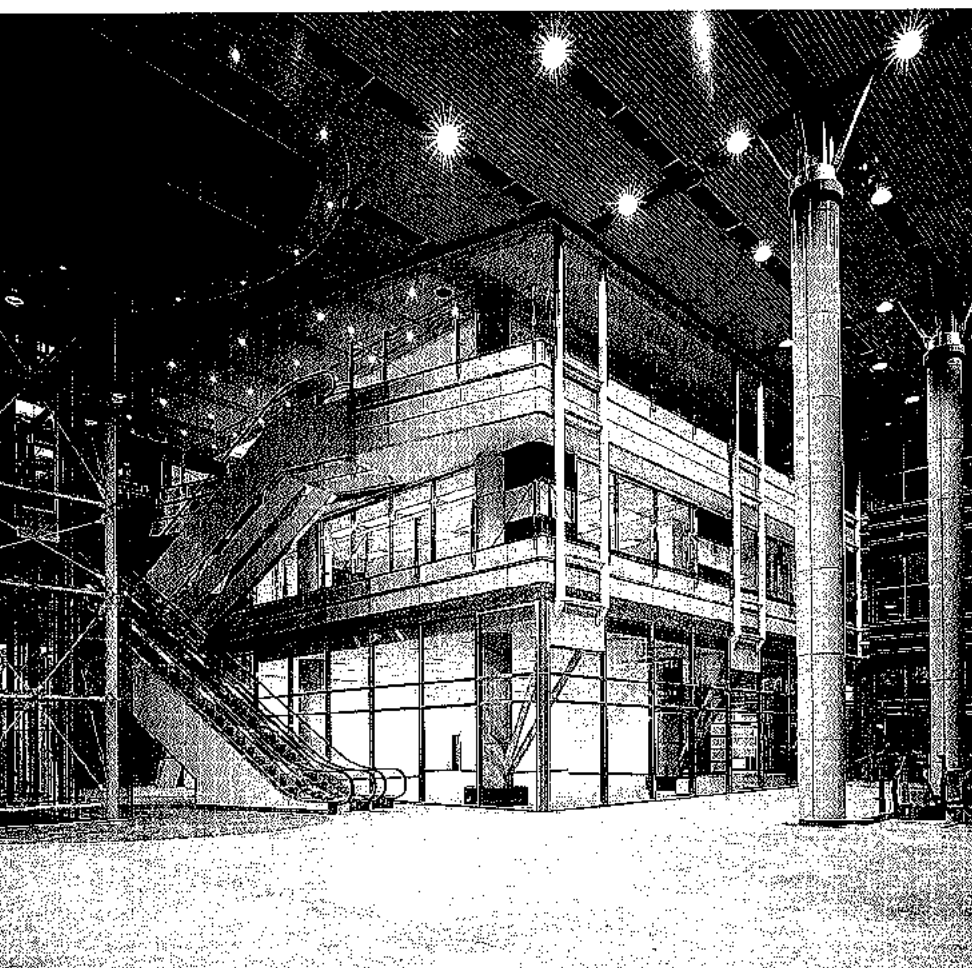
결과 이러한 건축적 정신이 상당부분 줄어든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시간의 유동성'의 개념으로 발전함으로써 본 건축물이 시대의 요청에 따라 변화(리모델링 등)를 필요로 하는 경우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건축물을 의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건축거점 으로서의 아트리움건축

건축은 그저 '효용성'만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면 건축에 있어서의 '남용성'이 현 시대의 한국건축이 저지르고 있는 지나친 '화장'과 무절제성, 그리고 현상, 토크설계 등을 통해 급속하게 전염되고 있고, 이것이 장차 그 빛을 갈아야 할 불필요한 남용이 우려의 수준을 이미 넘어서 지금 '효용성' 으로서의 건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지만 한정지을 수 없는 것이 또한 건축의 속성이다. 즉, 건축은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진 문화적 소산이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주도적 건축물을 통해 그 지역의 도시문맥에 있어서 '건축거점'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장소가 제공되고 사람이 모이고 정보를 교류하며, 이를 외부로 발산하는 문화거점이 되고 나아가서는 지역 관광의 명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제회 대전회관은 그 외부공간과 아트리움공간을 통해 바로 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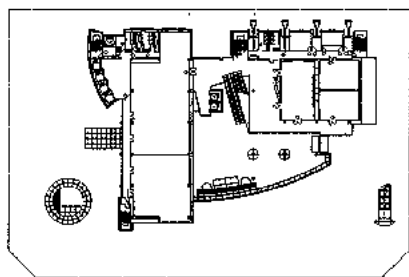
도의 연장선상에 위치시키고자 하였는 바, 이 건물은 1층의 메인 로비를 중심으로 지하1층으로부터 지상3층까지의 아트라운공간을 Urban Street 또는 Urban Communication Place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공간은 S.P.G.의 Clear Glass의 외피를 통해 실내이면서도 외부공간과의 동질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이 장소는 도시적 시각에서의 개방무대 라고 하고 싶다. 다시 말해 비워진 무대에 어떠한 '극'이 올려지는가에 따라 공간의 성격이 늘 변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유동적 무대'를 의미한다. 시민들은 이 무대를 이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중심적장소가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건물의 사업주인 교원공제회 역시 공공적 기여의 기대를 할 수 있었음을 기뻐할 것이다. 우리 시대의 건축이 갖는 한정성보다 비워진 공간적 건축이 줄 수 있는 가변적 가능성을 더 믿기 때문이다.

'유리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유동성의 건축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 유리라고 하는 재료가 무한한 건축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미 유럽과 일본에서는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며, 21세기 전반의 건축에 있어어도 그 역할이 가장 기대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유리건축의 환경 및 에너지건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유럽 특히 독일의 발전된 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상태이지만, 이것은 아마도 향후 10년에 걸쳐 우리 건축계의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의 유리사용은 그런 면에서 접근하여 볼 때 시스템적 해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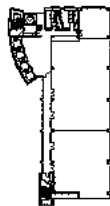
피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대신 투명유리를 통하여 건물의 외피를 이중적으로 보이도록 하여 빛에 의한 굴절적 시각변화를 도모하였다. 건축물의 내부환경을 외부로부터 격리하고 벽으로서의 외피대신 교류하는 경계로서 얹혀지도록 한 의도인 것이다. 다만 상층부의 경우 투명유리 대신 안정적이고 매끈한 외피에 대한 고정관념을 설득하지 못한 것은 사회적 권한의 확장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 많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은 도시의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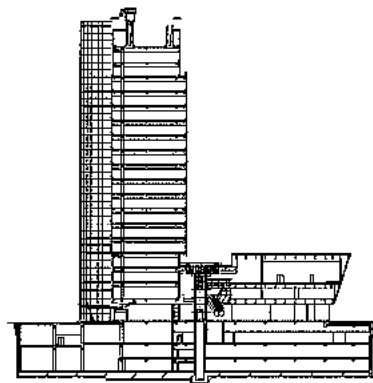
건축은 도시의 부분이며, 이를 구성하는 세포와 같다. 강한 세력은 서로 모이고자 하며, 모여진 세력과 세력사이에는 일종의 교류가 생기게 된다. 이것은 하나의 자연법칙이다. 교원공제회 대전회관은 도시속에서의 하나의 강한 세력의 중심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것 자체로서는 그러한 세력권을 형성할 잠재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둔산이라고하는 도시는 개발 당시부터 미리 도시축과 공원, 녹지의 흐름을 배려한 계획적 도시이다. 그럼에도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과시적 녹지공간은 뚜렷하되 실제로 세밀하게 흘러야 할 보행 네트워크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공제회 대전회관은 여전히 도시의 심처럼 느껴진다. 미세하면서도 시려깊은 도시적 효용성의 인간배려가 곧 건축을 건축답게 작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렇게 됨으로써 도시의 문화거점의 발신지로서 역사적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이다.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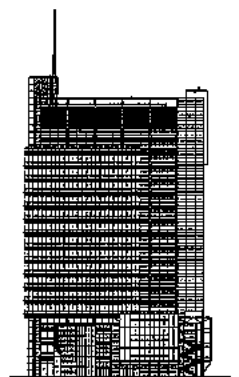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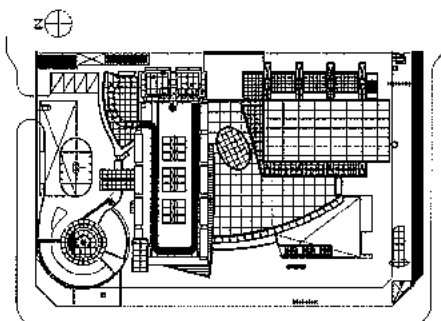
18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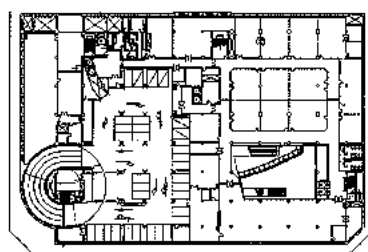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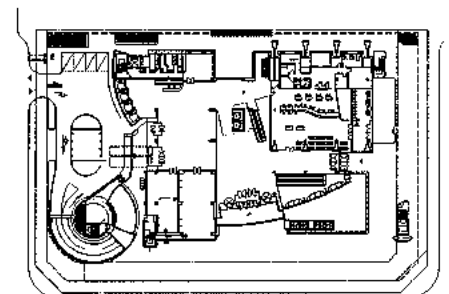
남측경도



배치도



지하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방법과 기준 (1)

Implementation Guideline for District Unit Plan

지구단위계획 수립 매뉴얼을 중심으로

이희정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설계연구팀장
by Lee Hee-Chung

지구단위계획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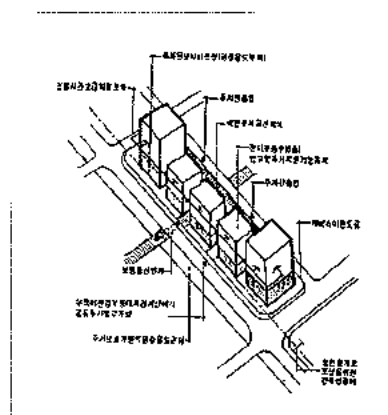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구역내 일부분인 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기능의 증진, 도시 미관의 개선,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중간적 계획으로 현행 제도상 도시계획을 기존사가지의 특정지역에 적용하여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적정의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이다.

도시계획은 도시 전체를 장기적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구의 성격을 결정짓는 용도와 밀도 등 골격적인 것을 제시하나 필지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이 아닌 블록 또는 지구단위에서 지정된다. 이렇게 지정된 내용은 건축설계를 통해 구체화하게 되나 이것만으로는 지구의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은 대부분 양적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환경이란 건축용도와 밀도가 정해져 있을 지라도 실제로 어떻게 공간을 조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건축계획은 민간, 공공 등 개발주체가 독립적으로 마련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기능, 경제적 규모, 아름다움을 고려하여 계획하므로서 독립적으로는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의 측면에서는 개별적으로 수준이 높은 디자인계획이라도 지구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거나 지구의 공통된 이미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상세한 도시계획이면서 집합적 건축계획에 관한 입체적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개별 건축이 이룰 수 없는 바람직한 지구전체의 수준높은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도시계획을 지구특성에 맞게 구체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은 집합적 건축계획이지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일종의 도시계획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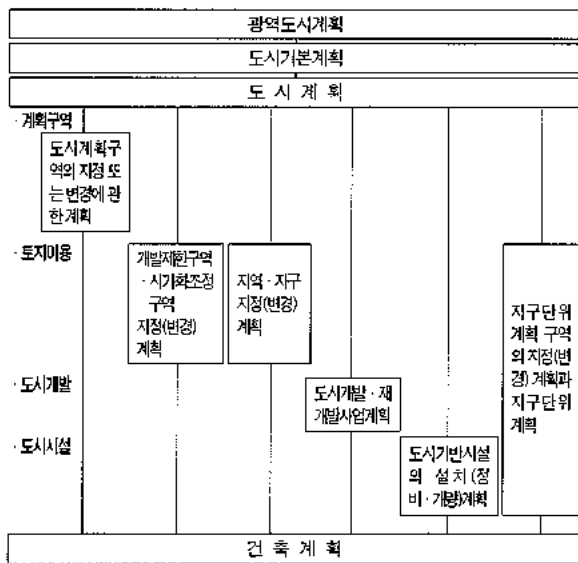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적 위상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 제4절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이 법령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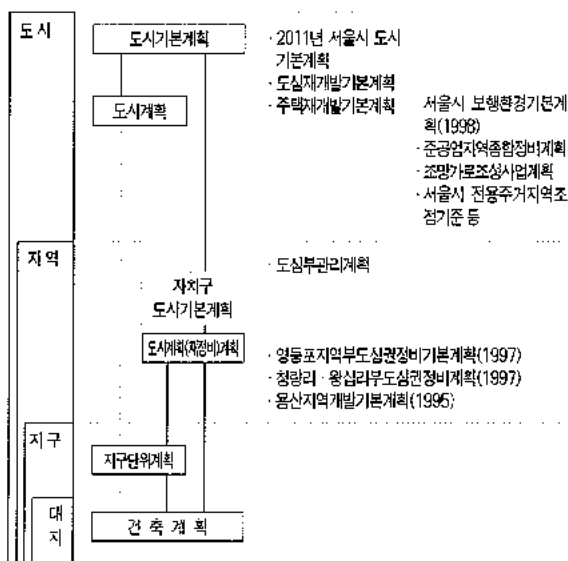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와의 관계

도시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의해 도시내 토지의 개발 및 이용에 가장 근간에 되는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건축이 행해진다. 한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용도지역에 의해 정해지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관계)



(상위 도시계획과의 구체화 관계)



는 제한과 달리 지역여건 및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정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서는 정할 수 없는 내용들을 필지의 여건 및 계획목표를 근거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용도지역·지구 등에 의한 도시환경의 일반적 도시관리수단으로서는 할 수 없는 도시내 특화된 환경을 만드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표)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내용

구분	종전 체계	새로운 체계
제도명칭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근거	도시계획법(2000.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2.4)
구분	없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적용범위	도시계획구역안	도시계획구역, 비도시계획구역
목적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지정권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구분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1. 용도지구
지정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6.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동법 제2조제6호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지을 자에한대)	2.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4.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7.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6.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동법 제2조제6호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지을 자에한대)
대상	9. 관공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공특구 10.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11. 기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9. 관공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공특구 10.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11. 기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타 제도·사업과의 관계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등 도시계획사업과 택지개발 등 타제도에서의 개발 사업계획과 성격을 달리 하며, 주로 이들 계획이 사업추진에 대한 것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은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적으로도 보다 상세한 제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의 경우도 주택배분계획 등에서 평형, 호수, 용적률 등을 결정하지만 이것은 양적 측면이 강한데 반하여 지구단위계획은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질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은 법에 의해 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사업법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에 대한 실시계획과 함께 수립하여 당해 사업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매뉴얼의 목적 및 활용

매뉴얼의 작성배경 및 목적

가. 매뉴얼의 작성배경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전신으로서 1980년대 도시설계가 최초로 도입 이후 약 20여년이 지났다. 이와 같은 지난 20여년간의 변화는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제도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계획의 기조 및 환경, 제도의 확충 및 세분화 등 내용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한 결과가 최근 2000년 도시계획법령의 전면개정을 통해 반영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 정리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계획이 결정되어 운영중인 지구단위계획(중전 도시설계·상세계획 포함)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지구단위계획의 운영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의 수립, 변경 등의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서울시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은 타 도시와 달리 신시가지보다 기성시가지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도시의 형성 과정 및 거대도시로서의 특성에 따라 문제가 보다 복잡,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지침에 근거하여 이를 운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즉 서울시가 갖는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유도할 수 있는 서울시만의 지구단위계획의 운영 매뉴얼 마련이 요구된다.

나. 매뉴얼의 작성목적

본 매뉴얼은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을 통해 서울시에서 보다 매력있고 활력이 넘치면서 질적으로 수준높은 다양한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에 참여하는 도시계획가, 도시설계가, 행정공무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해설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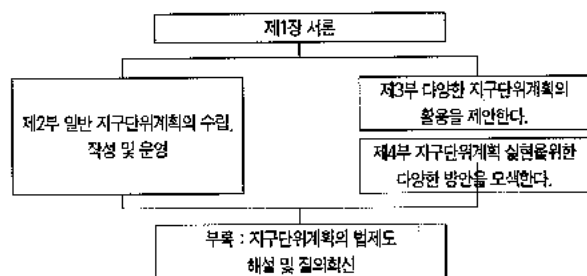
본 매뉴얼은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사전검토단계에서 계획구역의 지정, 계획의 수립, 결정, 운용 등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에 대한 운영 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설명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성을 갖는 지침적 성격보다는 지구단위계획운영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교육자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매뉴얼의 이용대상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계획, 업무, 운용에 대한 초보자를 주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매뉴얼의 구성 및 활용

가. 매뉴얼의 구성

매뉴얼의 구성을 크게 4부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단계별로 ① 매뉴얼의 이용방법 ②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③ 지구단위계획의 활용검토 방향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⑤ 지구단위계획 수립 ⑥ 지구단위계획 결정 ⑦ 지구단위계획의 운영 ⑧ 지구단위계획의 집행순으로 나누어져 있다.



나. 매뉴얼의 이용방법

지구단위계획 매뉴얼은 법적 구속성을 갖지 않는 실무참고 및 해설용 자료로서 매뉴얼 사용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운영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다.

본 매뉴얼은 택지개발, 재개발 등 개별사업법의 신시가지 계획보다 기존시가지의 적용에 중점을 두고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 및 실효성을 고려하여 제시한 것이다.

본 매뉴얼의 참고시 지구단위계획관련 법령 및 지침의 변화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참고하도록 한다.

1단계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검토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왜 수립하는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체계의 기본틀인 용도지역지구제도와 건축환경기준이 만드는 최소한의 기준이 아닌 보다 좋은 도시를 만드는 방법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집합적 환경을 고려함으로써 개별건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한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용도지역의 경계를 즉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도시관리의 일반규제 수준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높은 수준을 정한다.
-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지구를 조정한다.
- 공공시설의 설치 및 조정과 도로망의 확충을 통한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꾀한다.
- 세가로망의 도로기능 증진 및 보행공간의 확충을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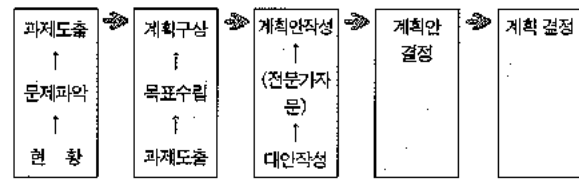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가

가. 지구단위계획의 운영과정



나. 각 단계별과정 및 내용

- 계획추진 검토단계에서의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구단위계획 운영의 필요성 타진
 -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타진
 - 계획추진방법
- 구역지정의 단계는 지정안 작성단계, 지정입안단계, 지정결정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지정안의 작성단계는 예비조사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 지정입안단계는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입안을 위한 계획안을 정하는 단계이다.
 - 지정결정단계는 입안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심의, 결정하는 단계이다.
- 계획수립 및 결정단계
 - 계획수립을 위한 준비와 계획수립 단계
 - 계획결정의 단계 : 결정도서의 작성 등



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동대문구)에서 - 과업기간 : 1998. 12. 17. ~ 2000. 8.

1998	8	20	지구지정(서울시 고시 제1998-308호)
	11	7	(동대문구 고시 제1998-83호)
	12	17	도시설계 과업착수

도시설계구역 적용(건축법 개정/99. 2. 8)

1998	2	26	주민의식조사
	3	19	1차 중간보고
	4	29	서울시 상임기획단 자문
	7	14	2차 중간보고
	10	28	주민설명회 개최
	11	24	주민공람(30일간) 및 유관부서 협의
	12	23	구의회 보고
		27	구 건축위원회 자문
	1	28	교통영향평가 심의(1차)
	2	25	교통영향평가 심의(2차: 조건부 가결)
	4	7	서울시 도시설계위원회 심의(1차)
	5	12	서울시 도시설계위원회 심의(2차)
		26	서울시 도시설계위원회 심의(3차)
	6	9	서울시 도시설계위원회 심의(4차) : 조건부 승인

지구단위계획 구역 적용(도시계획법령 개정 / 2000. 7. 1)

2000	8	30	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00-248)
------	---	----	------------------------------------

자료 : 동대문구, 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 2000. 8.

주 : 당초 과업명은 경희대앞(문화의 거리) 도시설계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과업기간은 1996. 9. 13. ~ 1997. 12. 6.이었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가.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 계획구역내 개별 건축의 제어를 통한 실현
-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한 실현
-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실현

나. 지구단위계획 실현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가?

- 지구단위계획은 일반적으로 10~30년 정도가 지난 후 목표했던 환경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은 대부분의 경우 향후 5~10년내로 실현이 가능하다.
 - 택지개발, 구획정리 등 개발사업과 연계된 지구단위계획은 일반적으로 10~20년내 실현이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가

지구단위계획의 활용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존시가지 일반 지구단위계획은 보다 세분해서 대략

5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적용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여기서는 다만 현재의 다양한 지구단위계획 운영 차별화에 대한 기본방향으로서 고려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침 구분과 연계한 보다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계획추진절차나 계획내용, 운영주체 등도 함께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표〉 다양한 지구단위계획의 지침 구분 유형 예시

구 분	세 분 구 분	특성별 목적 예시
기존시기 일반지구 단위계획	신시가지개발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신시가지개발 및 관리, 지구단위계획,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시기화예정구역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성격 기타 시가지 등 스포츠지역 성격
	기존 시기지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특정개발사업 등 사업계획구역 10년 경과지역 관리 (여간변화에 따른 재건축 변화 대응) 기존 저밀 단독주택주변 공동주택 개발 관리 (단독주택지내 재건축 변화 대응)
	기존시기지 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임지특성별 구분 지역중심, 지구중심, 생활권중심 등 지역특성별 구분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
	기존시기지 보전형 지구단위계획	정비목적별 구분 가로환경정비 등 도시설계적 특성 기반시설정비 등 도시계획적 특성
	기존시기지 보전형 지구단위계획	역사문화보전형 역사환경 보전, 문화환경 보전 등
	기존시기지 보전형 지구단위계획	양호 환경보전형 양호 경관보존, 양호 주거환경 보전 등
	기타 지구단위계획 등	방재지구단위계획 등 기타 특별한 필요 목적

〈표〉 지구단위계획의 유형구분 세분 예 (서울시 적용사례중심)

구 분		내 용		비 고
		도시설계적 특성이 강한 경우	도시계획적 특성이 강한 경우	
신시 가지	신시가지 개발	성격상 도시설계적 특성과 도시계획적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야함 (이전 신도시 도시설계/상세계획 지침상격)		상암, 용산
	신시가지 관리		개발규모와 기반시설관계 검토 (개발 10년경의 개발사업지역)	개포, 고덕
기존 시기지	기존 신시가지 관리	일반 주거환경의 계획적 관리	둘을개발, 공업지역, 이전복지 관리, 용도지역변경 관리 (이전 상세계획지침,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성격)	단독주택지 이전적지, 용도 지역변경
	기존 시기지의 정비	기반시설에 양호하거나,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지구중심 정비 (이전 도시설계지침)	기반시설이 열악하며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된 지역/지구중심 정비 (이전 상세계획지침)	지역/지구중심 정비지역 (종전의 도시설계지침 상세계획지침 성격)
		마을만들기 등 환경개선 유형		
		상업가로/보행환경 조성 유형		
		문화거리/특화거리 조성 유형		
	기존 시기지의 보전	역사/문화환경의 보전 유형		인사동, 북촌지역
		양호한 주거환경 보전 유형		경관지구 등
시기화예정지역		개발제한구역, 건립시기지 등의 계획적 개발 유도 유형		

2단계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설정한다

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는가

- 구역 지정의 행위란 계획이 수립되어 적용되는 구체적인 지역적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 구역 지정의 방식은 구역 선지정, 계획 후 결정 방식과 구역과 계획을 동시에 결정하는 방식이 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중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누가 지정하는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서울시, 자치구의 필요 또는 주민의 제안 등에 의해 자치구가 구역지정안을 만들고 이를 서울시에 신청하면 도시계획 결정과정을 거쳐 서울시가 결정한다.

구 분	구역지정의 요구, 제안	구역지정계획의 입안	구역지정의 결정
서울시	○	○	○
자치구	○	○	×
주민	○	×	×

〈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구 분	제 목
(1)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특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에서 토지용도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위치 를 개발건축물에 구체적으로 변영하고자 하는 구역	① 경관지구·이전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방지구·보존지구·시 설보호지구·취락지구·개발제한지구·아파트지구·취락지구 ② 기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구 ※ 서울시는 문화재주변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시기지경관지구·조 망경관지구·문화지구·사적건축물보존지구·보행유선지구
(2) 당초의 개발사업 취지와 내용을 살려 계획적인 관 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폐 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 고자 하는 구역	① 도시개발구역, ② 재개발구역, ③ 대지조성사업지구, ④ 택지개발예정지구, ⑤ 주거환경개선지구 ⑥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⑦ 관광특구 ※ 도시계획구역 중 위의 ②호 내지 ⑤호의 구역은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다만, 관계법률에 의하여 당해 구역 등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도시형태와 기능의 제정 령, 특정기능의 강화 또는 완화, 난개발 방지 등 을 통하여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 양 호한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구역	① 개발제한구역·시기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 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② 사립도시 ③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④ 지하 및 공동공간의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⑤ 지역의 변경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공람공고된 지역 ⑥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⑦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⑧ 기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기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 도·간격을·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아파트 건축예정지역의 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 하는 주거지역의 4층이하 건축물의 수(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개발 동 가운데)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70% 이상 밀집된 경우 에는 해당 아파트 건축예정지역(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 문화기능 및 배후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업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자료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건설교통부, 2000. 8.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에 지정하는가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앞의 표와 같다.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을 입안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1) 도시에서 당해 구역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 (2) 대상구역의 발전과정 및 변화양상
- (3) 대상구역의 문제점 과 계획과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설정

지구단위계획 구역설정은 목표의 명확화, 지구현황의 파악,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경계의 구체적 결정이 필요하다.

목표의 명확화	·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이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도록 면적과 공간적 범위를 설정한다.
지구현황의 파악	· 현황, 변화추이 및 사업 등을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한다.
지구주민의 의견 고려	· 구역 지정에는 가급적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구체적 경계의 설정	· 면적의 기준 · 경계의 기준 ※ 경계설정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다.

■ 경계설정의 기준

- 지구현황의 파악과 지구주민의 의견
- 구역은 공간적 범위의 동질성, 연계성 등을 고려한 공간단위가 되도록 구역의 경계를 설정한다.

〈그림〉 지구단위계획 구역범위 설정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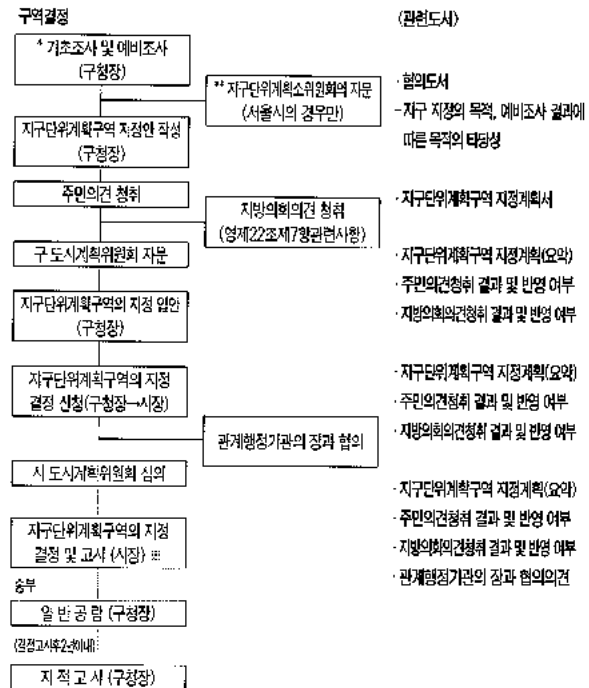


특별한 목적 및 의도가 있지 않으면 도로부만을 포함한 부분에 대하여 경계를 설정해서는 안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한다

1) 구역 결정의 프로세스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이므로 구역을 결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절차를 따른다.



- 구역의 면적은 10,000㎡ 이상을 원칙으로 목적에 적합한 규모를 설정하도록 한다. 단,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목적으로 보아 필요한 구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계선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기준으로 하거나 자연지형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판단의 기준	경계의 기준
정 형 화	용도지역
적 정 규 모	자연지형(구릉, 하천)
	도로
	공원, 등 시설
	기구의 배할선, 필지선

지구단위계획의 구역결정관련 도서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도시계획결정조서, 도시계획결정도, 계획설명서가 있다.

3단계 : 구역의 문제 및 과제를 파악한다

현황파악을 통해 구역의 과제 및 특성을 검토한다

구역의 현황과 전망 및 과제는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현황파악과 평가과정을 통하여 향후 지구의 발전방향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현행 지구내부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근거로 계획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다.

※ 현황조사의 중요성

- 현황파악은 기초조사를 통한 조사대상지의 개별조사항목별 현황을 바탕으로 하지만 단순한 개별조사항목은 항목의 나열이 되어서는 안되며 개별조사항목도 정량적으로 파악가능한 항목에 대한 것에 국한시켜서는 안된다. 현재 대부분의 현황파악은 지구현황

에 대한 정량적 자료의 집계에 치중하고 종합적이고 다양한 분석 또는 평가가 수행되기 보다는 개별적이고 단순한 정리에 그치는 측면이 있다.

- 현황조사를 위해서는 먼저 조사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예시〉 ○○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조사구역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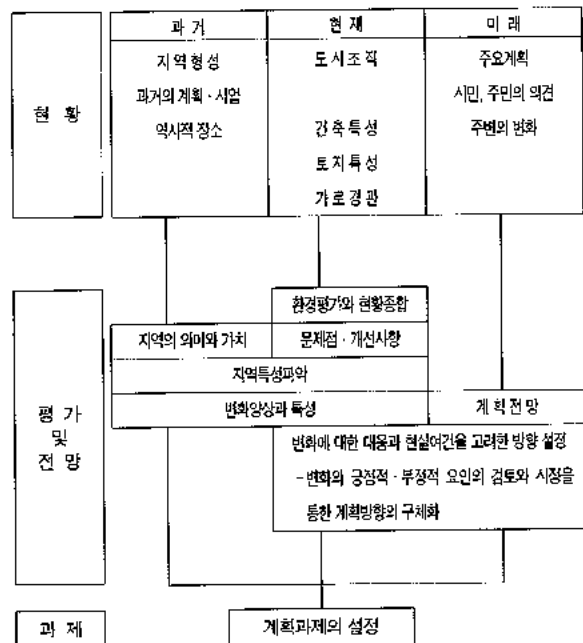
- 환경평가의 종합
- 변화양상과 변화의 특성
- 지역의 의미와 가치
- 계획의 전망
- 문제점 · 개선사항
- 지역특성파악

〈표〉 기초조사 내용 예시

분 류	세 부 분 류	현재	비 고	도시	지역	지구
1. 도시계획 현황	· 용도지역		d. 지구단위계획			
	· 용도지구		생활권 등 계획			
	·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 공공차량시설					
	· 상수도 현황	1인당급수량	보급률, 급수원정			
	· 하수도 현황	처리방식				
	· 도시가스 현황	보급률	가구수			
2. 교통현황	· 가로망 현황					
	· 보행 환경					
	· 대중교통현황	버스, 지하철	노선, 정류장, 배차			
	· 교통량 현황		시간당대수, 상하			
3. 자연현황	· 지형현황분석	지형, 식생, 수문				
4. 인문현황	· 인 구		가구수	세력권내인구추정, 배후영향권 특성		
5. 토지현황	· 지 목		필지수			
	· 필지규모		면적			
	· 소유		필지수			
	· 개발상태		면적			
	· 개발밀도	평균대지규모	면적			
	· 건축용도	전용용도	건물수	d. 다목적		
	· 건축층수	1층용도	면적			
6. 건축현황	· 건축층수		건물수			
	· 경파년도		면적			
	· 용 적 륜		건물수			
	· 건 폐 륜		면적			
	· 건축구조		건물수			
			면적			
			건물수			
총 합		평균건폐율	%			
		평균용적률	%			
		평균층수		d. 부정형필지		

주: 현황조사의 조사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5개(대림, 신림, 송파, 빙화, 강남구) 보고서를 선별해 살펴봄

지구단위계획의 과제를 도출한다.



4단계 : 계획을 구상한다

계획목표를 설정한다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는 현황, 문제, 변화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한다.

- 문제 및 향후 여건에 따라 도출된 과제를 지구별, 주제별로 정리한다.
- 지구별, 주제별 정리를 통해 계획목표를 구체화한다.

〈표〉 계획목표별 세부과제와 실현방법 및 예상

구분	계획 목표	세부 과제	예상되는 현황	가타(문제 및 조사)
토지 이용	적정개발을 유도한다.	- 필지의 세분화를 방지한다. - 대규모개발을 억제한다.	- 개발가능대규모필지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 동일한 지구 및 블록 내 필지의 규모차가 커서 대형필지개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 과소필지분포에 따른 토지이용효율저하 - 개발가능 대규모 필지의 계획적 관리 필요
	특정용도를 유지한다.	- 용도상황에 따른 적정 기능유치 - 개발규모의 확대를 유도한다.	- 소규모, 부정형 필지	
	업무기능의 도입을 유도한다.	- 주거와 업무의 복합화를 유도한다.		
	토지이용의 전환을 유도한다.			
	상업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주거환경을 보호한다.		-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의 혼재로 토지이용의 효율저하와 주거환경의 악화 - 주거지역내 노후불량건물이 있다. (주거지역의 주택건물은 신축건물과 노후불량건물 혼재) - 높은 지가로 인해 공공용지 확보 곤란	
	특정 용도를 유치한다	- 문화기능의 도입, 유치 문화공간의 조성 - 대학가의 상업일변도의 토지이용을 건전한 대학문화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의 다양한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 대학가의 토지이용이 상업일변도로 되어 있다. (문화관련기능의 전무)	- 학교와의 협의 - 건축주와의 의사타진
	상권의 정비 필요	- 시장재개발을 통한 상권형성 유도	- 재래시장의 시설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매상이 감소하고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 상권화 등을 주축으로 시장재개발의 움직임이 있다.	
	○○○사거리 주변 상업·업무 위주의 지구중심기능유치			
	거점개발유도	- 건축성 자질을 통한 공공용지 확보		

· 이 과정을 통해 각 지구별, 주제별 상충을 조정하여 계획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 계획목표에 따른 지구별, 주제별로 재검토과정을 통해 과제를 명확히 한다.

· 보다 명확해진 계획과제를 토대로 지구별, 주제별 과제를 재정리하고 대상 및 내용을 구체화한다.

- 계획목표의 주제별 내용 및 지구별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작성한다.

계획내용을 기술하는 방법은 주제별 계획, 지구별 계획, 부문별로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효율적인 기술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향후 만들어 가려 하는 최종적인 지구의 이미지를 만든다.

계획을 구상한다

■ 계획목표의 명확화와 구상단위의 검토

구역에 따라서는 지구로 나누어 지구별 계획구상이 가능하며 지구를 구분하는 단위는 불력 단위로 하거나 지역의 성격으로 구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계획의 구상은 계획목표 및 세부과제에 따른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법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실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지구의 골격을 이해한다 : 필지의 크기, 필지와 가로와의 관계 등 도시의 조직을 살펴본다.

■ 개발밀도를 검토한다 : 개발가능한 한계를 명확히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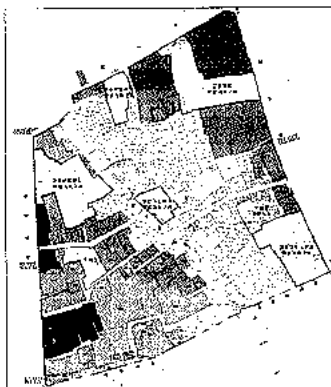
· 현 상태의 용적을 현황을 파악한다.

· 신축에 의한 용적률의 변화 추세를 검토한다.

· 법 및 건축여건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용적률을 추정한다.

· 비교사례를 선정한다.

■ 지구경관을 고려한다 : 지구경관을 고려하며 계획구상을 수행한다.



(그림)인사동지구단위계획의 특성지구의 구분과 지구별 계획구상 예시

구분		지구별 구상			
		A	B	C	D
민간부분 부문별 계획	대지	○	○	○	○
	용도	○	○	○	○
	밀도	○	○	○	○
	높이	○	○	○	○
	배치	○	○	○	○
	대지내공지의 외관	○	○	○	○
	동선 및 주차	○	○	○	○
	기타	○	○	○	○
	도로시설	○	○	○	○
	포장	○	○	○	○
공공부분 지구별 계획	공원녹지식재	○	○	○	○
	기공시설물	○	○	○	○
	주차터	○	○	○	○

계획구상을 구체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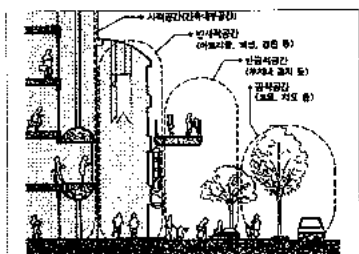
기본구상은 향후 부문별 계획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 세부과제를 바탕으로 이를 지역별 혹은 지구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각 과제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나타낸 토지이용, 경관정비, 교통처리 등 기본구상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계획구상의 구체화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민간과 공공간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 다양한 실현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여건에 따른 계획수준 및 계획수단간의 상충을 검토, 조정하여 적절한 제어수단을 선택한다.
- 과제와 관련한 다양하고 실현방법을 검토한다
- 검토한 실현방법을 지역여건에 맞는 실현수단을 선택한다. 즉, 적절한 제어수단을 선택한다.
- 계획요소간의 상충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 계획의 종합화를 통해 계획을 보다 단순화하여 운영상 효율성을 검토하여 정한다.
-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한다.

(1) 민간과 공공간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다루는 대상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반사적 영역과 반공적영역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2) 다양한 실현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여건에 따른 계획수준 및 계획수단간의 상충을 검토, 조정하여 적절한 제어수단을 선택한다.

■ 여러 가지의 실현방법을 검토한다

- 계획대상 및 해결과제를 검토하여 이에 따른 다양한 실현방법을 검토한다.

■ 계획의 수준을 결정한다.

- 먼저, 계획요소는 각 부문별로 규제의 강약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획상 차지하는 중요도에 따라 각 규제요소의 규제수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머지는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여 지역적으로 중점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한다.

■ 계획요소간의 상충을 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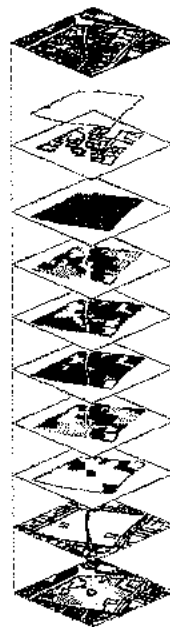
(3) 계획을 종합화하여 보다 단순화한다. 圖

■ 현 황

■ 구역지정

■ 계획구상

■ 계획수립



- 도시계획현황(용도지역)

- 대지에 대한 계획

- 건축을 용도에 관한 계획

- 건축을 밀도에 관한 계획(용적률)

- 건축을 높이에 관한 계획(용적률)

- 특별계획구역 등에 관한 계획

- 보차동선 및 한 계획(용적률)

- 계획종합

「건축사 특별 검사원 제도」란 기고를 읽고

After Reading the Feature on "Architect's Special Examiner System"

이봉춘 / (주)비전건축사사무소

by Lee Bong-Choon

건축사지 2002년 12월호의 최찬환 교수 기고문 중 일부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의 견해를 밝힙니다.

이는 문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으로서 향후 바른 방안을 찾기 위함으로 달리 논지를 폄하하거나 힐난코자 함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필자주)

먼저 '특별 검사원 제도는 무엇인가'에서 건축법 제23조를 적시하며 '건축 허가된 건축물의 완공된 후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제3의 등록 건축사로 하여금 특별검사원으로 지정 업무를 대행케 했다.'라고 하며 '특별검사원 제도의 목적은 건축주 건축사 시공자간의 중략 건축부조리를 적결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건축법 23조)'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한 건축법 23조 어디에도 특별검사원이란 용어는 없으며, 또한 건축 부실과 부조리 척결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조항도 없다. 건축법 제23조는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에 관한 모법으로서 내용을 보면 그 업무를 대통령령에 따라 대행할 수 있게 한 것과 대행 업무시의 보고 방법 그리고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3개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 검사원을 건축법 23조의 대행자와 등치시켜 마치 특별검사원이 업무 대행자인 양 용어를 섞는 것은 곤란하며 본말의 전도다. 주지하다시피 건축법 23조에는 사용승인 뿐만 아니라 설계자가 직접 행하는 건축허가의 대행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물론 기고문에서 보듯 논거가 서울시의 특별 검사원 제도에 관한 토론회 국한되어 있고, 특별 검사원이 업무 대행자로 일부 상징되기도 해 언뜻 이해하며 넘길 수도 있다. 그러긴 해도 모호한 용어의 선택은 독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문제의 핵심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본질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잘못 채워진 첫 단추는 뒤이은 부분들을 모두 뒤틀리게 하는데 '제도 도입 배경'에서도 헛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건축 관련자와 공무원의 연결고리를 끊는 부조리 척결을 제도 도입의 주된 배경으로 삼는 것도 그러하거나 기고문 내용 중 「서울시에서 제도 시행을 위해 중략 특별 검사원 제도를 도입한 것이며, 서울시가 건교부에 건의하여 제도화되어 시행하고 있다.」라는 대목 역시 서울시에서 건의하여 제도화된 것이 건축법 23조 상의 대행자인지 아니면 특별 검사원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설혹 그 중 어느 것이 되었든 서울시 건의를 받아 건교부에서 제도화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안 된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건축법 23조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은 1999년 시행령과 조례에 의한

특별 감사원 제도가 생겨나기 훨씬 전인 1992년 건축법 개정 시 법률로 도입되었다.

그 뒤 모법 조항은 크게 변하질 않았으나 시행령은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특히 1999년 5월 개정된 시행령에서 건축허가와 사용검사 시 설계자 및 감리자가 직접 행하던 대행 업무를 문제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제3의 등록 건축사가 하도록 바꾸었다. - 다시 얼마 후 건축 허가는 설계자 본인으로 환원되긴 했지만, - 당시 개정 사유를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렵겠으나 씨랜드 화재 사건 등에서 나타난 문제로서 설계 감리자 본인이 직접 대행 업무를 함으로서 부실하고 엉터리로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간주, 제3의 등록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며, 그에 준하여 각 지방 자치조례가 개정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위 특별 감사원 제도 역시 서울시 조례를 근거한, 다시 말해 건축법과 시행령의 여줄거리인 조례의 한 운용방법일 뿐이다.

한편 업무 대행자 혹은 특별 감사원 제도를 부실 방지와 공무원의 부패 부조리 척결에 목적을 두고 있는 부분도 그렇다. 물론 제3의 대행 건축사 내지는 특별 감사원 제도가 불법 부조리 척결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는 있으나 법23조의 입법 배경은 당시의 행정조직의 축소라는 정부정책의 큰 틀과 전문업무의 민간이양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가 공무원이 행하였던 업무이긴 하지만 공무원이 공무원만 집행해야 할 고유 업무라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특검제의 운영과 문제’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며, 특히 특별감사원의 감사행위 중 발생한 과실을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굴레를 씌워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징벌을 하는 거나 턱없이 모자라는 수수료 및 검사 처리시간 등은 당연한 지적이다.

다만 대행 수수료의 개선 방안 중 ‘특별 감사원 제도는 공무원의 당해 업무를 위탁 대행하는 것이어서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비용을 현실화하여 지급되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주가 건축허가 수수료의 형태로 부담하는 형식이나 감리비에서 부담하는 방식 등 수익자가 부담하는 원칙이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공무원의 공적 업무를 대행했다면 그 인적 비용만큼의 정부 예산에서 책정 지급되어야 하며 수익자 부담이라는 원칙에도 맞다.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임으로 한시적 운용이라면 그 이후의 대안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혹시 고유업무란 맥락으로 공무원에게 업무를 환원하자는 건지가 공금하다.

마지막으로 ‘건축사와 공무원과의 역할관계, 건축사 상호간의 감사자와 수검자 위치에서 마찰과 갈등으로 발생하는 상호불신, 그리고 건축사가 민원행정의 혼탁한 과정에 노출되어야 하고, 이를 부닥쳐야 한다면 건축사의 금지와 자존심을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위상이 크게 손실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맺고 있다.

물론 그 어떤 제도도 모든 것을 탈없이 아우를 수 있는 완벽한 제도는 없다. 이 제도 역시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업무 시의 범위와 확인 결과에 대한 건축사 상호 마찰과 갈등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다만 그 시행을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응하도록 여건을 갖춘 뒤 원만한 운용을 한다면 꼭 그렇게 비판적이고 회의적이지만은 아닌, 오히려 위상과 금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업무대행에 관한 건축법 23조가 법률로서 발효된지도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착근되지 못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원래의 취지와 목적이 왜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에선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누차 언급한 수수료 문제 등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이 안된 것이 한 원인이겠지만 그간 중앙 정부의 의지결여와 사후관리 방기 그리고 각 지자체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소홀과 소극적 대처 등이다.

뿐만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이해 관계 등이 얹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어물쩍하게 두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긴 해도 업무의 민간 이양이라는 당초의 목적이 부정되고 다시 과거로 회귀되어선 안 된다. 그 업무를 위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지만 국가 시책의 퇴행으로 혼선과 혼란을 가져 올뿐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업무 대행자를 공무원의 조력자로 인식되거나 그 옥하옥(屋下屬)이 되어선 안되며, 건축사가 주체자로 본연의 업무라는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더하여 건축사 스스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연히 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민간이양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고 건축사의 위상과 전문인으로서 금지와 자금지침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론 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문인으로서의 역할 고취로 우리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건축계소식 / 83

현상설계 / 88

해외잡지동향 /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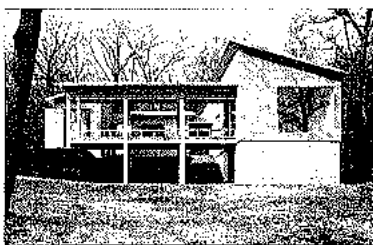
법령 / 102

2002총목차 / 104

건축계소식 archi-net

2002 아카시아우수건축상 발표

단독주택부문/미제루(방철린),
리조트부문/교원그룹게스트하우스(조남호)
금메달 수상



미제루



교원그룹게스트하우스

아카시아(ARCASIA: Architects Regional Council)는 지난 2002년 12월 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건축사회의에서 아카시아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2002아카시아우수건축상은 부문별로 금메달 7작품과 장려상 5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단독주택부문(카테고리A-1)에 「미제루(방철린/인토종합건축사사무소)」와 리조트건축부문(카테고리B-2)에 「교원그룹게스트하우스(조남호/솔토건축사사무소)」가 각각 금메달을 수상하였다.

아카시아 상은 아시아의 훌륭한 건축작품들을 알리고, 그와 동시에 아시아의 정신을 유지하며, 아시아 건축환경의 발

전과 향상을 장려하고, 사회·경제·문화에 있어서의 건축과 건축사의 역할을 알깨우기 위해 1992년 제정되어 격년제로 시상하고 있다. 심사는 Dr. Earl Lu, Ar. Harold Guida, Ar. Chang Yung Ho, Ar. Syed Zaigham Shafiq Jaffery, Ar. Alfred Wong, Ar. Fung John Chye 등이 맡았다.

〈수상작현황〉

Category : A-1 Single Family Residential

Award : Gold Medal

Architect : Chul Lin Bang

Project : Mijeroo

Category : A-2 Multiple Family Residential

Award : Gold Medal

Architect : Kazuhiro Kojima

Project : Space Blocks Kamishinjo

Category : A-2 Multiple Family Residential

Award : Honourable Mention

Architect : Anothony H. H. Ng

Project : Tung Chung Crescent

Category : B-1 Commercial Buildings

Award : Honourable Mention

Architect : Hu Shao Xue

Project : Architectural Design & Research
Institute Tsinghua University

Category : B-1 Commercial Buildings

Award : Honourable Mention

Architect : Look Boon Gee

Project : 5 Gemmill Lane

Category : B-2 Resort Buildings

Award : Gold Medal

Architect : Nam Ho Cho

Project : Kyowon Group Guest House

Category : B-3 Social / Institutional
Building

Award : Gold Medal

Architect : Ajaphol Dusitanond

Project : Our Lady of the Martyrs of
Thailand Shrine

Category : B-3 Social / Institutional Building

Award : Honourable Mention

Architect : Salf Ul Haque

Project : Gourango Gunalankar Hostel

Category : B-4 Special Buildings

Award : Gold Medal

Architect : Grant Brooker & Ar Mouzhan Majidi

Project :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Passenger Terminal

Category : C, Industrial Buildings

Award : Gold Medal

Architect : Chee Kok Weng

Project : AVMK Auto Point

Category : D, Conservation Projects

Award : Gold Medal

Architect : Joanne Tan

Project : Chijmes

Category : D, Conservation Projects

Award : Honourable Mention

Architect : Maria Jose Do Carmo de Freitas

Project : Architectural Renovation of 5 Villas on Taipa Island

2003 하우징페어 상해

3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중국 상해전람중심에서

e하우징과 경향신문 그리고 중국의 Royal Dutch Jaabeurs China · Keylong Exhibition Service에서 주최하는 「2003하우징 페어 상해(Housing Fair Shanghai 2003)-제 10회 중국빌딩 및 건설박람회(10th China Building & Construction

Exposition 2003)」가 오는 3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중국 상해전람중심(Shanghai Exhibition Center)에서 열린다.

- 출품대상품목: 주택 및 건축기자재(구조재, 창호재, 내외장재, 냉난방기자재, 방수 및 단열흡음재, 도장재, 급수위생 설비재, 조명 및 전기설비, 가정자동화, 가구인테리어, 금속재 등), 건설장비 및 건축공구, DIY제품 · 실내조경 및 설비시스템
- 출품자격: 건축 · 주택자재 생산업체, 건설장비 및 공구업체, 주택건설업체, DIY제품업체, 인테리어 및 소품, 가구 및 비품업체
- 신청기간: 2003년 2월 26일(선착순, 출품신청은 소정양식에 의함)
- 접수처: 서울시 중구 정동 22 경향신문사 12층 2003하우징페어 상해 사무국(02-3701-1600, 732-2580)

제12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

오는 4월 30일 마감

김태수 건축여행 장학재단에서 해외건축 여행기금으로 미화 \$10,000을 수여하는 제12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장학제(T. S. KIM Architectural Travelling Fellowship)를 개최한다. 한국의 젊고 유능한 건축가에게 교육과 해외건축여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조성된 이 기금은 수령자 본인이 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 목적이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자격요건: 만35세 미만의 한국에서 건축학위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단,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은 자)
- 선정방법 및 제출자료
 - 제출된 포트폴리오 심사후 예선 통과

자 선정

- 예선 당선자는 여행 목적 및 계획을 재단에 제출하고, 2차 면접심사를 거친 후 최종 수상자 1명을 선발
- 접수마감: 2003년 4월 30일까지
- 문의 및 접수처: 맥스트랫(신종환 소장, 02-569-1536)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6-5 로프트 빌딩 3층1호 (주)맥스트랫 內 "김태수해외건축여행장학제" 담당자 앞 (신청서 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TSKAF.ORG 를 참조)

2003 한옥문화원 강좌 수강생 모집

한옥짓기 실습

한옥문화원의 겨울 집중강좌로 한옥짓기 실습이 1월 18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된다. 목재를 사용하여 축조된 집을 직접 지으면서 한옥의 조형원리에 대한 이해와 한옥구조와 기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이다. 한옥 이론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전공자, 한옥의 구조와 짜임에 관심 있는 건축실무자, 집을 지어 보고 싶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강사는 신영훈(한옥문화원장), 이광복(대목장, 영국박물관 한영당, 보탑사, 학사재 등 참여), 정삼용(한식목구조 기능인)으로 구성되며, 실제 목구조 3칸 5량집을 1/2크기로 하여 축부재 및 서까래, 추녀까지 제작한다. 강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강의장소는 한옥문화원 강의실 및 태능 실습장이다. 문의: 02-741-7441 www.hanok.org

- 1월 18일/집이란 무엇인가, 한옥의 영조법식(강의실)
- 1월 25일/한옥짓기요 기법과 도구 및 사용법, 기둥 바심질, 서까래 치목
- 2월 8일/기둥 바심질, 서까래 치목

- 2월 15일/도리, 장어 바심질
- 2월 22일/보, 추녀, 평고대, 목기연 치목
- 2월 28일/보, 추녀, 평고대, 목기연 치목
- 3월 1일/축부재 및 추녀 걸기
- 3월 2일/서까래 걸기, 박공, 합각 마무리

건축설계하는 사람들 자존심 찾기 운동

건축설계 및 감리품토개선을 위한
전국 건축설계인 실천연합(건개연)에서

건축설계 및 감리품토 개선을 위한 전국건축설계인 실천연합(건개연)이 건축설계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찾기 위한 실천운동'을 시작하였다. 건개연에 따르면, 이 실천운동은 건축설계인 스스로의 의식개혁운동을 통해 불합리한 건축품토를 개선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하려는 취지로 지난 4월 최영집(탐건축)회원의 발의로 시작된 전문가 연대운동으로 건축계의 자발적인 정신운동을 표방하고 있다.

건개연은 '계획설계 무료서비스 거부', '부당한 설계경가 거부', '설계감리대 가기준 준용', 감리문제 개선'의 4가지 사안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1인의 건축사가 10인의 동의를 받자는 '건축설계인들의 풀뿌리 서명운동' 등을 통해 건축인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는 의식적으로 깨어 있는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지금의 작은 현실부터 고쳐나가기려 한다면, 시민운동의 성공을 통해 건축문화 부흥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건개연의 기본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건개연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꾸준히 시정, 촉구하는 등 올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등

을 통하여 인터넷 상으로도 이 운동을 확산하고 있다. 특히, 건개연은 별도의 조직없이 펼쳐나가고자 하는 단순한 정신운동이며, 집단 이기주의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국적인 차원에서 설계품토를 바르게 개선하고자 하는 의식운동임을 강조하고 있다.

문의: 02-2214-3521

www.archi-kara.net

2002 예총예술문화상

건축부문에
강건희(홍익대 건축과)교수 수상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이성림)는 지난해 12월 9일 2002년도 제 16회 예총예술문화상 수상자로 건축부문의 강건희 홍익대학교 건축과 교수를 비롯하여 총 18명을 선정했다. 이 상은 매년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예술인에게 수여되고 있다.

한국 여성건설인협회(가칭) 출범

초대회장에 김혜정(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건축, 토목, 조경, 인테리어, 환경 등 건설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건설인들의 권익보호와 참여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여성건설인협회(가칭)'가 구립 26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명

지대 건축학과 김혜정 교수를 초대회장으로 추대하고, 정부 프로젝트의 여성비율할당제 및 건설관련 여성기술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제휴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원자격은 해당학과 졸업자 가운데 실무와 연구경력이 7년 이상 되는 여성건설인으로 제한하였다.

2003년 건축환경·설비분야 발전을 위한 세미나

1월 24일 대한건축학회회관에서

대한건축학회가 개최하는 2003년 건축환경·설비분야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1월 24일 오전 10시 30분 대한건축학회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세미나에서 이언구 씨의 '국내외 건축환경·설비분야, 김광우 씨의 '건축환경·설비분야의 학문적 영역' 발표가 있는 후 유호천 씨는 '한국 공학인증원의 건축환경·설비분야'를, 태원진 씨는 '5년제 건축학 분야의 건축환경·설비분야'를, 안병욱 씨는 '2, 3년제의 건축환경·설비분야'를 각각 발표한다. 이외에도 토론시간이 계획되어 있다.

문의:(사)대한건축학회

www.aik.or.kr

대림미술관 '베를린, 도시의 변화' 전

2월 24일까지

대림미술관에서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2월 23일까지 베를린, 도시의 변화 전을 전시하고 있다. 이 전시는 기억과 미래 사이를 오가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왕성한 변화를 거듭하며 움직이고 있는 도시 베를린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전이다. 위대했던 과거, 분단이 남긴 상흔들과 지금은 거의 지워져 버린 베를린 장벽의 이미지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는 희망찬 의지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는 베를린의 자유분방한 영감과 생명력 넘치는 구성구석을 예술가의 카메라로 잡아낸 것이다. 그래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버려졌거나 혹은 변경된 장소에 대한 세세한 기억까지도 모조리 고집어내서 솔직하고 냉정하게 현재의 베를린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미래의 새로운 베를린을 모색하고 있다. 모두 기록적 사진들이지만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 규정지을 수 없다. 커다란 캔버스의 화려한 색채로 그려진 회화 작품을 연상케 하는 조형적 사진과 이미지의 개념적 성향이 강하거나 분석적 요소가 돋보이는 사진 등 오늘날 사진의 다양한 장르들을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2-720-0667

제6회 강구조건축물 설계공모전

3월 28일까지 참가신청

- 주제: 정보도서관
- 강구조 특성을 고려한 21세기 정보도서관
- 지역주민의 교양 고취 및 정보교환을 위한 공공장소
-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시설 구현
- 참가자격: 대학, 대학교, 대학원 건축 관련 학과 재학생으로 개인 또는 3인 이내 공동 작품
- 참가신청: 2003년 3월 24일~3월 28일
- 작품접수: 패날-2003년 6월 26일~6월 28일
- 모형-2003년 7월 7일~7월 10일
- 접수장소: 포스코 센터 서관 4층 아트홀
- 심사: 2003년 7월 3일(예비심사), 7월 11일(본심사)
- 시상 및 전시: 2003년 7월 22일~7월 30일
- 전시장소: 포스코 센터 1층 로비
- 주최: 한국철강협회
- 후원: 대한건축학회
- 협찬: POSCO, INSTEEL, 동국제강
- 문의: 02-559-3586

www.kosa.or.kr

건축가미술전

우리협회 1층 전시장에서

건축가미술동호회(회장 조성렬)에서 주최하는 제11회 건미전 전시회가 2003년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 우리협회 1층 전시장에서 열린다.

문의: 02-873-2020

(이공건축 이관직소장)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9071 · 강동구건축사회/49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8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6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6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888 · 노원구건축사회/3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6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9-9158 · 양천구건축사회/634-6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9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9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9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6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0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목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6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9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970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68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3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5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8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9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8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9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8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0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시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94)733-5501

Korean Architect 2003 01 087

국립부산국악원

Busan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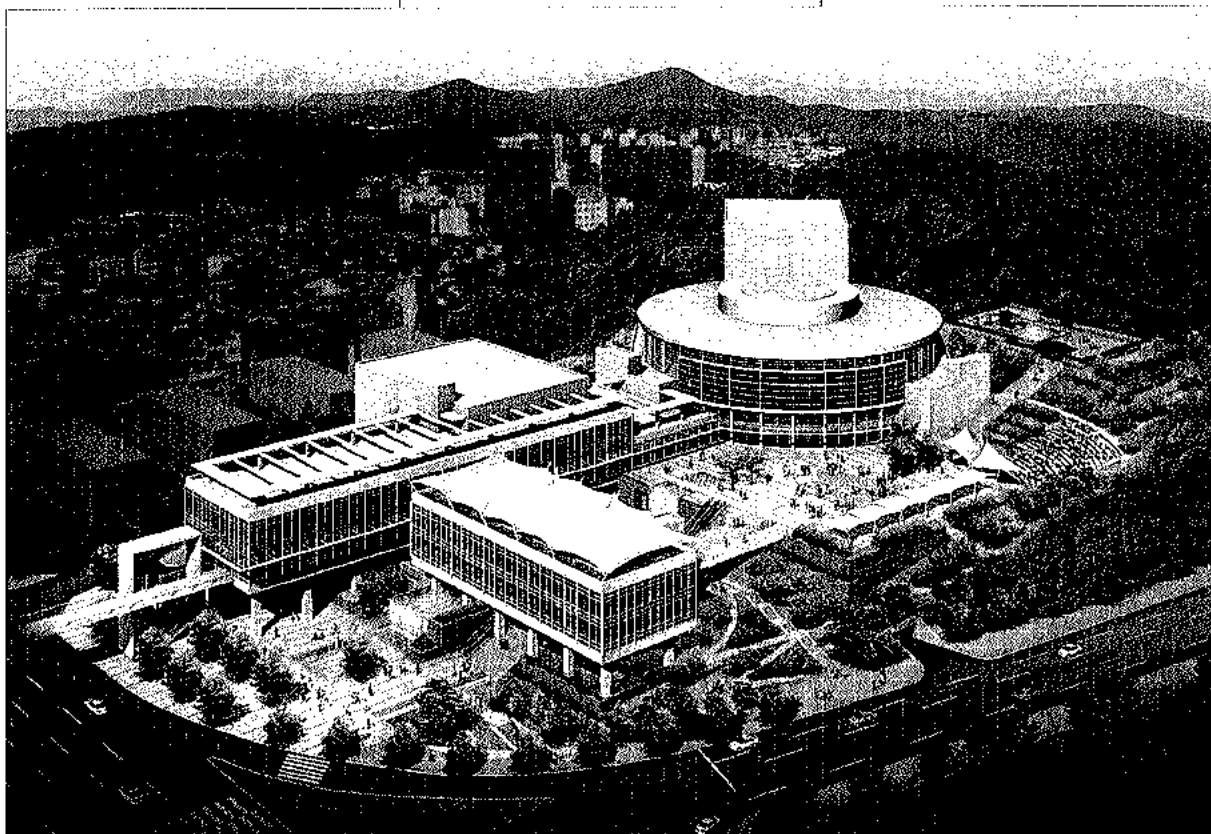
▶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류춘수) + (주)원양건축사
사무소(이종찬)

대지위치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 219-2 번지 일원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19,900.77㎡
건축면적	6,462.65㎡
연면적	17,149.93㎡
조경면적	2,388.09㎡
건폐율	32.47%
용적률	61.05%
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주차대수	140대

설계팀 나한진, 성진웅, 이준배, 김동진,
장성욱, 천홍철, 김진영, 신영근,
박근우, 장순택, 김영진, 김유진,
김하영, 김대홍, 손기선

부산 국악원 현상설계의 당선은 정말 뜻밖
이다. 10여년 전 영등포 구민회관이나 김
포공항 지하철역사 현상설계 당선 당시만
해도 내 작품이 좋으니까 당선되었다는 믿
음이 있었고, 실로 그때만 해도 현상설계
는 건축가들에게 페스티벌의 향수가 남아
있었다.

그 후 공공 프로젝트는 설계사공 일괄도금
터키설계로 바뀌었고, 특히 사공사들의 치
열한 로비는 현상설계를 흔탁하게 만들었
고, 심사후보 교수들을 함들게 하며, 일부
는 타락시켰다. 도대체 터키 현상설계에서
왜 엔지니어링 시스템이 설계당락의 변수
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엔지
니어링 시스템은 주어진 기준에 의해 실시
설계시 반영되면 그만인데 이것이 작품의
당락을 결정하는 현재의 터키심사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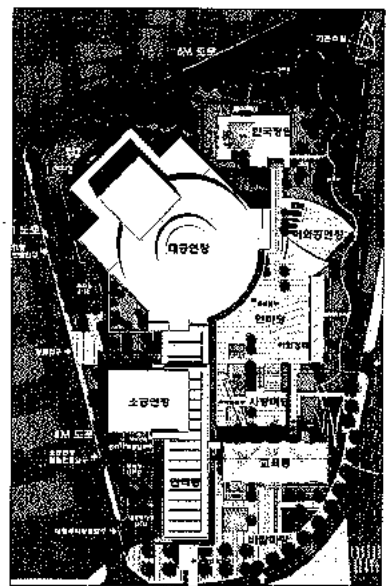


4년 전 98년 서울월드컵경기장 탄기현상 당선 이후 몇몇 탄기 설계에 참여했지만 당선은 해본적이 없다. 탄기 현상은 떨어져도 기본비용은 받는데 반해, 경쟁은 몇 배나 치열하고 비용만 드는 일반 현상설계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게 현실적인 부담이었다. 몇몇 지인들의 권유로, 가벼운 마음으로 던진 스케치가 당선되었다니 뜻밖의 기쁨이지만 작품은 지금부터 라고 생각한다. 원양건축은 남도 국악원 현상설계에 당선된 바 있어 노하수가 축적되어 있었다. 훈련된 스태프 우리보다 낫다는 판단에 함께 작업하기로 했던 것은 너무 잘한 결정이었다. 순수공연장 설계의 경험이 일천한 나로서는 지금부터 공부하며 다듬어야 한다.

계단광장 아래 부속기능을 넣고 곡면 지붕까지 광장으로 연결시킨 어느 젊은 건축가의 안이 당선되었다더라면 좋았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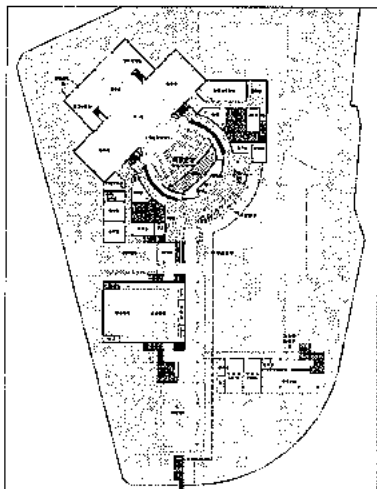
순위권 밖이라 안타깝다. 문제는 빼어난 작품도 사실은 영국 AA스쿨을 중심으로 한 현재 유럽의 젊은아들이 그리는 일종의 유행성 조형이라는 것이다. 그리 창조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은 가파른 경사지 땅이 한눈에 들어오는 서구식 광장이 아니라 점입가경의 계단식 마당의 연결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어릴 때 소풍가곤 했던 고향 근처의 부석사처럼, 긴 진입 축을 따라 계단을 오르면 마침내 숨어 있던 무량수전이 안양문 누각 아래로 축을 뿜어내며 나타나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누하 필로티와 축, 기단과 마당을 잇는 계단, 그리고 대지 맨 꼭대기 아마 부분을 비워 전통공간을 만든다는 외부공간 개념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으나, 건축의 조형과 상세는 지금부터 새로 다듬어나갈 것이다. 결과는 부산의 자긍심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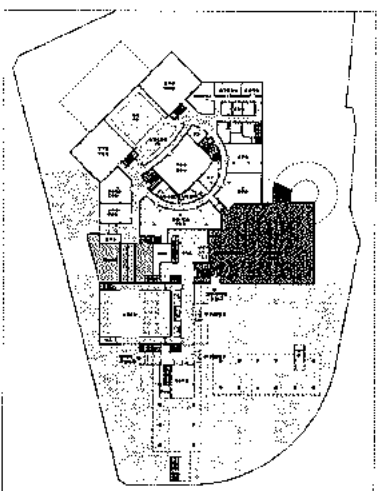


배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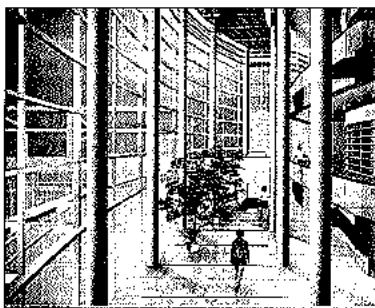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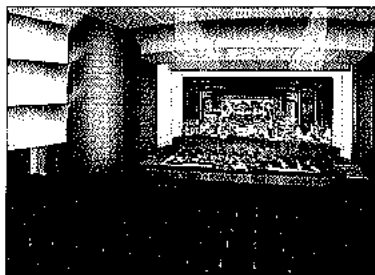
일 건축이 되도록 할 것이다. 기회가 주어졌으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글/류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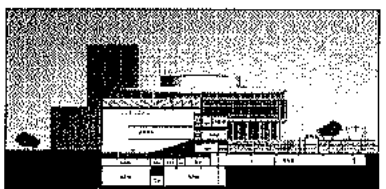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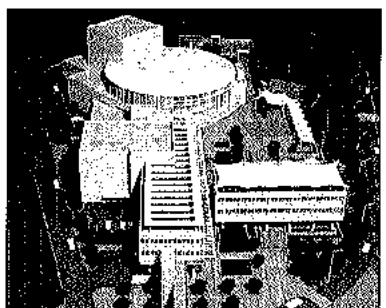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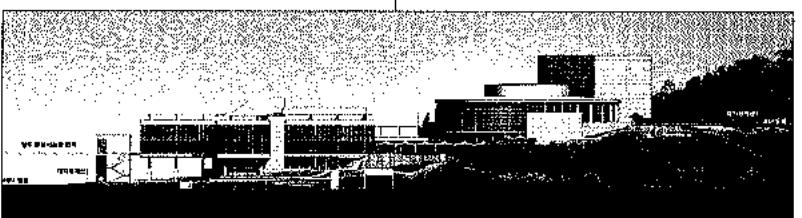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단면도



단면도



입면도

▶ **우수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오봉석·윤수현) + 황희준
(한양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219-2일원
대지면적	19,900.77㎡
연면적	16,734.0㎡
용적률	84.08%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용도	대공연장, 소공연장, 관리/교육 연구시설
외부마감	석회화 대리석, 복층유리, 알루미늄 늪 루버
주차대수	155대
조경설계	인터조경
모형	녹색지대
C.G	에이존
설계팀	엄주원, 조철희, 김민술, 장영우, 이광운, 임숙희, 강성한, 홍영화, 김태웅

부산권역의 국악연구 및 교육의 중심센터로서, 국악전용공연장을 통한 수준 높은 국악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악관련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문화예술의 공간창출을 목표로 계획하였다.

도시적 맥락(Urban Context)

지역사회에서의 상징성, 문화적인 중심성, 교통의 편리성, 야간이용의 적절성, 부산의 중심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축(Axis)

대지의 장·단변을 구획하는 방위축(자연축), 도시질서에 부합하는 건물축(도시축), 대지 남측의 진입공간 및 향후 하이라이부대의 종합문화개발로 연계되는 보행축(문화축)을 설정하였다.

스카이라인(Sky-line)

대지 남측에서 북측으로 진입시 상승하는 대지레벨에 따른 스카이라인 형성으로 도입부-전개부-중심부-결말부로 연결되

는 전개과정상 전통공간의 도입하였다.

Vista /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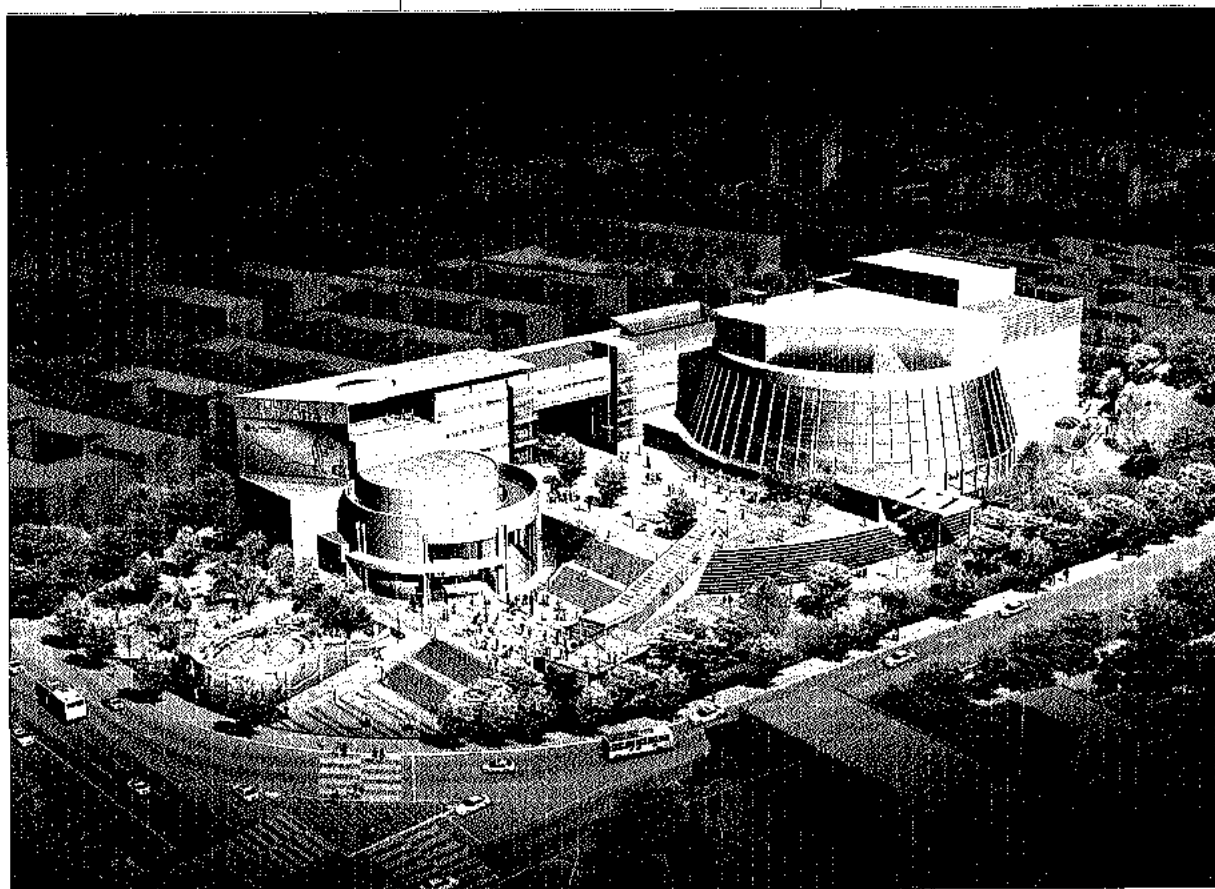
도시경관 제고 및 공연장의 주공연 시간이 야간이므로 주변경관 및 건축물의 조명을 통해 공공성을 표현하여 도시경관의 필요성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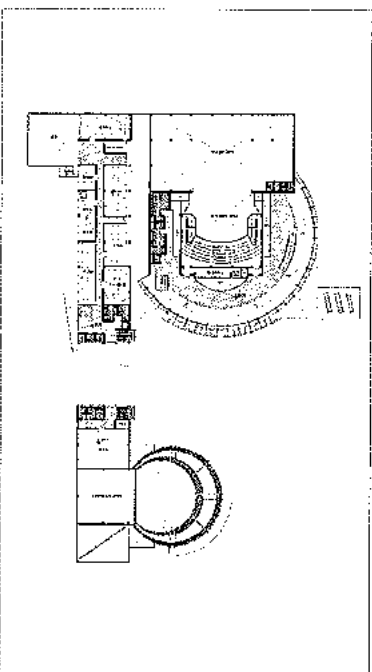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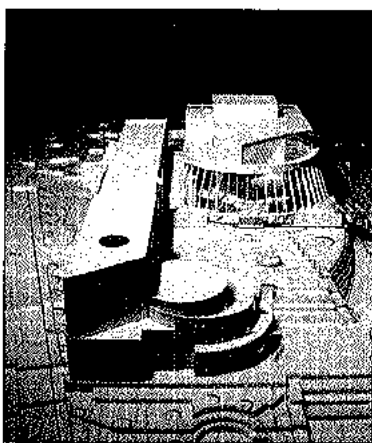
Mass계획

국립부산국악원의 중심형태로서 대공연장, 독특한 이미지를 갖는 조형성 있는 건축물인 소공연장, 동일 매스안에서 연계시설을 Atrium으로 연결하여 개방감 및 개성적 공간연출을 한 관리/교육동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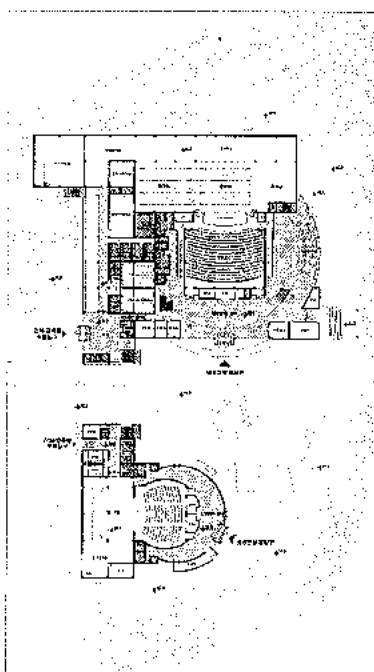
기능배치계획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로비는 별도의 영역을 확보하고, 관리/교육동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을 연결하는 브리지(Bridge) 형식의 공간구성을 취하고, 대지내 중심부인 국악마당에서 각 공간별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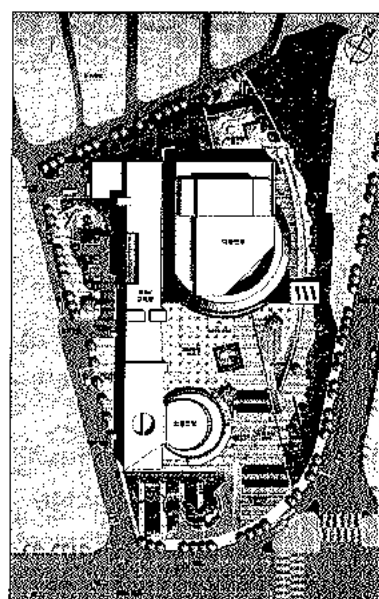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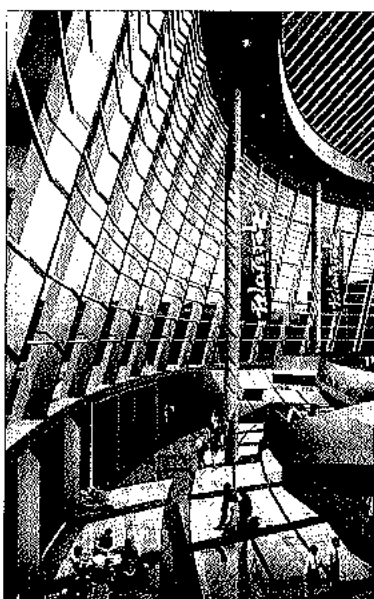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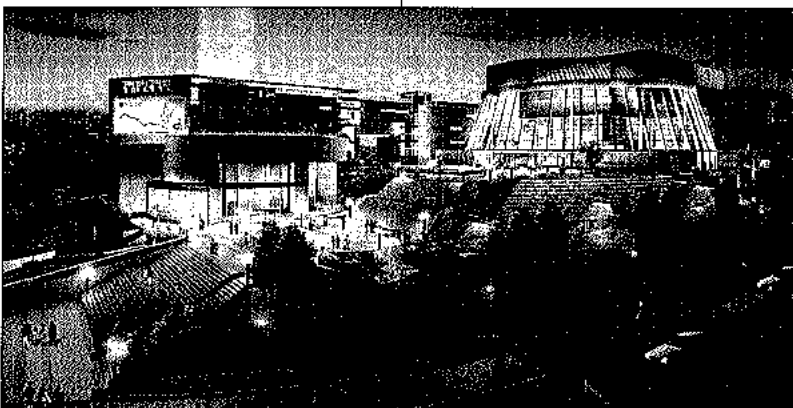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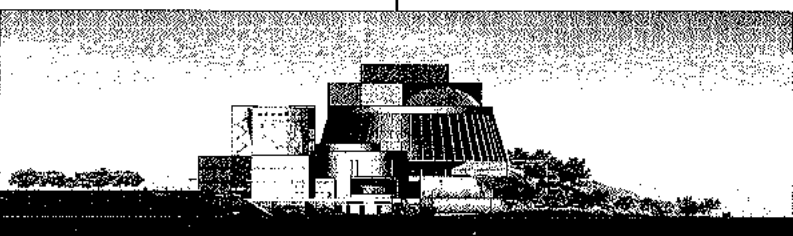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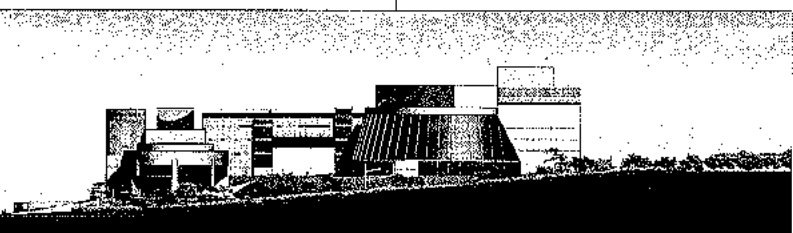
배치도



서측면도



남측면도



동측면도

국립생물자원관

National Biological Resource Center

▶ 당선작 / (주)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 (이영희 · 정영균)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시인
(김용권)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수도권 매립지 2-1공구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67,016.00㎡(약 20,272.43평)
건축면적	13,052.00㎡(3,948.00평)
연면적	30,294.00㎡(9,164.00평)
건폐율	19.48%
용적률	43.50%
조경면적	30,487.00㎡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주차대수	173대(장애인주차 13대 포함)
설계팀	금두연, 조성웅, 김도형, 진윤정, 오창선, 김경춘, 방기진

계획개념

- 수장시설, 연구시설, 교육/전시시설로 구분되는 각각의 공간은 마치 DNA의 이중나선구조처럼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하면서 중심축을 통해 다른 영역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며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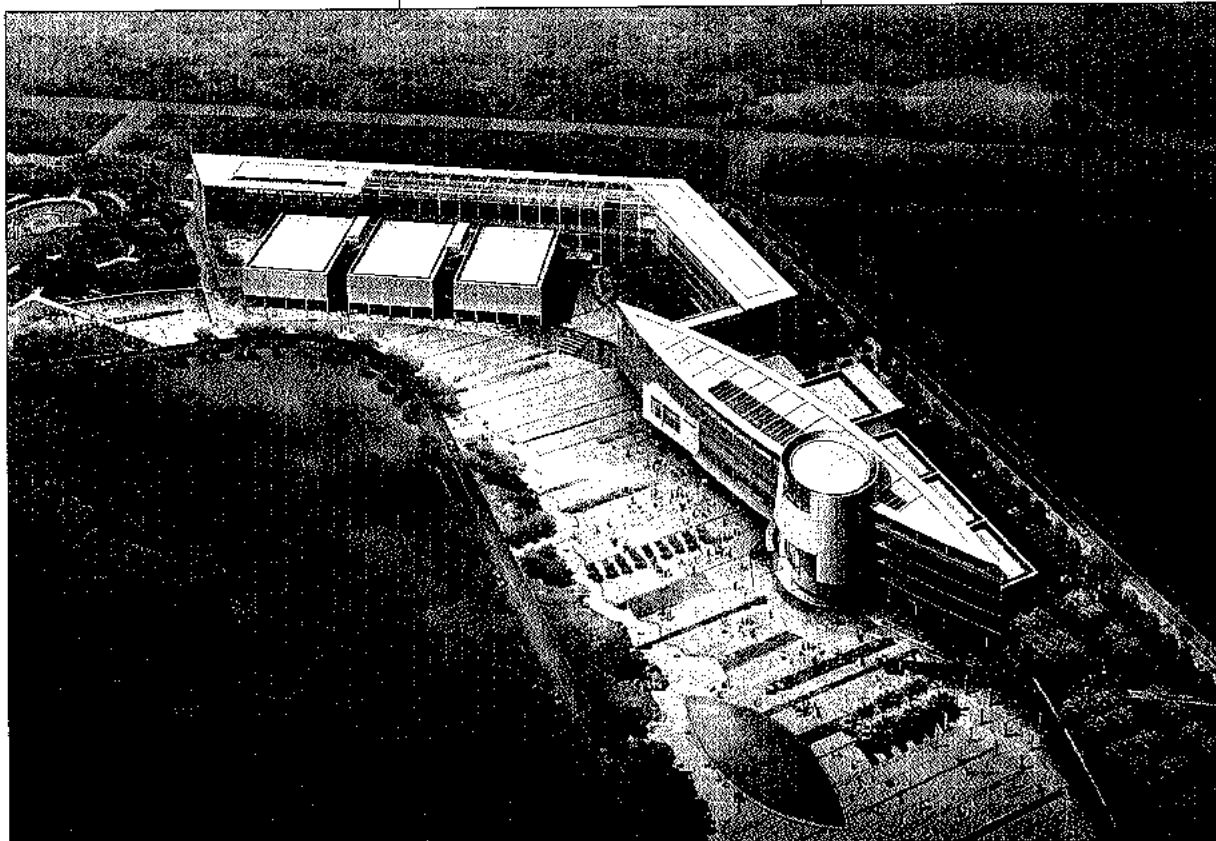
디자인개념

- 건물 디자인에 도입된 유기적인형태, 즉 교육, 전시등의 식물의 잎사귀(Leaf)를 형상화한 전시동 매스나 전체 매스의 중추에 해당하는 수장동의 척추(Spine) 형태 등을 통해 건축과 자연이 융화되어 하나의 생물체로 인지될 수 있는 디자인 추구
- 환경부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자연 생태를 적극 활용한 옥외공간 조성하고자 물의 정원, 들의 정원, DNA염기배열을 형

상화한 진디불력을 활용한 광장의 패턴, 녹의 정원 등을 다양하게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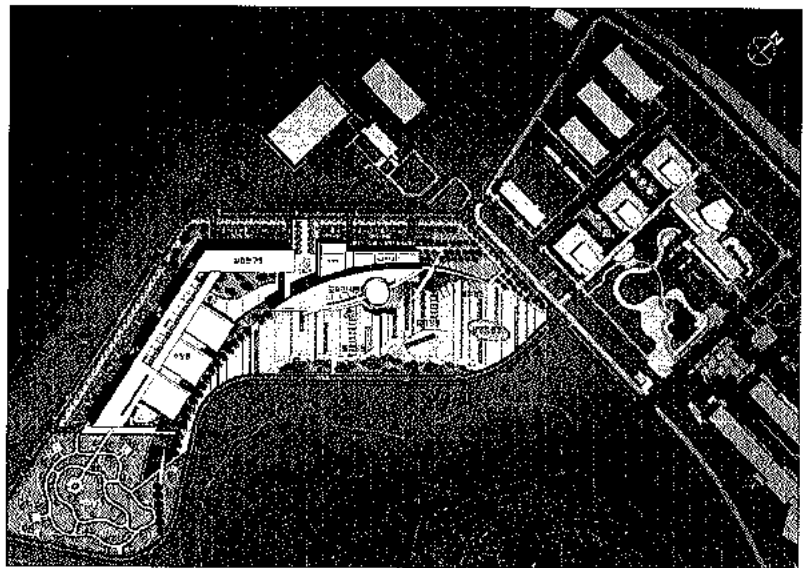
배치개념

- 본 계획안은 일반 관람객이 사용하는 교육/전시동(상설 5개실, 기획 1개실)과 직원 및 연구원이 사용하는 실험 연구동, 그리고 수장동 등 크게 3가지로 구분
- 약간의 인위적 경계 요소를 활용하여 Security Zone을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를 위해 수공간을 활용한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하였으며, 주차장을 사용자의 부류에 따라 분리 설치
- 우선적으로 정문에서 인접한 곳에 일반 관람객의 영역인 교육, 전시동을 배치하고, 소음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수장동을 고속도로에 인접시키고 그 중간 영역에 실험 연구동과 관리동을 배치
- 일반 전시관의 수장-전시-관리로 이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수장-연구실험-관리-전시로 이어지는 개념을 도입하여 생물자원의 영구 보존공간으로써의 수장 개념을 확립
평면계획
- 본 계획안의 핵심기능인 수장동은 각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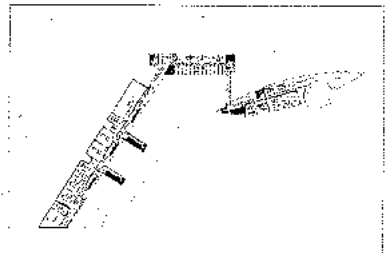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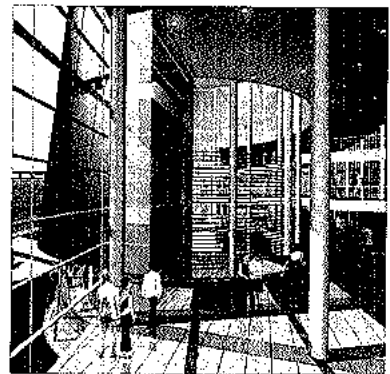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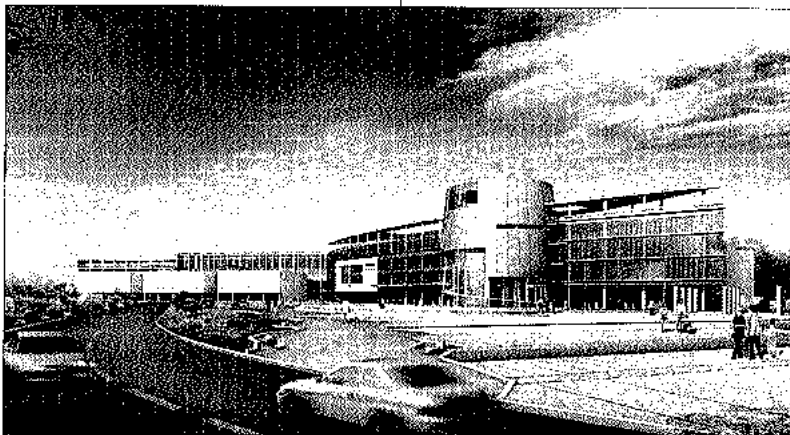
본의 반입과 수장절차에 따른 효율적 평면구성은 물론이며, 표본 보관에 따른 특수환경을 구성하기위해 각각의 공조실을 별도로 설치

- 교육, 전시동은 1,2층에 5개의 상설전시실 및 로운다형태의 기획전시실을 계획하였고, 3층에 교육, 4층에 관리기능으로 계획하여 각각의 영역을 수평적으로 분리
- 1층에 위치한 600석 규모의 대강당의 주기능은 관람객의 영상교육의 장소로 활용되고 V.I.P.나 장애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대강당과 실험연구동 사이에 드롭오프존을 설치하였고, 메인 홀은 단체 관람객의 원활한 동선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 확보
- 연구실험동은 연구실의 채광을 고려하여 남향배치를 하였으며, 북측에 실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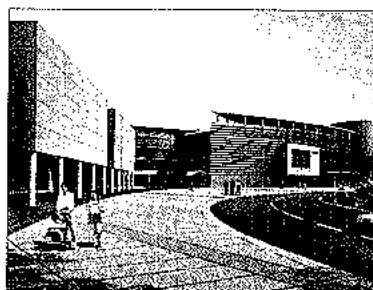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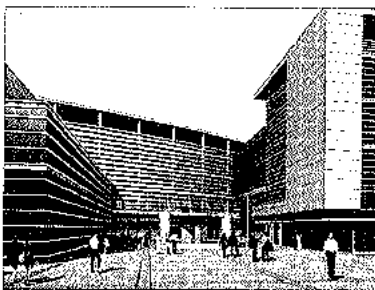


배치도

을 배치하여 상호 원활한 연구체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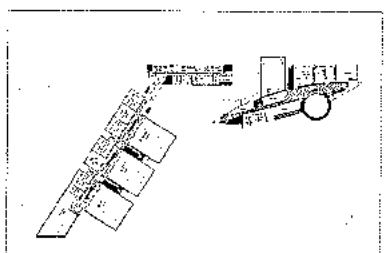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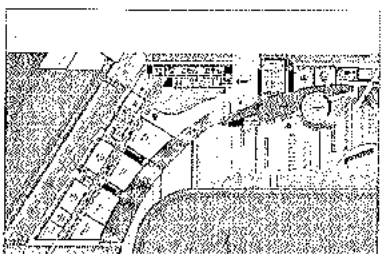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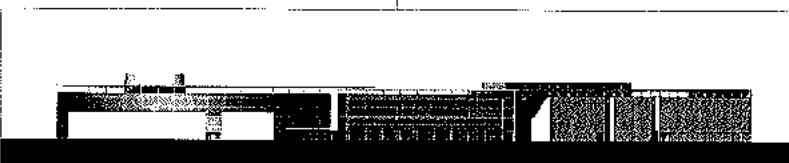
우측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바면도

▶ 우수작 / (주)공간종합건축사
사무소(이상림 · 오섬훈)

건축면적	11,879.7㎡
연면적	30,630.3㎡
조경면적	31,729.7㎡
건폐율	17.7%
용적률	43.9%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주차대수	179대
외부 마감	점토벽돌, 투명복층유리, 산화 동판, 티타늄아연판
설계팀	유옥중, 김지형, 이상은, 이유진

‘자연의 생태계는 단순한 생물과 환경의
집합체라기 보다는 그 구성원들이 체계적
으로 연결 되어 있는 유기적 조직체, 즉 시
스템(System)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모든 생태계(Ecosystem)는 역동
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생태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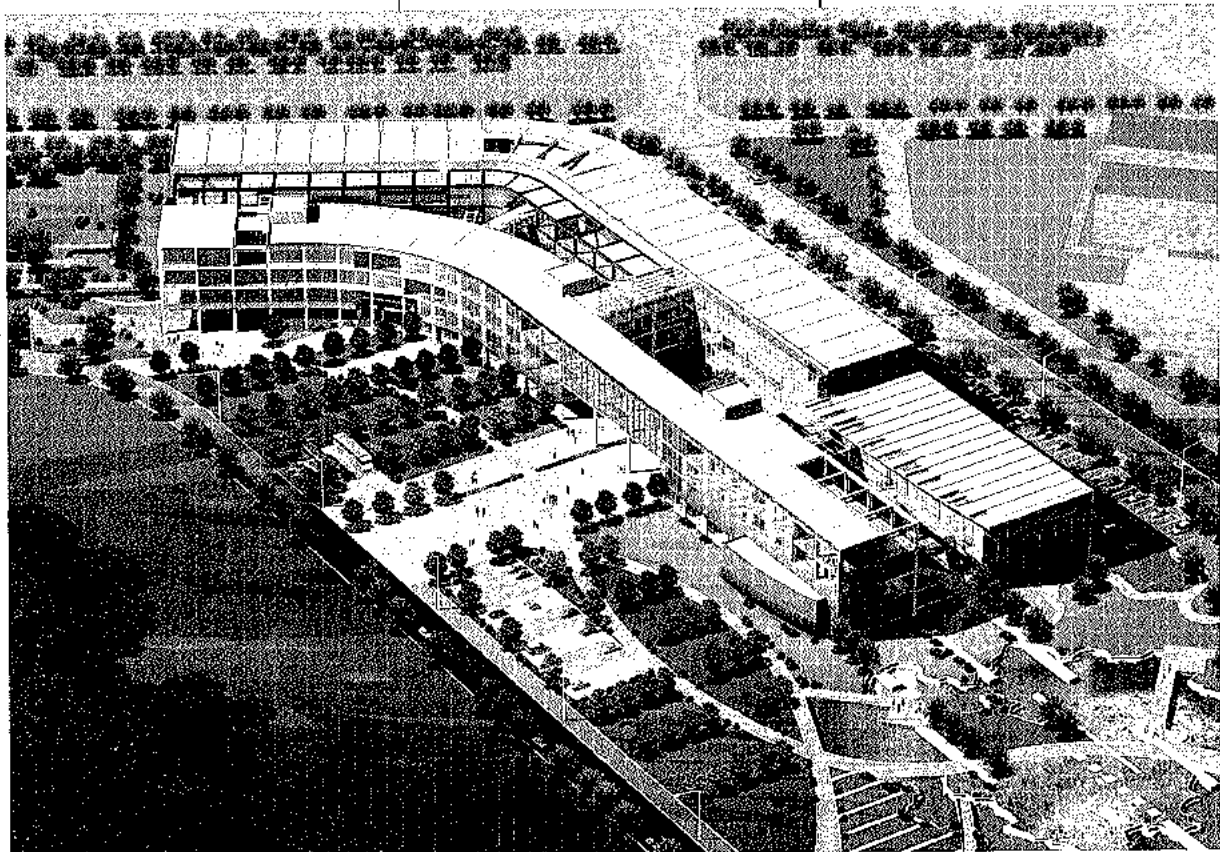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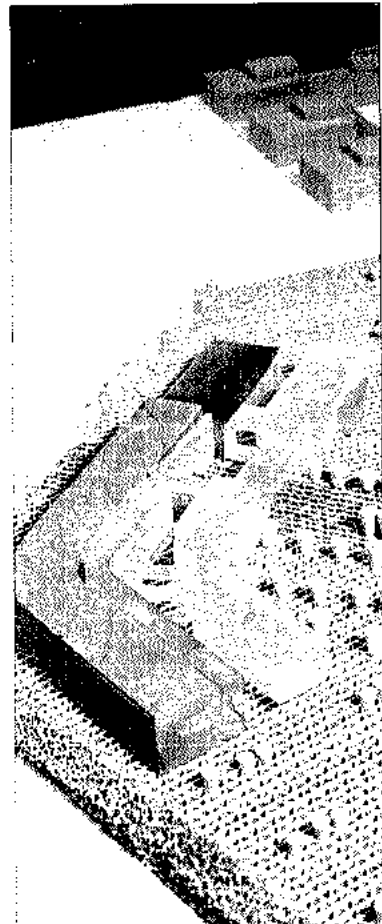
안정은 그 속에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경
우 안정성이 높아지며, 일부의 종만이 서
식하는 경우 불안한 상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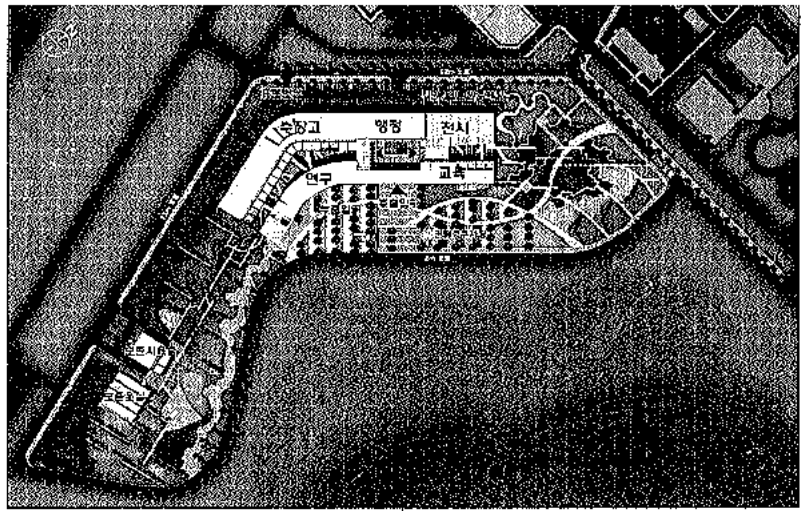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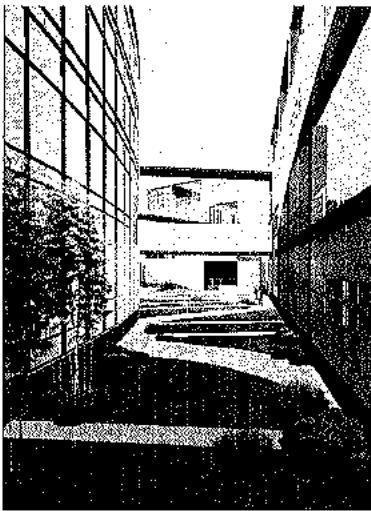
-Arthur Tansley-

국립생물자원관은 수장고와 실험실, 연구
실이 하나의 잘 짜여진 생명체와 같이 체
계적으로 연결되고 조직되어야 한다. 그
러므로 수장고와 실험실, 연구실을 각각
하나의 커로 구분하고 각각의 커를 유기
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건축물에 구축
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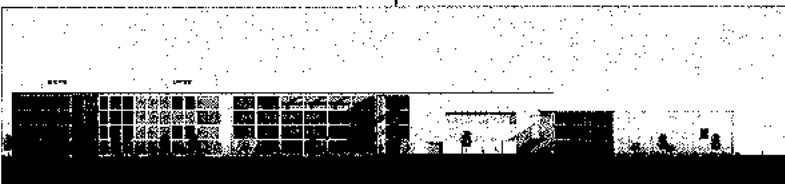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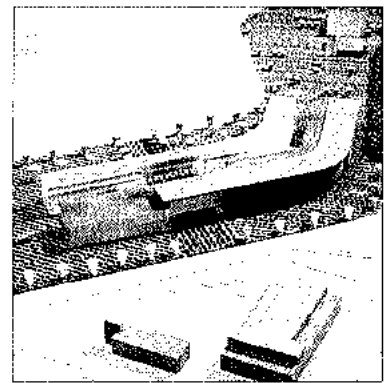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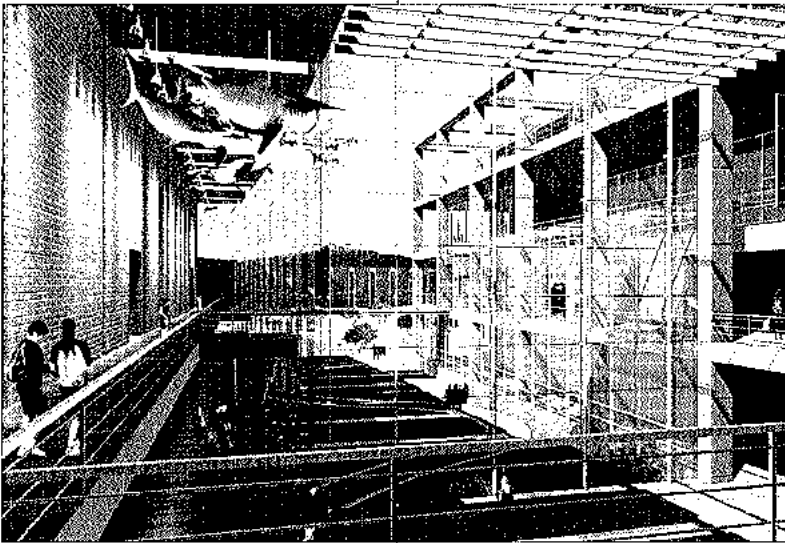
외부공간은 크게 전시시설에서 일반 방문
객이나 관람객이 공유할 수 있는 생태마
당과 온실 및 사육실과 연계하여 연구자
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구마당으로 구분
하였으며, 건물을 긴 사이트의 중앙에 배
치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구분이 이루어지
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복합적인 기능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하나의 통합적인 매스를 main중정과 sub
중정등 외부공간으로 구분하여 기능분리
와 동시에 각 실에 외기를 도입하여 자연환
기와 자연채광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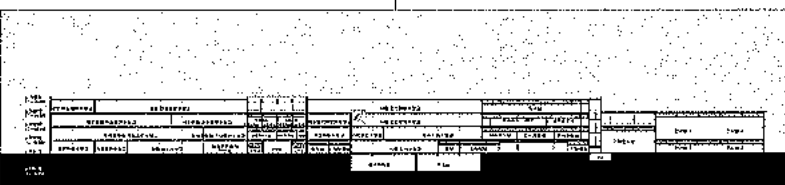




메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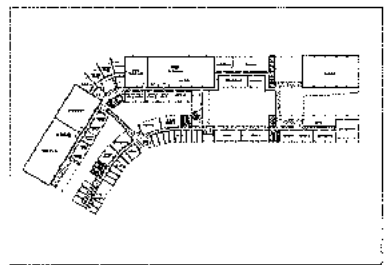
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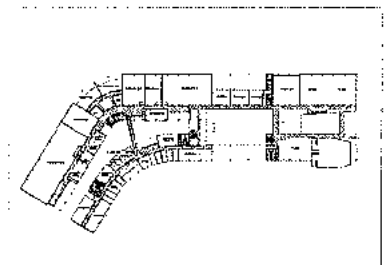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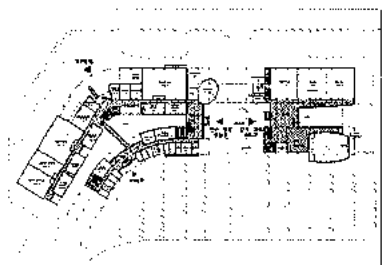
우측면도



3층평면도



2층평면도



1층평면도

대 관 안 내

대한건축사협회

전시장

건축과 문화와의 만남을 위한 전시공간

Architect's Gallery

건축사협회 회관 1층에 문을 연 아키텍트 갤러리는 60여평(198㎡) 규모의 현대적 감각의 전시공간으로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최신의 조명시설과 이동식 중간벽체를 설치하여 전시규모 및 특성에 따라 원하는 공간을 개성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대관료(1일 7만5천원, 부가세 별도)로 건축인은 물론 관련단체나 학생,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분야 외에도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전시공간입니다.

건축인은 작품활동을 알리는 공간으로, 일반인에게는 건축과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대 관 문 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2번출구 150m자점)

Tel _ 02-581-5711~4 Fax _ 02-586-8823



a+u

Architectural Record

The Architectural Review

a+u

2002년 12월

이번 호의 특
집은 피터 메
리어 하우스
에서 이루어
진 건축가와
예술가의 합
동 작업이다.



건물의 외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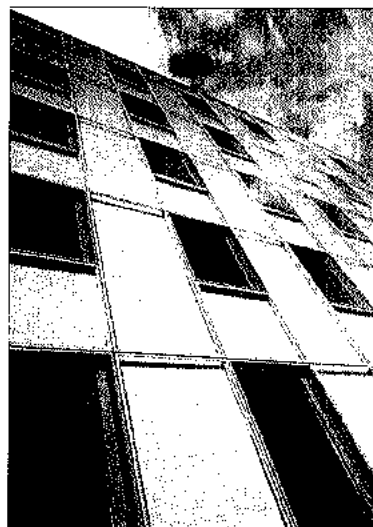
은 건축가와 조각가의 협력 작업으로, 다
섯 개의 아트리움 공간, 그리고 건물의 前
庭에서 예술가의 설치작업이 이루어졌다.
피터 메리어 하우스는 건축과 다른 장르
의 예술이 만나 이루는 복합 예술에 대한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 특집 외에 최
근 주택작품들을 다루는 별도의 특집도
꾸며져 있다.

■특집: 피터 메리어 하우스의 예술과 건축

▶ 피터 메리어 하우스는 독일 바젤시의
철도변에 건설된 복합 오피스로서, 건축
가와 예술가들의 공동 작품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참여한 작가들은 건축가 한
스 짐퍼(Hans Zwimpfer)와 조각가 도
널드 주드(Donald Judd), 로니 혼(Roni

Horn), 브리짓 코완즈(Britte
Kowanz), 어슐라 무멘타렐(Ursula
Mumenthaler), 피필로티 리스트
(Pipilotti Rist), 프랑소와 모렐레
(Francois Morellet), 비트 조데러(Beat
Zoderer), 한스 다누저(Hans Danuser)
등이다. 건물은 빌딩 80, 82, 84...90으로
이름 붙여진 6개의 빌딩과 그 사이의 아
트리움 공간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적
으로는 하나의 거대한 매스를 이루고 있
다. 조각가들의 작품은 건물의 파사드와
5개의 아트리움에 설치되었다.

▶ 건물의 파사드는 건축가 한스 짐퍼와
조각가 도널드 주드의 협력작업에 의해
완성되었다. 미니멀 아트의 주도적인 인
물 중의 하나인 미국인 조각가 도널드 주



건물의 파사드



피터 메리어 하우스

드(1928-1994)는 건물의 계획이 아직 파사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코너스톤도 놓여지지 훨씬 이전의 단계에서 작품의 의뢰를 받았다. 당시 건축가는 주드의 조각에 큰 자극을 받았었고, 주드 자신은 건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이와 같은 대규모 작품에는 참여할 기회가 없던 상황이었다. 1993년 바젤에서의 미팅에서 주드는 계획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건축가와 조각가는 좋은 궁합을 보여주었다. 주드는 건축적인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파사드의 소재와 구조를 제안하였다. 주드에게 있어서 다음의 3가지는 특히 중요하였다. 구조는 명확한 라인을 가져야 하며, 자립한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과,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내부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유리 패널이 건물을 감싼 막처럼 둘러싸게 되었으며, 이는 건물의 거친 질감의 외벽을 감싼 부분이 주는 무광택의 느낌과, 창과 아트리움 부분의 투명한 느낌이 대조를 이루는 파사드가 완성되었다. 이는 그 구조, 즉 건물과 아트리움의 교차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파사드는 인상적인 적이면서도 건물을 그야말로 명확하게 '감싸는' 것으로서, 내부에 보이는 것을 하나도 감추는 것 없이 보여주는 투명한 것이다. 이 파사드로 인해 피터 페리언 하우스는 미니멀 아트의 영향을 받은 조각

의 한 종류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도널드 주드가 함께 디자인한 최대의 것임과 동시에 애석하게도 마지막 작품이 되었다.

▶ 로니 혼에 의한 보행자용 통로 - 'You in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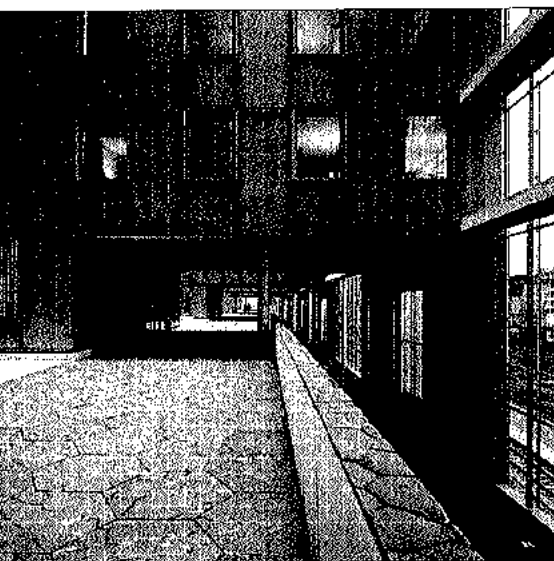
길이 180m의 보행자 통로에서 보행자는 불안정한 노면을 걷게 된다. 보도를 깔고 있는 폴로어 패널은 재질의 경도(硬度)에서 차이를 보이는 두 재료, 콘크리트와 고무 두 가지로 되어있다. 이 두가지 패널의 시각적 구분은 오로지 색깔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회색이 콘크리트 패널과 오렌지색이 고무 패널이다. 고무 패널의 탄력성은 그 위에 올라섰을 때 비로소 느껴진다. 그것은 비일상적이면서도 기분 좋은 체험이 된다. 완전히 다른 곳에 와 있는 느낌이 오는 이 감촉은 패널 문양의 근원이 된 아이슬랜드(Iceland)의 느낌인지도 모른다. 'You in you'라 이름 붙여진 이 작품의 오렌지색이 가져다주는 따뜻한 느낌은 청록색의 건물이 갖는 차가운 이미지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시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체에 의해 처음 느껴지는 이 작품은 촉각적이면서도 유기적인 것이다. 작가인 로니 혼은 1955년생으로 뉴욕과 아이슬란드에서 활동해 왔다.

▶ 브리짓 코원즈에 의한 빌딩 80의 아트리움 설치작품 - 'Light is what we see'

모든 시선은 이트리움과 그것에 면한 오피스를 구획하고, 또 통합하는 유리벽에 끌리게 된다. 빛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유리벽 위에 2번 상하로 써있다. 그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나머지는 아래에서 위로. 문자의 수와 배열은 유리 패널의 수와 대응하고 있다. 문장의 의미도 분명하다. 빛이 문자에 의해 산란되어 그 문장이 눈에 보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장과 동시에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브리짓 코원즈는 1957년생으로 빈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 어슐러 무엔타렐에 의한 빌딩 82의 아트리움 설치작품 - 'Le Champ bl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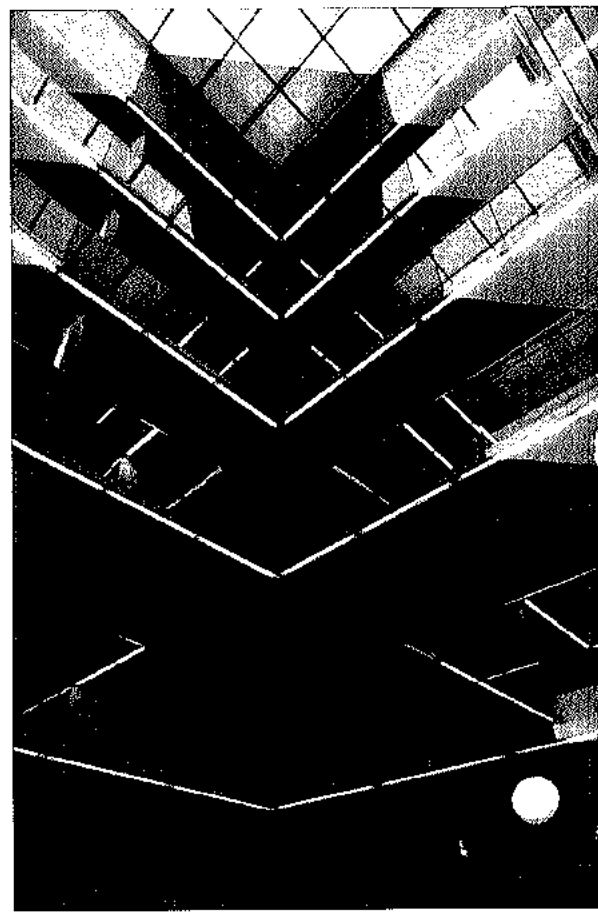
푸른 색체가 공간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다. 기본이 되는 3각형의 면에서 시작하여 푸른색은 5층까지 상승하여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뒤덮는다. 벽, 천정, 바닥, 난간, 난간동자, 조명, 그리고 조명의 스위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청색이



로니 혼에 의한 보행자용 통로 - 'You in You'



브리짓 코원즈에 의한 빌딩 80의 아트리움 설치작품 - 'Light is what we see'



어슐러 무엔타렐에 의한 빌딩 82의 아트리움 설치작품 - 'Le Champ bleu'

다. 청색은 공간에서 그 영역을 잘라내어 건축의 4각형을 횡단한다. 푸른 색체의 확장은 대각선을 이루면서 공간을 횡단하고, 결과적으로 공간은 기하학적인 고정성을 잃고 있다. 예술러 무멘타렐은 1955년생으로 제네바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 피필로티 리스트에 의한 빌딩 84의 아트리움 설치작품 - 'Geist des Stroms'
이 건물은 마법에 걸렸다. 영은 하드디스크와 광섬유 속에 살고 있다. 보통은 거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들은 확실하게 스케줄에 따라 움직인다. 그들은 하루에 5번, 즉 오전 8시와 오후 1시, 5시, 9시, 그리고 (오직 주말에만) 자정에 단지 몇 초간만 모습을 나타낸다. 장소는 3, 4, 5, 6층과 엘리베이터 속으로 한정된다. 영에 의해 만들어진 환영은 전기소켓 만한 모니터나 보통의 벽에 투여된 화면 등에서 나타난다. 이들 중 하나는 없어지

지 않고 계속해서 비누방울을 만들어 낸다. 음(音의) 현영은 플로어 전체에 배치된 12개의 스피커에서 소리를 내뿜는다. 피필로티 리스트는 1962년생으로 취리히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 한스 다누저에 의한 빌딩90의 아트리움 설치작품 - 'Nah und fern'
몇 세대에 걸쳐 내려오면서 어린이들이 글씨를 쓰거나, 무언가를 그려왔던 석판을 사진을 찍어 난간 위의 핸드레일에 포개어 놓았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중요한 심볼인 백 슬래쉬(back slash)가 컴퓨터에서 유리벽에 커다란 문자로서 직접 옮겨왔다. 세부까지 정확하게 찍어내는 석판의 사진이 부착된 핸드레일과 완만한 사진이 알프스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의 파노라마 패널을 연상시킨다. 이곳에서의 풍경은 백 슬래쉬를 조각한 벽인 것이다. (가까이 있는) 패널의 석판과 (멀리 있는) 키보드의 백 슬래쉬가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다양성을 표현하고 있다. 한스 다누저는 1953년생으로 취리히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번역/강상훈)



한스 다누저에 의한 빌딩90의 아트리움 설치작품 - 'Nah und fern'

Architectural Record

2002년 10월

소형 건축, 상업 건축을 특징으로 다루고 있으며, 건축가와 윤리라는 문제를 검토하는 에세이를 게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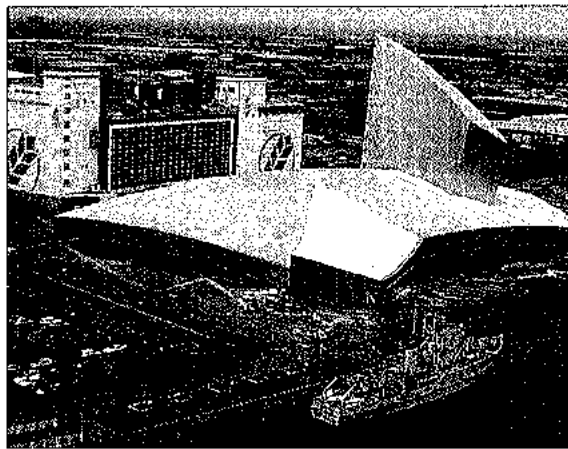


■ 소형 건축

예산, 면적, 규모 면에서 작은 건축물들은 사실 잡지라는 매체에 매우 적합하다. 적은 지면으로도 그 맥락과 성취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Daniel Libeskind의 영국 Manchester Imperial War Museum North

규모 면에서는 그리 작은 편이 아니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실현된 작품이다. 'Imperial', 'War', 'Museum'을 영어에 존재하는 최악의 단어들이라고 말하는 Libeskind는 그러나 전쟁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평화 유지의 합당함을 보여주기 위해 설계를 맡게 되었다고 한다. 18세기 프랑스의 '말하는 건축'의 전통을 잇고 있는 그의 건축은 나치를 피해 폴란



Daniel Libeskind의 영국 Manchester Imperial War Museum North

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유년기의 기억을 전달하고자 한다. 그러나 6천2백만 달러에서 4천7백만 달러로 대폭 삭감된 예산 속에서 계획된 이 건물은 그 외관에서부터 의도한 상징(파편화된 지구)을 전달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내부 공간은 감상자를 일상 공간에서부터 끌어내어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Libeskind가 베를린의 유대인 박물관에서 성취했던 다양한 의미의 층위를 재현하진 못하고 있다. 특히 전반적으로 볼 때 이 건물은 Manchester 속의 버려진 항구라는 지역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적 맥락에 대한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지어진 스펙터클 건축은 복고적인 역사주의 건축물만큼이나 맥빠진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그 외에 ▶Asymptote의 네덜란드 Haarlemmermeer HydraPier, ▶Samuel Anderson Architect의 미국 뉴욕 Thaw Conservation Center, ▶Baumschlager+Eberle의 독일 뮌헨 Munich Re South 1 등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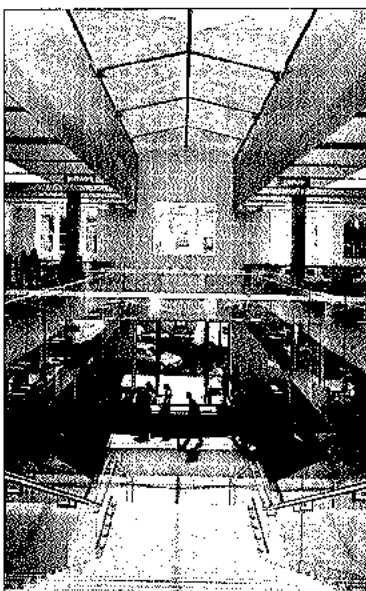
■ 윤리와 건축가

최근 윤리와 건축의 관계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나 저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미국 사회에서 일련의 기업가들이 행한 경제적 부정 행위가 공개되면서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믿음은 큰 타격을 받았으며, 911 테러에 의한 세계 무역 회관의 붕괴는 건축 분야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쳤다.

건축가는 사회적으로 큰 책임감을 안고 있는 직업이지만, 특정 건축주에 고용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윤리적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다. 건축주의 요구가 종종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건축가의 윤리관은 더욱 큰 중요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미국 건축가 협회는 1970년대까지 100년에 걸쳐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고자

했었다. 가장 큰 규범은 건축가들 사이의 압찰 경쟁을 금지하는 것이었는데, 설계비를 기준으로 한 경쟁을 제거하면 작품의 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 미 법무성에서는 이를 독점 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협회에 속한 건축가들이 설계비를 통일시키기로 답합을 할 경우 그들 마음대로 이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에 협회로 하여금 비경쟁 체제를 지양하는 법안을 제정토록 했다. 법무성이 보기에 건축가들의 실질적인 경쟁의 장은 바로 설계비에 있었고, 이를 통해 건축주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무성의 판단에서 빠진 것은 건축의 2차 소비자들에 대한 고려였다. 건축주들이 1차적인 경제성만을 추구한 결과 생산되는 건축물들의 미적 결여나 환경 파괴는 곧 사용자와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되는 것이다. 이런 법제적인 규약이 사라진 상태에서 건축가들은 스스로의 윤리관을 확립할 수밖에 없다.

역사를 통해 토마스 아퀴나스, 존 러스킨, 마르틴 하이데거 등이 전문가의 윤리관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CAD를 통한 설계에 익숙한 젊은 건축가들에게서는 스케일 감각, 실질적인 축조, 건축의 사



상점 건축 소개로 Bohlin Cywinski Jackson의 뉴욕 Apple Store

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경향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경쟁 체제에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면서 건축의 질, 창조성, 환경 친화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길에 대한 혁신적인 고민들이 요구된다.

■ 기타

▶건축가들의 최근 저서로 예술, 철학, 디자인의 개념들을 한데 아우른 UN Studio의 Unfold, Asymptote의 Flux, Diller+Scofidio의 Blur: The Making of Nothing 소개, ▶상점 건축 소개로 Bohlin Cywinski Jackson의 뉴욕 Apple Store, Duccio Grassi의 뉴욕 Max Mara,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의 일본 도쿄 Hermes가 다루어져 있다.

The Architectural Review

2002년 11월

미국에 지어진 다수의 최근 건축을 통해 미국 건축계의 새로운 정체성을 살펴보고 있는 본 호에서는 아울러



911 사건으로 사라진 세계 무역 회관의 재건축에 대한 건축계의 대응을 반성해 보고 있다.

■ 911 테러에 대한 건축계의 반성

911 사건을 통해 소방관, 경찰, 인근 레스토랑 주인, 자원 봉사자들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건축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넘어서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잿더미가 채 식기도 전에 해답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세계 무역 회관의 재건립과 로워 맨해튼 지역의 재개발에 대해 저마다의 해법을 각종 미디어에 앞다퉈 발표한 것이다. 재건축은 당연하며 이런 비극에 대한 하나의 진통 완화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부터 믿음이 일반화됐던 결과였다. 단 한 건축가만이 시간을 갖고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상처를 치유하자고 제안했을 뿐 모든 계획은 즉각적인 대형 건축물의 재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건축 외적인 사항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뉴욕 시민, 정치가, 도시 계획 담당자, 개발업자들이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건축가들은 이미 다시 지어질 마천루의 형태에 집착하고 있었다. 뉴욕과 미국 전체의 건설 불황을 생각한다면 건축계의 이런 폭발적인 관심이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니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직원들을 분산 수용하기로 한데 반해 일부 건축가들은 이 지

역의 중심성을 여전히 맹신해 대체 프로그램의 개발에는 무관심했고, 다른 일부는 과거 월스트리트를 이룩한 거대함을 부활시킬 기회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개념적인 설계를 추구할 것인가 철저한 상업성을 목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로워 맨해튼의 개발 조합이 발표한 6개의 계획안에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모두가 평범하기 짝이 없어 결국 뉴욕 타임즈의 후원 하에 유명 건축가들의 대체안들이 발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기에 제시된 계획안들은 대부분 지역 맥락에는 관계없이 저마다 화려한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수사학적으로는 기발한 것도 더러 있었지만 상처 입은 도시 조직에 대한 치유보다는 자기 본위의 새로운 형태 추구가 더 큰 목표로 읽혔다. 911에 따른 사회 문화적 위기에 대응하기보다는 건축의 새로운 기술과 이미지를 제시하는데 집착한 것이다. 이는 건축의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네덜란드 NOX Architekten의 설계안)

■ 작품 소개

미국 건축의 정체성을 새로 확립하기 위한 근작들을 살펴보고 있다.

▶Diller+Scofidio의 뉴욕 미술관 및 워크숍

뉴욕에 자리잡고 있는 아이빔은 컴퓨터와 디지털 아트 분야의 예술가와 학생들을 위해 교육과 자원 사업을 펼치는 비영리 단체이다. Diller+Scofidio가 설계해 2006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아이빔의 예술 및 기술 박물관은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전시 공간을 제공해주게 된다. 아이빔은 현대 예술 문화에 대한 관여도를 고려해 1년에 걸쳐 3단계에 걸친 설계 심사를 거친 결과 Diller+Scofidio의 최종안을 선택했다.

환영과 안공성을 통해 시각 중심적인 이 시대 문화를 반영해온 그들의 작품 세계를 볼 때 이런 선택은 매우 적합한 것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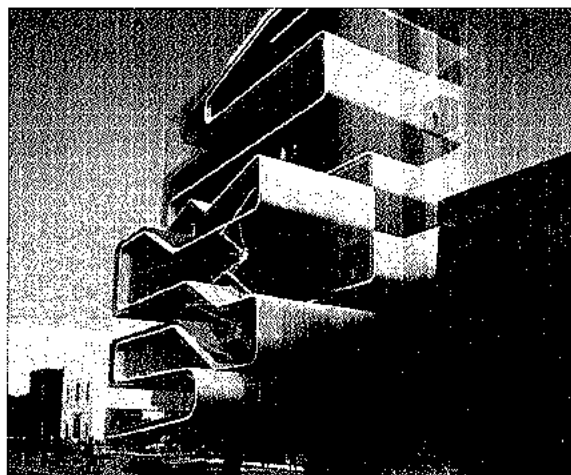
다. 특히 2002년 스위스 엑스포에서 선보인 그들의 안개 건물은 건축을 스펙터클로 대하는 문화의 가벼움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계획안은 제작 공간(워크숍과 이뜰리에)과 전시 공간(미술관과 극장)을 분리하고 정의하는 유동적인 리본을 기본 개념으로 삼고 있다. 이 리본은 아래부터 물결치며 위로 올라가면서 각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방문자들은 각 레벨을 지나며 서로 다른 영역들을 통과하게 된다. 특히 리본이 갈라지면서 상하부 레벨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제작 공간이 전시 공간을 침범하는 등의 효과를 맛볼 수 있다. 시간에 관계없이 적당량의 빛을 요하는 제작 공간, 고도의 빛과 소음 제어가 요구되는 전시 공간 등 각 영역의 특성도 반영되어 있어, 결국은 빛으로 충만한 공간, 필요에 따라 빛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 모두를 개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 공간과 재료가 연출하는 드라마는 아이빔의 개방성과 이단적인 정신을 잘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 ▶Charles Rose Architects의 와이오밍 주 주택 단지, ▶Rick Joy의 Tucson 주택, ▶Daly Genik의 LA 학교, ▶Vincent James의 Tulane 대학 회관 등을 소개하고 있다. (번역/최원준)



네덜란드 NOX Architekten의 설계안



Diller+Scofidio의 뉴욕 미술관 및 워크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2002. 12. 26)과 시행규칙(2002. 12. 31)이 제정 공포되었다. 따라서 비도시 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기업을 도입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이 완벽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과 관련된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군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의·승인 또는 결정의 권한을 줌으로써 국토계획체계의 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 및 제24조).

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지형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적도에 개발계획의 내용을 표시하여 고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되, 도면제작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할 수 있는 예외를 둠(영 제27조제2항).

다. 공원 등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에서 아파트·연립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지정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초등학교·공원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함(영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라. '한옥마을의 보전', '차없는 거리 조성' 등을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

차장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고,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을 150퍼센트까지 완화하며 허용되는 건축물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함(영 제46조 및 제47조).

마. 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작물의 설치,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경관이 훼손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개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 제53조).

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토지의 형질변경규모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가 당해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도시의 발전 및 관리방향에 부합되도록 함(영 제57조).

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지정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용적률을 50퍼센트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함(영 제62조 및 제63조).

아.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중심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의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심지역의 기반 시설에 대한 주변지역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반 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 방법 등을 정함(영 제64조 내지 제 70조).

자. 난개발이 문제되었던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역)이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각각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의 수준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행위제한 방식을 제한행위일거방식에서 허용 행위일거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의 해소를 도모함(영 제71조 및 별표 18 내지 별표 20).

차.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정하고 건폐율은 60퍼센트로 하며,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영 제78조제1항 및 제84조제3항제1호·제6항).

카. 관리지역의 세분지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을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로 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정함(영 부칙 제 13조 및 별표 27).

타. 비도시지역에서는 다세대주택·교회·음식점 등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여야 건축이 가능하나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

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에 한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는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다세대주택·교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의 경과조치를 정함(영 부칙 제15조).

△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향만구역 등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의 지형도에 용도지역을 표시하고,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정범위를 표시하도록 함(제5조).

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차장·광장 및 유통저장·송유설비 등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다. 폐염전을 어업허가및신고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수조식육상양식어업 및 축제식양식어업을 위한 양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 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제10조제1호).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는 지역 등을 지정한 후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과 같은 축척을 사용하도록 함(제34조).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관한규칙 개정

건설교통부는 최근 건축물에서의 화재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날로 커져감에 따라 지난 1월 6일 피난 및 방화기준을 강화하여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복합건축물의 피난기준과, 내장재료의 사용을 강화함
-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직통계단 설치개소를 늘리고,
-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한국산업규격(KS)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함.(공포후 1년이 경과후 시행)

2002년도 건축사지 총 목차

02년 01월호(통권39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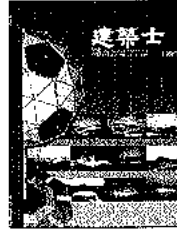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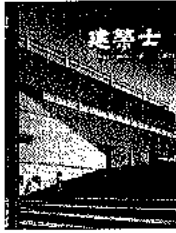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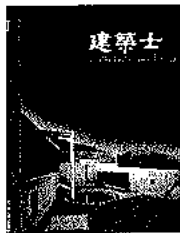
신년사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협회	우남동	12
칼럼	진정한 건축사의 자존심	김석현	14
회원작품	SS+HOUSE	민규암	18
	평택굿모닝병원	김영웅	26
	에이스 테크노타워	오근석 · 문 호	32
	소피텔 미리지오	김성근	38
	대구 MBC	최관영	46
	도동문화정보센터	유방근	52
	월강기념관	유 건	56
작품노트	은평구립도서관 · 안과 밖의 기록	박재환	60
계획작품	미래산업(주)철단연구소	김상길 · 김희욱	66
	용인 공공도서관	김상길 · 김희욱	69
기획연재	중국 건설시장의 현황과 전망(3)	안길원 · 조인석	72
기고	건축사·자살농민문제도 도입 및 시범	박윤순	78
건축만평		유원재	86
건축아당	건축계소식		87
	해외집지동향		91
	현상설계경기		96
	세무안내		114
	신기술 신지체		119
	2001년 총 목차		120

02년 02월호(통권394호)

건축에세이	집	김가석	12
작품리뷰	호유재	김호만	16
	비평 : 그의 건축은 빛이 있고 빛이 있다 박만철		26
회원작품	풍력다기(豊多氣)	최동호	30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공동자원시설	김건준 · 신동재	38
	농업기반공사본사	이강호	46
	광주현대공회관도서관 & 본관인문서관 유 건		52
	서부소방서 리노베이션	한상문	60
	금정세무서	김희 · 허문 · 고영동	66
작품노트	D전주교회	이종기	74
기고	자구한위계해이 하파르설계 미하는 영향 윤혁경		78
건축만평		유원재	86
건축아당	건축계소식		87
	현상설계경기		92
	계획작품		106
	해외집지동향		109

02년 03월호(통권395호)

칼럼	외부공간과 역사에 대한 배려	차미래	14
회원작품	서울민남의 광장 휴게소	최삼영	18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김희수	26
	고양 어지 중 · 종합고등학교	산양천	34
	코리아 디자인센터	이영희 · 정영균	42
	부산전서 · 컨벤션센터	이응홍	50
	부산시 국공립	김승희 · 강원필	60
작품노트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	안길원 · 서희조	68
기고	건축가의 선배장신	서보광	76
	국립현대미술관 본관에서는 건축도착지 김상길		78
	현명건축(Heinrich) 현명건축의 시점 이명락		81
기획연재	중국 건설시장의 현황과 전망(완)	한동수	84
건축만평		유원재	90
건축아당	건축계소식		91
	현상설계경기		98
	해외집지동향		110
	세무안내		116



02년 04월호(통권396호)

칼럼	계획설계 거부 운동만이라도 실현하자! 최영집	18
작품리뷰	성동구 광동1동 청사 김인철	22
	비평 : 문명, 그 공간(風景)을 통해 이해 이공희	34
회원작품	한국산업은행본점 이영희 · 정영균	36
	종교교회(양주삼 기년교회) 김한근	44
	홍익대학교 정보통신센터 오가수	54
	반포세무서 직원숙소 오가수	62
작품노트	마당, 그 카타르시스적 공간 최동호	66
기고	살의 가치와 노년의 발견 김화곤	72
연재	박물관의 개념적 변화와 건축적 대응(1) 김용승	78
건축만평	유원재	86
건축아당	건축계소식	87
	현상설계경기	94
	해외집지동향	100
	법령	105
	세무안내	106

02년 05월호(통권397호)

칼럼	환경친화적인 도시 만들기	전철호	18
특집 / 2002월드컵경기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류준수	22
	부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최정세향 · 이상필	30
	대구월드컵경기장	강철희	38
	인천문화경기장	장석웅	46
	광주월드컵경기장	이상필 · 정동영	54
	대전월드컵경기장	김지민	62
	울산월드컵경기장	이강우 · 심상보	70
	수원월드컵경기장	박 승 · 김관중	78
	전주월드컵경기장	이강우 · 심상보	84
	제주월드컵경기장	황일인	90
작품노트	월드컵 상징 조형탑	함인선	98
연재	박물관의 개념적 변화와 건축적 대응(2) 김용승		102
기고	우리의 삶과 변화	김화곤	110
건축만평		유원재	118
건축아당	건축계소식		119
	해외집지동향		125
	세무안내		130

02년 06월호(통권398호)

칼럼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율 결정에 즈음하여 김인수	20
회원작품	미래산업(주) 철단기술연구소 김상길 · 김희욱	22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이영필	32
작품리뷰	중국2도시사무소+파출소 최동규	40
	비평 : 박물관 짓의 영토화를 위하여 이종건	52
기고	세계화와 한국의 가치의 공존 김화곤	56
	고노(高野)와 번뇌(煩惱) 박세진	64
연재	박물관의 개념적 변화와 건축적 대응(3) 김용승	67
건축만평	유원재	74
건축아당	건축계소식	75
	현상설계	82
	해외집지동향	100

2002 Annual Index

02년 07월호(통권33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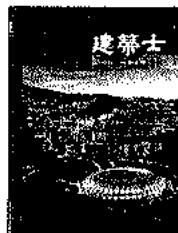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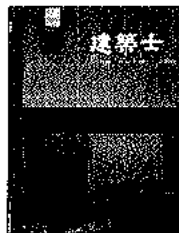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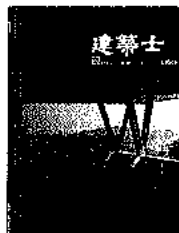
칼럼	한국 건축계의 세계화와 한국화	양상호	22
회원작품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서보광	24
	한국재활복지대학	이영희 · 정영균	34
	김해천문대	이상렬 · 강상인	44
	과천정보과학도서관	이관직	54
기고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최찬환	62
	책사온 양구배수공법	이형남	68
연재	박물관의 계층적 변화와 건축의 대응(상)	김홍승	73
건축만평		유원재	82
건축미당	건축계소식		83
	현상설계		90
	계획작품		98
	해외집지동향		102
	세무안내		105

02년 08월호(통권400호)

칼럼	새로 써야 할 공간의 역사	박연심	18
회원작품	동다(東茶)	이충기	20
	천주교 가남성당	김경산 · 하인원	30
	둔산동 피카소 빌딩	박영준	38
	스펙트럼 시티	김우영 · 김인규	46
	이목(棘木)빌딩	최동호	54
계획작품	아펜젤러 기념교회	김석환	62
	신림동 교회	김석환	66
현상설계	창원비송 재건축 사업지구 공동주택		70
	수도권 마립지 관리공사		74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		78
	충남대학교 생명과학원 및 공동몸물실업센터		82
	외경부세무서 청사		86
작품노트	조태원 시민 기념관 및 시립박물관 이운화		90
기고	중심에 접근하기	이필호	96
건축만평		유원재	98
건축미당	건축계소식		99
	해외집지동향		104
	세무안내		110

02년 09월호(통권401호)

칼럼	주거지 경관계획과 건축사의 역할	박경재	26
회원작품	동영수산업과학관	이상렬 · 오성훈	28
	미포문화체육센터	이영희 · 정영균	36
	통인정(通人亭)	정구은	46
	가나 빌 빌라	정구은	56
계획작품	대전치과대학원	임재용	64
현상설계	홍인보리지구 공동주택		70
	충익대학교 부속 중 · 고 교육체육관		74
	전남대 기숙사 B호관		76
	달성군청사		80
	금강강역원청사 증축 및 개보수		8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청청사		84
작품노트	용평 리조트	박종기	86
기고	빌터 추석인테	박영건	90
	현 건축사의 전쟁	민규암	92
건축만평		유원재	94
건축미당	건축계소식		95
	해외집지동향		100
	세무안내		106



02년 10월호(통권402호)

칼럼	실제로 말할 대이다	박인석	18
회원작품	21세기 좋은 병원	장현배 · 임광수 · 이현종	20
	안성맞춤박물관	권문성	30
	묵선아트센터	김동훈	38
	문당주택	이상관	46
	암구정 사원 제3빌딩	박연심	56
	신동동노인주택	손기찬	64
현상설계	서울대학교 간호대 기숙사		72
	한국보지공사 송남지사		76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		80
	임실청소년수련관		82
작품노트	금오공과대학교 제3대학	서기영	84
기고	두개지 재단 · 대를 수 있을 줄 고쳐배아	오성훈	98
건축만평		유원재	90
건축미당	건축계소식		91
	해외집지동향		96
	세무안내		102

02년 11월호(통권403호)

칼럼	절제기와 알맹이	권도용	16
특집 / 2002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19
	대상 - 부산아시안드주경기장		32
	본상 - 원당성당		42
	코리안디자인센터		50
	충부대학교건원관		58
	수원시연화장		64
	기흥상갈문화마을		72
	부산아시안경기대회 선수 · 기자촌 아파트		78
	계획건축물부문 / 금상, 은상, 동상		85
작품노트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손두호	91
기고	세계화시대의 지역 만들기	류재경	96
	연습	최남영	100
건축만평		유원재	102
건축미당	건축계소식		103
	해외집지동향		108
	세무안내		114

02년 12월호(통권404호)

칼럼	도시민들기와 건축사의 역할	이정형	18
회원작품	민원주택	백성근	20
	수유리 녹운당(綠雲堂)	최찬환 · 정영생	32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주)정림건축	42
	성남시 화장장	이상렬 · 강희성	48
	갯동	한진수	56
	공동산 유치원	김성곤	62
	한국담배인삼공사 영주지점	이영록	68
현상설계	경향종합학교 청사		72
	제주4 · 3평화공원		76
	서울비즈니스센터		82
	중랑 청소년 수련관		86
	서울산업대학교 여학원		88
기고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마성호	90
	건축사 특별 검사원 제도	최찬환	92
건축만평		유원재	96
건축미당	건축계소식		99
	세무안내		104